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0000-000360-01

#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2009



외교통상부

통상마찰 · 기업매로  
해소 사례집

2009

# 통상마찰·기업매로

## 해소 사례집

2009

인 쇄 2010년 1월 5일

발 행 2010년 1월 8일

발 행 처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

디자인·인쇄 (주) 놀품플러스 (T.070-7090-1177)

동 사례집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전화 : 2100-7665, 이메일 : [promotion@mofat.go.kr](mailto:promotion@mofat.g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상마찰 · 기업애로

## 해소 사례집

2009

A decorative collage of diamond-shaped images. The images include: a map of Central Asia (Kazakhstan, Kyrgyzstan, Uzbekistan, Turkmenistan); a 10 Euro banknote; a 100 Euro banknote; a map of East Asia (China, Mongolia, Korea); a multi-story European-style building; and a map of East Asia (China, Korea, Japan).

외교통상부



# 발간사

세계화의 확산과 심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게 지구촌 곳곳은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었고, 신규시장 개척 및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상마찰 및 각종 애로사항들을 접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해외 정보망이 비교적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국내와 상이한 현지 제도 및 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독자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여, 외교통상부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통상마찰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재외공관 실무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통상마찰과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모아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말까지 재외공관에서 담당한 통상마찰·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해소 사례들을 담아 동 사례집 2009년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례집에는 71개 재외공관이 제출한 172건의 사례들이 I. 통상마찰 해결 및 지원 사례, II.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III. 미수금 해결 지원 사례, IV. 기타 지원 사례의 4개 항목에 따라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사례는 1. 사례 개요, 2. 공관 조치 사항, 3. 공관 조치 결과, 4. 시사점 및 참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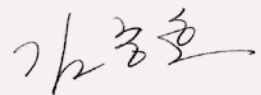
2008년 말 발생한 세계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영업활동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 사례집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유사한 사례에 직면했을 때,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협조와 지원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악화된 해외진출 여건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친화적 통상외교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집 발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재외공관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1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중 훈



## I 통상마찰 해결 및 지원 사례

러시아	평판압연강재 반덤핑 조사대응 및 종결 지원	14
말레이시아	철강제품 수입 관련 말레이시아 강제품질인증제 개선 지원	17
몽골	수입맥주에 대한 특소세 차별 적용 해결 지원	19
미국	피스톤 부품 상계관세 조사 대응 및 종결 지원	21
브라질	무역업체 통관 애로 해결	24
선양	아산부동산개발유한공사 토지사용증 취득문제 지원	26
선양	요녕성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과다 규제 해소	28
선양	우리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해결 지원	29
선양	한라레미콘 유한공사 국유토지사용증 취득 문제 해결	31
에콰도르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해결을 위한 지원	33
에콰도르	한국타이어 에콰도르 수출 애로사항 해결	36
엘살바도르	자동차 폐배터리 수출 허가 지원	39
인도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대응 및 동결 지원	41
인도	탄산칼륨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대응	43
일본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완전 철폐	45
캐나다	스테인레스강선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철폐	47
콜롬비아	의료기기 통관 지원	49
페루	우리선박 "Sea World 101호" 임금체불 및 부채관련 출항금지 조치 해결 지원	50
페루	한국수출입은행이 페루에 제공한 전대차관관련 혐의 지원	51
EU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문제 해결	52
EU	스테인레스냉연강 반덤핑 조사 종료	55

## II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가나	우리 건설업체의 가나 도로공사사업 인수 승인 지원	62
광저우	수출신용장 사고 관련 지원	64
나이지리아	한국가스공사 현지법인 설립 지원	67
나이지리아	한국석유공사 소송 지원	69
네덜란드	국산 휴대폰의 네덜란드 정부 전자파 기준 초과 사례 대응	71
네덜란드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 품목분류 문제 해결	73

네팔	한국수력원자력(주) 수주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낙찰철회 지원	75
뉴욕	글로벌 수출기업의 신용검색 해소 지원	77
뉴욕	동포기업 구인난 해소 및 해외인턴 취업 지원	79
뉴욕	IT 기업 전문인력의 현지파견 관련 애로 해소	81
대만	신안 SNP의 대출 원리금 상환기한 연장 문제 해결 지원	83
라스팔마스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비국적 어선에 대한 우리 국적 부여 지원	85
라스팔마스	스페인 반입 수산물의 통관 지원	87
라스팔마스	한국산 과자류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지원	89
러시아	LCD-TV 판넬에 대한 무관세 수입품목 지정기간 연장	91
레바논	한전 운영 발전소 노조의 태업 사태 해결 지원	93
리비아	수입기계 가동문제 해결 지원	96
리비아	한국산 자동차 통관금지 조치 유예	98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101
말레이시아	Kuala Terengganu시 경기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건설업체 애로 지원	102
말레이시아	POSCO-MKPC 제2공장 건설 지원	104
멕시코	우리 배터리업체의 해외 산업재산권(상표권)에 대한 침해 대응 지원	106
멕시코	삼성엔지니어링의 현지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입찰 지원	108
멕시코	우리 기업들의 현지 물류운송에 대한 보안 문제 해소 지원	110
멕시코	B 생활용품사(면도기) 해외 산업재산권(상표권) 침해 문제 해결 지원	112
모로코	전력청 변압기 입찰참여 지원	113
모로코	한국산과 EU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 격차 완화 노력	115
뭄바이	현대중공업 전기공급 문제 해결	117
미얀마	봉제업체 현지 경영 활동 관련 지원	118
불가리아	기아자동차 차량압류사건 해결	118
블라디보스톡	원산지증명서 관련 수출애로 해결	121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 진출기업의 노동허가 발급 및 쿼터 배정 확대 문제 해결	123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상선 컨테이너 반환 문제 해결	126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의 공장 진입로 주변 도로 건설 문제 해결 지원	129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현지 생산공장 등기 문제 해결	131
스리랑카	우리 업체 관련 노동분규 해결 지원	133
스리랑카	탈세혐의 해소 지원	134
스페인	한진해운 안달루시아 주정부 보조금 획득 지원	135
스페인	LG법인에 수출 보험공사 자금 조달 지원	138

# CONTENTS

슬로바키아	우리 기업 단기출장자 체류관련 애로 해소	139
슬로바키아	현대모비스의 슬로바키아 정부지원금 수급 지원	14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시내 도로·교량 공사 관련 애로 해소	143
에콰도르	태평양정유공장(Refineria del Pacifico)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	145
에콰도르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공사 수주 및 공사 계약 지원	148
영국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및 수출 지원	150
영국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 국산화 및 수출 지원	152
영국	원양어업체 조업 쿼타 배정 지원	154
영국	체류허가제도 변경에 따른 지상사 애로사항 해소 지원	156
예멘	대우건설 법인세 부과 애로사항 해결	157
오만	우리 기업 직원용 부식 수입 통관 지원	160
온두라스	(주)한국전력 수력발전소 건설계약 중지에도 따른 손실 차단	161
온두라스	(주)한솔 노동자 상여금 산출근거를 둘러싼 분규	162
우루과이	인성실업의 몬테비데오항 국영 냉동창고 임대사업 입찰 및 운영 지원	164
우루과이	포스코의 조림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승인 지원	166
우즈베키스탄	부당관세 부과 사례 시정조치 지원	168
우즈베키스탄	우리 기업에 대한 환전지원	170
우즈베키스탄	우리 수출면장 불인정 문제 해결 지원	172
이란	우리 근로자 역류 문제 해결 지원	174
이란	우리 기업 주재원 노동허가 문제 해결 지원	176
이집트	노동허가(Work Permit)문제 해결 지원	178
이집트	원산지 기준 충족을 통한 무관세 수출	180
이탈리아	우리 지상사의 연금 납부 면제상 애로 해소	182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조림허가 검토지원 애로 해결	184
인도네시아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	186
인도네시아	지역 정부의 준공 허가 지연 문제 해결	189
인도네시아	한국산 수입소주 과세가격 인하 지원	190
청두	사천휴비스 천연가스 공급량 확보 지원	192
칭다오	공장가동 금지 조치 철회	194
칭다오	과수농장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	195
카메룬	수입장비 통관 문제 해결	196
카메룬	카메룬 유령기업에 의한 교역사기 대응	198

케냐	한국직원의 케냐 근무를 위한 노동허가 취득 지원	200
콜롬비아	골든오일 석유 광구 탐사·생산(E&P)계약 조건 완화 지원	201
콜롬비아	현지 터널공사 입찰 부적격판정 철회 지원	202
콜롬비아	콜롬비아 지상사 차량 통행 제한 철폐 지원	204
콜롬비아	SK의 對콜롬비아 진출 지원	205
크로아티아	중소형 선박제조 업체 투자진출 지원	206
태국	지방도로 건설 관련 민원 지원	208
태국	항공기 말소 등록 지원	209
파라과이	금호타이어 대리점 자산보호 법정소송 지원	212
파라과이	(주)청보 파라과이 육가공 공장 설비반입 및 수출허가 취득기간 단축	214
파푸아뉴기니	한중발전소 사용연료 수입 관련 불리한 법제도 개정 애로 해결	216
페루	신강하이텍의 페루 수질정화사업 참여 지원 등	218
페루	오픈타이드의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19
페루	우리 자원업체(케드콤 및 골든오일) 광구 분양계약 낙찰 지원	220
페루	우리 수산업계 애로사항, 한-페루 FTA협상 의제 반영	222
페루	우리교민 운영 중고차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223
페루	공항운영 위탁 국제입찰 참여 지원	224
페루	한국석유공사의 페트로텍 인수 지원	225
페루	현대자동차의 리마시 버스노선 현대화 프로젝트 입찰 참여 지원	227
페루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정기 협의회 개최	228
페루	현지 석유가스 관련기관과 우리 에너지자원 업체 간 협조체제 구축	229
페루	까미세아 광구의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230
폴란드	우리 투자기업에대한 EU 펀드 보조금 지원 문제 해결	231
프랑스	우리 기업의 프랑스 조선회에 대한 투자 승인	233
필리핀	현지 밀수방지청의 교민 업체 업무방해 문제 해결	235
헝가리	삼성전자 및 한국타이어 노사분규 문제 해결 지원	237
헝가리	연간 초과근무시간 기준 완화	239
헝가리	삼성전자의 AEO 인증 획득 지원	241
호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와이웅 유연탄 개발 프로젝트 지원	242
EU	'S' 마크 미각인 타이어 재고 문제 해소	244

## III 미수금 해결 지원 사례

대만	K사의 장비납품 및 잔금지급지연 문제 해결	250
리비아	KT 미수금 문제 해결	252
모로코	의료기기 수출업체 수출대금 회수 지원	254
몽골	한국기업 신용장 미수금 패소사건	255
벨라루스	선박회사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	257
벨라루스	협력업체 간 미수금 분쟁 해결 지원	259
세네갈	대림산업 수출 대금 결제 지원	261
앙골라	A사 건설공사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	263
이탈리아	커미션 잔금 회수 지원	265
쿠웨이트	우리 건설기업의 현지 보증금 회수 지원	267

## IV 기타 지원 사례

과테말라	동포 기업인 납치사건 해결 지원	272
광저우	민사상 법률조언 제공	275
뉴욕	국내개발 전자공공조달 시스템 수출 지원	278
독일	한-독 워킹 홀리데이 공동성명 체결	280
라스팔마스	수산물 통관 지원을 위한 스페인 정부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	282
라스팔마스	재외국민보호 관련 지원	284
러시아	현대·기아 고급 승용차 시장개척 활동 지원	287
리비아	건설공사 보증문제 해결	289
말레이시아	대한상공회의소(KOCHAM) 설립 지원	291
미얀마	수출보험 한도 증액 지원	293
방글라데시	평강특장차 공공조달 시장 참가 지원	294
선양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은행 자금 대출 지원	296
스페인	LG 전자와 Telefonica사 간 전략적 제휴 지원	298
아랍에미리트	지재권 침해 문제 대응	299
아르헨티나	국제입찰 낙찰건 정상진행 지원	302
아르헨티나	신용조사 정보 제공을 통한 사기 계약 방지	303
에과도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	304

영국	국제유류오염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지원	305
오만	현지 진출 기업의 공기 연장 및 추가 공사 수주 지원	307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OFFTEC사의 한국 Tibet System사와의 거래 성사 주선	309
인도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311
일본	제주도산 돼지고기 등 수출 재개	314
카메룬	한국기업 수출 지원	316
콜롬비아	의료시장 개척활동 지원	318
쿠웨이트	대형 프로젝트 낙찰취소에 따른 우리건설 기업 피해 방지 지원	320
크로아티아	문화 공연장 냉방설비 발주 지원	322
크로아티아	외국인 투자관련법 개정 참여	324
크로아티아	통상·투자 확대 방안 포럼 개최	325
태국	A사의 “Bangkok Trade Zone 프로젝트” 참여 지원	327
투르크메니스탄	우리 기업의 아쉬하바드 국제 공항 역류 사건/해결 지원	328
페루	두산중공업 담수화 프로젝트 지원 및 입찰정보 제공 등	330
페루	우리 수산업계 및 페트로텍 광구 활동 보호를 위한 명예영사 임명	331
페루	SK에너지의 수출용 가스관련 부정적 여론에 대한 공동대응	332
페루	SK에너지의 에탄올 석유화학공장 건설사업 참여 지원	333
프랑크푸르트	삼성물산/현대로템의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 확장공사 입찰 참가 지원	334
피지	그린피스의 공해상 조업방해 관련 진실규명	337
후쿠오카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340
후쿠오카	구미-후쿠오카 산업교류전 개최 지원	342
후쿠오카	인삼 홍보 페스티벌을 겸한 국경일 리셉션 개최	344
EU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 발효	346





# I

## 통상마찰 해결 및 지원 사례

## 러시아

### 평판압연강재 반덤핑 조사대응 및 종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1.31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한국기업 4개사(동부, 세아, 유니온,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수입되는 평판압연강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해당 우리 업체 및 우리 정부에 통보
- 2008.3.21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 2009.10.16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덤핑혐의는 있으나 러시아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기로 최종 결정
  - ※ 러시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수입규제업무가 경제개발통상부에서 산업통상부로 이관(경제개발통상부는 경제개발부로, 산업에너지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 에너지부는 신설)

#### ○ 관련 내용

2008년 반덤핑 조사 당시, 한국산 평판압연강재의 對러시아 수출량은 2007년 기준 24천톤(26백만 달러), 러시아에서 한국산의 수입비중은 2006년까지는 3% 미만이었으나 2007년 4% 이상으로 증가(당시 동 품목의 반덤핑 조사 피제소국은 한국, 중국, 벨기에, 핀란드, 카자흐스탄)

#### 2. 공판 조치 사항

- 2008.3.3 주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에 우리나라 제품의 연도별 정확한 수입량 통계자료 요구 및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제외 요청
  -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우리 기업의 의견 전달
- 2008.3.21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 반덤핑 조사개시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고 우리 기업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건의

- **2008.4.4**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에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 관련 우리측 입장 전달
  -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러시아 전체 수입물량의 4.8% (2007년)로 러시아 산업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임.
  - 동 품목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음.
  - 철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8.5.15**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 일시와 제소장 사본을 대사관에 송부
- **2008.7.7**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공청회를 무기 연기함을 통보
- **2008.11.27** 러시아 산업통상부에서 개최한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정부 입장 발표
  -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량이 4% 정도로 미미하여 러시아 경제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며, 수출가격도 정상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되지 않아 덤핑혐의가 없음.
  - 양국 간 경제협력증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반덤핑 조사결과를 기대함.
- **2009.3.4** 주러시아대사는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을 면담하여 반덤핑 관련 우리정부 입장 전달
  -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량은 소량이므로 러시아 경제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며, 수출가격도 정상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은 덤핑혐의가 없음.
- **2009.3.12**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반덤핑 관련 현지조사 계획 통보
  - 현지조사 일시 : 2009.3.30~31일(2일간)
- **2009.3.18**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반덤핑 관련 현지조사 계획에 대해 협의
  - 현지조사 인력의 인적 사항 및 요청자료 목록 요청

- **2009.4.1**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반덤핑 조사기간을 2009.6.21일까지 연장 통보
- **2009.7.31**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반덤핑 조사기간을 2009.9.21일까지 연장 통보
- **2009.8.26**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반덤핑 관련 조사경위 발표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 반영 촉구
  - 반덤핑 조사결과 산출 시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자료를 고려하여 줄 것과 발표 이후 대응을 위한 충분한 검토기간 요청
- **2009.8.26**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반덤핑 관련 조사경위 발표
  - 덤핑혐의는 있으나 러시아 경제에 피해가 없으므로 덤핑관세 부과는 없으며 조사를 종결하도록 러시아 정부에 건의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8.26**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반덤핑 관련 우리 제품이 덤핑혐의는 있으나 러시아 경제에 피해가 없으므로 덤핑관세 부과는 없으며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러시아 총리실에 건의
- **2009.10.16**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러시아 총리실이 산업통상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피조사기업들에게 불리한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기관과 다각도로 접촉하여 러시아의 진행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사항을 적시에 본부 및 관련기업에 전파하여 적극 대처토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덤핑관세부과등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게 됨.

# 말레이시아

## 철강제품 수입 관련 말레이시아 강제품질인증제 개선 지원

### 1. 사례 개요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2009.6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강제적 품질인증제 실시(2009.8.1 시행)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강제품 수입 관련 제도’ 변경계획을 발표

※ 동 강제품질인증(Mandatory Standard) 제도 : 저급·불량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다수 철강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및 관세청이 통관전 품질검증을 의무화

-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철강수입 관련 업체들은 다수 제품에 대한 강제품질인증으로 인해 통관 지연, 과도한 검사비용 발생 및 품질검사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자의적 검사조치 등의 부작용 발생을 우려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제도시행 발표 이후 정확한 발표 내용 및 배경을 분석하여 관련 업체에 정보 제공
- 제도시행에 따른 우리업체들의 우려 사항을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와 접촉하여 공식 전달

### 3. 공관 조치 결과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공관 및 우리업체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 등을 감안, 동 제도의 시행을 2009.10.12일로 연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
- 2009.10.12일부로 시행된 말레이시아 강제품질인증 제도는 당초 발표 내용과 달리 강제검사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인터넷 검사신청을 허용하는 한편 검사 비용도 당초 발표 내용의 1/8수준으로 감액함.

#### 4. 시사점 및 참고 사항

- 최근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 철강수입제품에 대한 강제품질인증 제도 실시 등 철강재 분야의 기술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들 국가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
- 금번 철강재 수입관련 강제품질인증 사례를 계기로, 양국 품질표준화 기관 간(말레이시아 : 통상산업부 및 SIRIM, 한국 : 기술표준원) 협력 MOU 체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등 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추진할 필요

## 몽골

### 수입맥주에 대한 특소세 차별 적용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몽골 국회는 2009.3.12일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몽골 국내에서 생산된 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특소세를 다시 차별적으로 부과(리터당 국내맥주 20센트, 수입맥주 35센트 부과)한다는 법 제정
  - ※ 동 특소세 문제와 관련하여 몽골국회는 2005.7.1일 국내맥주 20센트, 수입맥주 50센트의 특소세법을 제정
  - ※ 헌법재판소측은 동 법이 위헌임을 판결하고 이에 따라 2006.7.1일 맥주에 대한 특소세를 국내산과 수입산 차별 없이 20센트로 인하시킨바 있음.
- 2009.5.27 몽골 헌법재판소는 맥주에 대한 특소세 차별 적용은 위헌임을 재차 천명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몽골대사관은 상기 특소세 차별적용이 부당하며, 몽골 헌법에도 위배되는바, 몽골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내용의 공한을 몽골 외교부, 대통령실, 국회에 송부
- 한편, 주몽골대사관 담당관은 Amarsanaa 헌법재판관을 면담, 특소세 차별 적용이 위헌임을 국회에 상기시킬 것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몽골 헌법재판소는 2009.5.27일 재판관 전원 회의시 맥주에 대한 특소세의 국내외산 차별적용은 위헌이라는 2006년도 판결을 재확인함. 이에 따라 수입맥주에 대해서도 국내산 맥주와 동일하게 20센트 부과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국산 맥주(카스, 하이트)의 몽골 시장점유율은 1990년대 초에 70%였으나, 몽골 국내산 맥주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현재 약 20% 수준으로 저하됨.
- 상기 특소세 차별적용은 맥주회사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미국

### 피스톤 부품 상계관세 조사 대응 및 종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1.26 미국 Quaker City Castings사는 한국산 Ni-Resist Piston Inserts(디젤자동차용 엔진부품)이 전기세 감면, 단기수출금융, 수출입은행 저리융자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 세금감면 등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국에 30-40%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었다는 이유로 (주)인천금속과 수입업체(Federal Mogul)를 미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에 제소

※ 최근 5년간 對미 수출실적(천 달러) : (2004) 1,595 → (2005) 15,311 → (2006) 20,541 → (2007) 21,901 → (2008) 8,628

- 2009.2.18 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조사개시 결정
- 2009.3.11 미국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
- 2009.6.29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 미소마진(de minimus)
- 2009.9.15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판정, 미소마진(de minimus)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26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QCC사의 제소장 제출과 함께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외교통상부 및 무역협회, 인천금속 등에 통보
- 2009.2.10 미국 상무부를 대상으로 양국 정부 간 양자협약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 정부 간 양자협약 실시
  -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담당심의관,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조사개시가 부당함을 설득
- 2009.2.13 수입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 면담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측 입장을 전달

- 2009.2~6월 상무부 질의서 입수 및 통보, 답변서 제출 등 상무부 조사 대응을 지원
  - 상무부 조사담당관과 협력체제를 구축, 우리측 조사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외교통상부 및 관련 업체 제공
- 2009.3.11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미측에 동 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적극 설득
- 2009.4.18 미 무역위원회 위원장 면담 계기를 활용하여,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우리측 입장을 설명
- 2009.7~9월 미 상무부의 한국 정부 및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일정 협의 등 최종판정을 위한 절차에 적극 대응 지원
  - 상무부 조사담당관을 수시 접촉하여 관련 조사에 적극 협력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6.29 미 상무부는 (주)인천금속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미소마진으로 결정
- 2009.9.21 미 상무부는 최종판정 결과도 예비판정과 동일하게 미소마진 판정하여 조사 종결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미국 업체의 상계관세 제소에 대응하여 외교통상부, 대사관, 피소기업 및 수입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미 상무부 조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사를 종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 수입규제 조사 대응은 대사관과 연방정부 조사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외교통상부와 피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 미 상무부 조사담당관은 한국 정부 및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차질없는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국기업에 혜택이 있었다고 언급

## 브라질

### 무역업체 통관 애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9.6월 경성무역 등 3개 무역업체는 헤어브러쉬(HS 960329)를 브라질에 정기적으로 수출해 왔으나, 브라질 세관에서 과다한 통관서류를 요구하는 한편, 통관을 거부하기 시작함에 따라, 창고 비용과 재고 누적 등으로 막대한 손실에 직면
  - 브라질 거래선인 교포 무역업체 Belliz사도 브라질내 유통업체들과의 납기 불이행으로 위약금 부담
  - 동 건은 브라질 정부가 제품별로 비공식적으로 정해 놓은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는 제품을 “Under-valued”로 보고,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세관 관행과 관련된 사안
  - 특히, 동 건은 브라질 관세 당국이 저가(低價)의 원인을 원산지 세탁과 결부시킴에 따라, 문제가 복잡해진 사례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8.4 주브라질대사관은 브라질 정부에 대사관의 공식문서를 발송하여,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사유를 조사”해 주도록 협조 요청
- 2009.8.5 ‘한-브라질산업협력위’ 제1차 회의(2009.9.17일)의 의제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측 의제(안)에 “Hair Brush”를 포함
  - 회의 개최 이전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실제 회의 때에는 의제에서 제외됨.
- 2009.9.23 통관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Belliz사와 함께, MDIC 무역차관보 일행(무역국장, 무역구제국장 등)을 면담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9.11 통관 창고에 계류되어 있던 제품에 대해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어 애로 사항을 해결
  - 이후 신규 선적분에 대해서도 사전 수입허가 조치가 이루어짐.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브라질 관계 공무원들을 다방면으로 설득함으로써,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오해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었음.
- 민·관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조해 나감에 따라, 전략적·단계적 대응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음.

## 선양

### 아산부동산개발유한공사 토지사용증 취득문제 지원

#### 1. 사례 개요

- 아주그룹이 투자한 아산(선양)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亞洲城’ 건설과 관련하여 상응하는 토지구입비 및 세금을 전액 기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증 및 분양허가증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구정부로부터 선분양 후허가증발급을 구두로 약속받고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토지사용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 모든 공정이 불법으로 간주됨.
- 수차례 정부관련 기관으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침해 민원제기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기회사의 대표는 공관을 방문하여 총영사, 경제담당영사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선양총영사관은 선양시정부 및 성대외경제무역청으로 관련 내용 설명과 함께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총영사는 선양시 Zeng Wei 서기 및 시대외경제무역국 국장과의 접견을 통해 상기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관할구정부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침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한 후 토지증과 분양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아산부동산개발유한공사의 현지 합작 파트너인 愛凱부동산유한공사를 통해 주변 주민들 대표와 일조권침해에 대한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현재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공관관계자와 기업관계자가 합동으로 상기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고 현지 정부기관의 의견을 수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Win-Win 실현을 유도



## 선양

### 요녕성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과다 규제 해소

#### 1. 사례 개요

- 주선양총영사는 선양에 진출한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요녕성의 관련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 미흡 및 일방적 통지로 인하여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청취
- 요녕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선양총영사는 선양시위 Zeng Wei 서기 면담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상기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주선양총영사관과 선양한인(상)회 기업분과위원회가 협조하여 중국정부의 우리진출기업 부당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유형별, 사례별로 수집·정리 예정

#### 3. 공관 조치 결과

- 선양시위 Zeng Wei 서기는 총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정책 실시 이전 충분한 홍보와 단계적인 제재 절차를 실시하여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북3성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과도한 규제 근절 및 중국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우리나라 각 기업이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

## 선양

### 우리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6.7월 우리 업체 A사는 한국에서 주최한 요녕성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선양시 운석산삼림공원에 투자를 결정
- 2006.8월 외상기업투자기업지준증서와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득하여 골프장 영업을 시작
- 2006.10월 요녕성국토자원청은 18 코스중 두 코스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속절차가 위법이라는 사유로 벌금을 부과하고 두 코스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
- A회사의 대표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총영사, 경제담당영사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선양총영사관은 면담 시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하여 공관 자문변호사에게 자료검토를 요청
- 총영사관 경제담당영사는 자문변호사, 회사대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가 되는 토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

#### 3. 공관 조치 결과

- 경제담당영사는 자문변호사, 회사대표와의 면담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 회사가 관할구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토록 건의
- 해당토지의 소유권이 있는 촌대표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법적인 소송이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건의

- 회사대표는 공관 및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 관할구 정부의 요구 사항에 대응할 계획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공관은 지속적으로 동 건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중국정부와 협조를 해 나갈 계획
- 자문변호사 법률 상담 제도를 통해 현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인들에게 관련 법률의 이해를 돕고, 중국 법령 준수가 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됨.
- 또한, 한-중 간 투자확대를 위해 문제발생시 법적인 소송보다는 대화로써 문제해결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 공관과 기업이 의견을 같이 함.

### 1. 사례 개요

- 선양한라레미콘유한공사는 2001년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활동을 해 왔으나 국유토지사용증 미취득으로 인해 정상 경영활동에 불편함을 겪어오던 중 주선양총영사 및 총영사관경제담당영사와의 면담 시 주선양총영사관의 지원을 요청함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선양총영사는 선양시 부시장 주최 만찬시 문제 제기 및 해결 협조 요청
- 국회통외통위 박진위원장 일행의 선양 서기 면담 시 문제해결 협조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주선양총영사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및 협조요청에 따라 선양시 정부는 부시장등 시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레미콘의 국유토지사용증 취득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
- 동릉구(한라레미콘 관할구)는 한라레미콘측에 해당 토지에 대한 '국유토지사용증'의 발급을 결정
- 국유토지사용증 발급후 3개월이내 한라레미콘에 2003, 2009년 기 납부한 토지양도금의 합산액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토지양도금의 차액 반납을 결정
- 한라레미콘은 공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에 힘입어 상기 결정사항에 대해 문서로 전달받았음을 통보하고 사의를 표명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라레미콘은 직원들의 복지와 사회복지(사회환원사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소재지 정부에서도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기업과 공관, 선양시정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즉각적인 조치로 문제해결을 한 사례
- 현지 한국투자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하여 정부 및 시민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선양거주 한국인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헌을 하고 있음.

## 에콰도르

###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해결을 위한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1월** 에콰도르 정부는 2009.1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627개 수입품목(주로 자동차, 섬유류, 전자, 과자, 주류, 향수, PC부품, 스포츠 의류 등)에 대한 특별관세 및 쿼터제 등을 적용하는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
- 우리나라의 對에콰도르 수출의 주력상품인 자동차, 섬유 및 가전제품 등이 특별관세 및 쿼터제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19** 주에콰도르대사는 에콰도르 Eduardo Egas 외교부 통상차관을 오찬에 초청, 에콰도르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의 경위 청취 및 한-에콰도르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 **2009.1.21** 주에콰도르대사관 경제담당자는 에콰도르 국가품질관리위원회, 에콰도르 인증원, 에콰도르 표준원(INEN)을 수시로 방문, 개정된 수입허가 절차 등의 상세 정보를 입수하여 본부에 보고
- **2009.1.27**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에콰도르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한인사회 및 우리나라 지·상사에 전파
- **2009.2.9** 에콰도르 한인상공인대표 및 지·상사(LG전자, 삼성전자, 대우일렉 등) 관계자를 대사관에 초청, 에콰도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설명 및 향후 대응책 협의
- **2009.5.4** 에콰도르 산업경제부 관계자 면담, 우리나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의 서한에 대한 답신 요청 및 접수

- 2009.6.23 주에콰도르대사관 경제담당자는 에콰도르 외교부 Ivonne Garces 경제통상 차관보를 면담, 세이프가드 조치의 변경 및 조기 철폐 가능성 문의
  - Ivonne Garces 차관보는 조만간 쿼터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답변
- 2009.6.30 에콰도르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개정(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쿼터제 적용폐지)에 대한 내용 분석 및 본부 보고
  - 그동안 쿼터제로 수입량 제한을 받아왔던 우리 상품(자동차, 가전 제품)의 쿼터제 폐지로 인한 영향 분석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에콰도르 지·상사 관계자와 접촉하여 에콰도르 정부의 쿼터제 폐지 내용 설명 및 향후 대책 협의

### 3. 공관 조치 결과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에콰도르 관련기관(국가품질관리위원회, 인증원(OAE), 표준원(INEN)) 관계자 접촉을 통하여 에콰도르 세이프가드 조치의 정확한 내용 파악, 우리상품의 對에콰도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한인상공인대표 및 지·상사 관계자 초청, 동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설명 및 향후 대응책 협의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에콰도르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한인 사회 및 지·상사 홍보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에콰도르 주요인사 면담 시 조속한 세이프가드 조치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청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에콰도르 세이프가드 조치 철폐를 요청하는 한편, 에콰도르 정부에 2009.4월 고양 국제꽃박람회, 2009.5월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 등에 참석하여 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인 농산물 및 식품류의 對한국 수출확대의 계기로 삼아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 에콰도르

### 한국타이어 에콰도르 수출 애로사항 해결

#### 1. 사례 개요

- 2009.10.16 콜롬비아 주재 한국타이어 지사장은 대사관 경제통상 담당자에게 전화로 에콰도르 한국타이어 수입업체인 Hi-Performance사 및 Servirueda사가 에콰도르 수입허가기관인 에콰도르 표준원(INEN)으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어 對에콰도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
  - Hi-Performance사(4백만 달러 수입) 및 Servirueda사(2백만 달러 수입)
- 에콰도르 정부는 2009.1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627개 수입품목에 대한 특별관세 및 쿼터제 등으로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복잡한 수입절차 및 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2. 공판 조치 사항

- 2009.10.19 주에콰도르대사관은 한국타이어 수입업체 2개사의 책임자와 수입허가증 발급 지연의 경위 및 애로사항 청취
- 2009.10.20 주에콰도르대사관 경제담당자는 에콰도르 표준원(INEN)의 Enrique Troya 국장 및 Edwin Pineiros 과장과 면담을 갖고 해당 2개사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사유를 청취하고 동 허가증이 조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Troya 국장은 에콰도르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수입허가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측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대사관은 한-에콰도르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허가증을 조속히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

- Pineiros 과장은 타이어 제조일자, 타이어 테스트시 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의 상세한 추가 자료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사관 담당자는 한국타이어사에서 동 보완자료에 대한 확인 서한으로 모든 미비 자료를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Troya 및 Pineiros 과장이 이를 수락

- 2009.10.21 주에콰도르대사관은 한국타이어 현지 수입업체 및 콜롬비아 주재 운영주 지사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히 한국타이어사의 서한을 작성하여 대사관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
- 2009.10.28 주에콰도르대사관은 한국타이어사로부터 서한을 접수받아 에콰도르 표준원(INEN)에 제출
- 2009.10.29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에콰도르 표준원의 Mr. Troya 국장 및 Mr. Pineiros 과장 초청 만찬 개최하여 적극적 지원협조에 사의 표명
- 2009.10.30 Hi-Performance사, 표준원(INEN)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음.
- 2009.11.11 Servirueda사, 표준원(INEN)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음.

### 3. 공관 조치 결과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에콰도르 표준원(INEN)이 엄격한 제출서류 요청 및 복잡한 절차, 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등으로 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시로 표준원(INEN) 관계자 접촉 및 우리 상품 수입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통하여 한국타이어 에콰도르 수출을 위한 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금번 주에콰도르대사관의 한국타이어 에콰도르 수출 지원활동으로 수입허가증 발급 지연의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표준원(INEN) 주요인사들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이들로부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신속한 수입허가증 발급 등을 약속받음으로써 향후의 여타 우리 상품의 對에콰도르 수출 시에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엘살바도르

### 자동차 폐배터리 수출 허가 지원

#### 1. 사례 개요

- 자동차 폐배터리를 재처리하여 납을 생산하는 상신금속(경기도 안산 소재)의 원자재 공급대행사인 Global Resource사(터키 이스탄불 소재)는 엘살바도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폐배터리 수입을 추진
- 폐배터리는 바젤협약에 의거, 양국 정부 간에 허가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엘살바도르 환경부측의 공문에 대해 우리나라 담당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측은 승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엘살바도르 환경부측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바젤협약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승인을 거부하는 등 허가 절차가 10개월 이상 지연
  - 또한 바젤협약에 의거한 폐배터리 수출허가절차를 처음 진행해 보는 엘살바도르 환경청부측은 바젤협약상의 통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통상적으로 핵방사선 오염물질·화학무기·독극물 등의 운반에만 요구되는 환적항의 환적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
- 공관은 바젤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인 밀매를 행하는 제3국 원자재 구매상에 대한 엘살바도르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바젤협약 등 절차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
  - 국제협약 및 엘살바도르 법규를 준수하는 우리 업체는 물량 확보나 선적 지연 등의 어려움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으나, 밀거래를 하는 제3국 업체의 경우 아무런 통제나 단속없이 엘살바도르에서 반출되는 대부분의 원자재 물량을 확보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3.18 주엘살바도르대사는 엘살바도르 환경부장관에게 외교서한을 발송, 한강유역환경청이 우리 환경부 산하 승인업무 담당기관임을 확인하고, 양국 간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 또한, 환경부 담당 국장을 지속 접촉, 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 2009.9.17 엘살바도르 환경부 차관과 Global Resources사 간의 면담을 주선하고 면담 시 주엘살바도르대사관 관계자도 동석, 불법적인 밀매를 행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우리 업체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절차 진행 등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8월 엘살바도르 환경청의 수출허가에 따른 자동차 폐배터리 수출 개시
- 2009.9.17 엘살바도르 환경부 차관은 불법 밀매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규제를 준수하는 우리 업체에 대한 신속 허가 절차 진행을 약속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상신금속의 폐배터리 수입은 중남미의 리사이클링 원자재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이를 위한 현지 직접 투자로 연계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초기 수출허가 과정에서 엘살바도르 정부의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절차가 크게 지연된 바, 양국 정부 간 허가절차를 요하는 폐기물 수출입의 경우 공관과 기업의 협조가 긴요
- 바젤협약 가입국이나 바젤협약상의 규정을 집행해 본 경험이 없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바젤협약 준수를 위한 국내절차를 정립하고,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밀거래를 행하는 제3국업체의 행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된 바, 향후에는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우리 업체의 관련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인도

###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대응 및 동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12.8 인도상공부 반덤핑총국(DGAD), 대사관에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공, 사우디,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 제품(Hot Rolled Steel Products)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를 통지
- 2009.4.25 인도 진출 포스코, SK네트웍, 삼성물산, LG상사 등 주요 철강 수출업체 간 모임을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6.23 우리 외교통상부장은 인도방문시, 인도 상공장관에게 철강제품 수입규제 자제 요청
- 2009.7.7 외교통상부수입규제대책반장은 인도 방문 시, 반덤핑총국장 면담 시 철강제품 반덤핑조사 종결요청
- 2009.8.7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 상공장관 방한 면담 시 철강제품 반덤핑조사 종결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8.11 DGAD는 인도 제조업체의 조사신청 철회를 명분으로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종결 조치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對인도 주요 수출품인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응해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한 설득이 주효했던 사례

※ 우리나라의 對인도 열연제품 수출통계

	2006	2007	2008
금액(백만 달러)	214	339	425

## 인도

### 탄산칼륨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대응

#### 1. 사례 개요

- 2008.5.29 인도상공부 반덤핑총국(DGAD)은 대사관에 한국, 중국, EU,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을 개시했다고 통지
- 2009.4.22~24 DGAD는 우리업체 Unid, OCI사 현지실사를 위해 방한
- 2009.5.14 DGAD는 조사결과서를 공개
  - ※ Unid의 반덤핑 마진을 6.93%로 명시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18 우리 외교통상부는 DGAD의 조사결과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DGAD에 전달토록 긴급 지시
  - ※ 우리정부 주요 지적사항
    - －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 수출자의 회계자료 불인정
    - － 덤핑마진 산정방식에 대한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설명
    - － 덤핑마진 산정시 계산상 오류
- 2009.5.18 주인도대사관은 DGAD 담당자를 면담하여 우리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조사결과가 부당함을 설득
  - ※ DGAD 담당관은 우리측 문제제기 사항을 최종판정에 앞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5.20 DGAD는 탄산칼륨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 Unid의 덤핑마진을 당초 6.93%에서 4.4%로 하향조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반덤핑 조사 대응에 있어 철저한 자료분석과 적극적인 설득, 대응으로 산업피해를 최소화 한 사례

※ 우리나라의 對인도 탄산칼륨 수출통계

	2006	2007	2008
금액(만 달러)	747	713	1,099

## 일본

###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완전 철폐

#### 1. 사례 개요

- 일본은 2006.1.27일부터 하이닉스 DRAM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온 바, 2007.12.17일 한-일 간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2008.9.1일부터 상계 관세 일부(18.1%)를 철폐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상계관세 일부 철폐로는 WTO판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08.9.23일 WTO 판정 이행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행패널을 설치하고, 주일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일본측에 판정의 완전한 이행을 지속 요구

#### 2. 공판 조치 사항

- 2009.1.9 주일본대사관측은 사정변경재심 현지결과 보고서를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고
- 2009.2.3 대사관측은 사정변경재심 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실 공표 내용 및 WTO 이행 패널 설치 제의 내용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고
- 2009.2.4 대사관은 외무성 관계자를 접촉, 일측의 상황변화재심 관련 입장 파악
- 2009.2.10 주일본대사는 경산성대신 면담 계기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일측의 상계 관세 조기 철폐 촉구
- 2009.2.16 대사관은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일본측의 상계 관세 조기 철폐 의사를 문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
- 2009.3.19 대사관은 외무성 관계자를 접촉, 하이닉스 상계관세의 조속 철폐 관련 협의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3.3 일본정부는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 관세의 조기 철폐 의사를 문서로 통보(우리측 요청 수용)
- 2009.4.13 일본 재무성 산하 관세외국환심의회에서 상계관세(9.1%) 철폐 결정
- 2009.4.17 일본 각의에서 동 철폐 결정 통과
- 2009.4.22 정령 공포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정부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2008.10.1) 등 외교 당국 간 회의 계기 하이닉스 상계관세 완전 철폐의 당위성을 지속 제기하며, 일측의 조속한 조치 촉구
- 우리 기업(하이닉스)과 정부와의 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일본 정부 당국자 접촉 시 일관되고 통일된 우리 입장 전달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

## 캐나다

### 스테인레스강선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철폐

#### 1. 사례 개요

- 캐나다 정부는 2004년 이후 한국산 스테인레스 강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옴.
- 2009년 동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의 시한종료를 앞두고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진행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캐나다대사관은 종료재심을 진행 중인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 외교통상부 본부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내용 설명
  -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standstill 원칙 적용 촉구
  - 한국산 스테인레스 강선의 수입량은 미소물량으로서 캐나다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연장은 부당
  - 원자재로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관세 철폐는 캐나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됨.

#### 3. 공관 조치 결과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종료재심에서 한국산(스위스산 등 포함) 스테인레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되어도 캐나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 판정하고 반덤핑관세를 철폐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캐나다대사관과 협의 시 캐나다측은 의견제출 시한 종료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 기업들도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대응조치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캐나다측의 판정이유서 등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시의성(경제위기 이후의 국제사회 규범논의 반영 등) 및 전문성(미소물량 제시 등)을 갖춘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폐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관찰됨.

## 콜롬비아

### 의료기기 통관 지원

#### 1. 사례 개요

- 콜롬비아 진출 세라젼사는 2009.6월 정상 절차에 의거하여 통관수속을 하였으나, 세관당국의 비협조로 통관이 지연됨에 따라 공관의 도움을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콜롬비아대사관은 평소 긴밀한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콜롬비아 당국과 긴급 접촉하여 협조를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조사 후 당일 통관조치 됨.

## 페루

### 우리선박 “Sea World 101호” 임금체불 및 부채관련 출항금지 조치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우리선박 ‘Sea World 101호’가 페루 Callao 항구에 조업활동차 2008.6월 입항하였으나, 2008.10월 페루 생산부에서 입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루 항만청이 출항금지 조치를 취함.
- 동 선박은 페루 Peruko Maritima社에 총 80,000달러(항만 사용료 50,000달러, 어획물 하역비용 30,000달러)의 부채가 있는 상태로 상기 조치를 당하게 되자 주페루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함.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14 주페루대사관은 동 선박 소속사인 SEA WORLD CORPORATION社 및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임금체불 관계, 부채 관련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고
- Peruko Maritima社가 우리 선적 소속 선원들에게 숙식제공 등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사관은 동 선원들을 별도 장소에서 기거하게 하여 숙식 등을 제공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2월 Peruko Maritima社는 Callao항구의 안전을 위하여 동 선박을 폐선 묘박지로 이동 조치하고 동 선박에 대해, 페루 법원에 공매 신청
- 2009.2월 우리 선박 SEA WORLD 101호 선원 전원 귀국 조치

## 페루

### 한국수출입은행이 페루에 제공한 전대차관관련 협의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11월** APEC정상회담 계기, 한국수출입은행과 페루 BCP (Banco de Credito del Peru) 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50백만 달러 규모의 전대차관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페루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금리 및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
- **2009.1월** 한국수출입은행의 담당자는 페루 재정경제부에 동 차관의 성격 등을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응이 없어 주페루 대사관에 협조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월** 한국수출입은행은 페루 재정경제부와 접촉, 동 차관의 성격 규명 등 페루측과의 협의 진행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2월** 주페루대사관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페루 BCP 간 체결된 MOU 합의 내용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동 차관의 성격 등을 문의하는 서한 발송 등 조치
- **2009.8월** 대사관은 Carranza 재정경제부장관을 접촉, 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7년, 2008년** 일부 EU 회원국 세관이 우리업체가 수출한 DMB 폰, GPS폰 등 다기능 휴대폰을 무관세 품목인 휴대폰이 아니라 TV(14%), GPS(3.7%)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
- **2008.9월**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의 EU 집행위 관세총국 통상국장 면담 및 2009.2.9일 한-EU 공동위 등을 통해 EU 집행위에 동 문제를 정식 제기한 이후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EU 집행위 조세관세담당 집행위원 등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EU 집행위 최고위층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주EU대표부는 DigitalEurope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수립하여 EU 집행위 동향을 파악하고, EU 집행위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한 결과, EU 집행위는 2009.8월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품목분류 규정 및 해설서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동 문제가 해결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11월** 주EU대표부는 WCO 관세및무역국장을 면담하여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문제에 대한 WCO 차원에서의 제기 방안 등 파악
- **2008.11월** 대표부는 우리 기업이 EU 집행위 관세총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제된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고 시연할 수 있도록 주선
- **2008.12월** 대표부는 EU 집행위 관세총국 담당자를 접촉하여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EU 집행위의 논의 동향 을 파악
- **2009.2월** 대표부는 EU 집행위 관세총국 관세국장을 면담하여 다기능 휴대폰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이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되도록 요청

- 2009.3.4 대표부는 DigitalEurope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여 EU 집행위의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기준 마련 관련 EU 업계와의 협의 동향 및 EU 업계의 입장을 파악
- 2009.3.20 대표부는 EU 집행위 관세총국 담당자를 면담하여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기준 관련 EU 집행위내 논의 동향을 파악 보고
- 2009.4.15 대표부는 DigitalEurope 관계자를 면담하여 EU 집행위 내 논의 동향 및 EU 회원국 입장 파악
- 2009.4.27 대표부는 EU 집행위 관세총국 관계자를 접촉하여 EU 관세규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파악
- 2009.5.4 대표부는 EU 집행위 관세총국 관계자, EU 업계관계자, 벨기에 주재 대표부 관계자 등을 접촉하여 4월 EU 관세규정위원회 논의 내용과 향후 동 문제 추진 방향을 파악
- 2009.5.28 대표부는 EU 관세규정위원회 회의록 입수
- 2009.6.11 대표부는 DigitalEurope 고위관계자를 접촉하여 4월 관세규정위원회 이후 EU 집행위와 업계간의 논의 내용
- 2009.7.6 대표부는 DigitalEurope 고위관계자를 면담하여 7월 관세규정위원회 논의 결과 파악
- 2009.7.7 대표부는 EU 집행위 관계자를 접촉하여 7월 관세규정위원회 논의한결과, 새로운 규정 및 해설서가 채택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발효시기 등을 파악
- 2009.8.7 대표부는 EU 집행위 관계자를 접촉하여 새로운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 및 해설서가 관보에 게재되었음을 파악 (해설서는 관보게재 즉시 발효)
- 2009.8.26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 발효

### 3. 공관 조치 결과

- EU 집행위가 부가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기능 휴대폰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휴대폰으로 분류한다는 규정 및 해설서를 최종 채택함으로써 우리 기업은 다기능 휴대폰을 EU에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EU는 공동관세정책을 펴고 있으나 관세행정의 집행은 27개 개별회원국 세관당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수입시 관세부과를 위한 품목분류도 각 회원국 세관에서 결정되고, 각 회원국 세관이 발행한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는 여타 회원국을 구속하기 때문에 최초 수입 시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품목분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EU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품목분류 결정이 일치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EU 집행위의 직권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제를 EU 관세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고, EU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EU 집행위를 대상으로 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
- EU는 특정 사안에 대해 회원국별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회원국이 있는 반면, 이에 무관한 회원국이 병존하는 바,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회원국과 공조하는 한편, 유럽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동 건 해결에 주요
- 또한, EU 집행위의 EU 관세규정위원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기술적 제원, 특성 및 특징 등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설명한 것이 동 사안 해결에 효과가 있었음.

## 1. 사례 개요

- 2008.2월 유럽철강협회(EUROFER), EU 집행위에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 2008.11월 EU 집행위, 우리 기업 수출 제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2009.3.4 유럽철강협회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철회
- 2009.4.17 EU 집행위,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 2. 공판 조치 사항

- 2007.11.29 주EU대표부는 법률회사를 통해 입수한 유럽철강협회의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동향 및 EU 집행위 검토 동향 파악
- 2007.12.8 법률회사 등을 통해 입수한 유럽철강협회의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동향 및 EU 집행위 검토 동향 파악
- 2007.12.19 EU 집행위 관계자를 접촉, 유럽철강협회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집행위 입장 파악
- 2008.1.8 유럽철강협회의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 접수 사실 입수
- 2008.1.23 EU 집행위의 스테인레스 냉연강 반덤핑 조사 개시 제소장 접수 공식 통보 사실 파악
- 2008.2.1 EU 집행위의 스테인레스 냉연강 반덤핑 조사 개시 통보 사실 파악

- 2008.2.14 EU 집행위 조사팀장을 접촉하여 우리 업체에 대한 샘플링 조사 여부 및 우리 각 기업의 개별 조사 희망 의사 전달
- 2008.2.14 한-EU 민관 철강협의회를 통한 우리측 입장 전달 지원
- 2008.2.18 EU 집행위 고위관계자를 접촉하여 스테인레스 냉연강 반덤핑 조사 관련 우리측 입장 및 우리 기업의 개별 조사 희망 의사 전달
- 2008.3.25 EU 집행위 조사과장을 면담하여 우리 입장에 대한 EU 집행위 반응 및 향후 조사 일정을 파악
- 2008.4.14 EU 집행위 조사과장을 면담, EU측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 2008.4.24 EU 집행위 무역구제국장을 면담하여 우리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EU측 조사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2008.5.15 지역통상국장의 EU 집행위 무역구제국장 면담 주선
- 2008.7.25 EU 집행위 주최 우리 기업에 대한 청문회 참석하여 EU 집행위 조사 동향 및 향후 일정을 파악
- 2008.9.5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조사3과장을 면담하여 EU 집행위의 잠정관세 부과관련 동향 및 향후 조사 절차 파악
- 2008.11.5 EU 집행위의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잠정관세 미부과 결정
- 2008.11.10 EU 집행위의 잠정관세 미부과 결정 이후 추가 조사에 대비, 우리업계 관계자들과 대응전략을 협의
- 2009.1.16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의 EU 집행위 무역구제국장 면담 주선

- 2009.2.17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조사과장을 면담하여 EU 집행위의 스테인레스 냉연강 반덤핑 조사 최종보고서의 발표시기 및 동 내용 등 파악
- 2009.2.18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조사4과장을 면담하여 EU 집행위의 동 조사 동향 파악
- 2009.3.3 EU 통상담당집행위원 수입규제담당 보좌관을 면담하여 제 소업체 주장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동 건 심사 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2009.3.6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조사3과장을 면담하여 유럽철강협회의 반덤핑 제소 철회 관련 EU 집행위내 동향을 파악 보고하고, EU 집행위의 스테인레스 냉연강 반덤핑 조사 종료를 제안하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
- 2009.3.9 EU 집행위의 스테인레스 냉연강 반덤핑 조사 종료 제안과 관련, 특기 사항을 파악
- 2009.3.11 법률회사를 접촉하여 EU 집행위의 스테인레스 냉연강 반덤핑 조사 종료 제안상의 특기 사항에 관한 법적 의미를 파악
- 2009.3.26 EU 집행위 관계자, 법률회사 등을 접촉, 스테인레스 냉연강 반덤핑 조사 종료 제안에 대한 반덤핑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파악
- 2009.4.17 EU 집행위가 통보한 스테인레스 냉연강 반덤핑 조사 종료 결정 및 동 결정에서 적시한 향후 모니터링 및 향후 조사 재개에 대비한 우리 업계의 유의사항을 외교통상본부에 보고

### 3. 공관 조치 결과

- EU 집행위 조사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조사 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제소업체 주장에 대한 반박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동 조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EU 반덤핑 조사의 경우, 해당 기업이 EU 집행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는 한편, 제소업체의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박논리를 개발하여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긴요
-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반덤핑 조사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접촉, 우리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여, 조사시 우리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II

##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 가나

### 우리 건설업체의 가나 도로공사사업 인수 승인 지원

#### 1. 사례 개요

- A건설이 2007.5~2008.3월 기간 중 가나 3개 도로공사사업(1.18억달러 규모)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건설 본사가 2008년 중반부터 재무적 어려움을 겪다가 1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  
※ 본사의 자금 및 장비 지원 축소로 공사가 3~6개월 지연
- A건설은 2009.3월 초 가나의 3개 도로공사 사업권을 B건설에 매각하고 양 업체 간 협력시공 방식으로 동 공사를 진행기로 합의
- A건설은 2009.3월 동 도로공사의 발주처인 가나 도로부 산하 도심도로청, 고속도로청에 A-B 간 협력시공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 동 기관들은 A건설이 파산한 것으로 보고 동 요청의 승인을 거부하였으며, 공사대금 집행을 보류하여 A건설은 사업권 취소의 위기에 몰림.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3월 주가나대사관은 한국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A건설 기업정보 등 관련 법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법정관리가 파산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
- 2009.7월 주가나대사가 부통령 및 4개 부처 장관 초청 관저 만찬에서 주무 부처인 도로부장관에게 동건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4월 1개 공사(Techiman-Kintampo)에 대해 A-B 간 협력시공 승인

- 2009.8월 나머지 2개공사(Kumasi ring, Worawora-Dambai)에 대한 협력시공 승인 및 공사대금 지급 시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국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한 가나 발주처의 이해 부족, 다른 나라 경쟁기업의 견제 등에 따라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은 사례로서 공관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내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사업권 취소 위기를 극복

## 광저우

### 수출신용장 사고 관련 지원

#### 1. 사례 개요

- 우리 중계 무역업체 (주)대광에너지는 2008.2월 인도네시아산 석탄 21,677톤을 중국 광둥성 불산시 소재 “寶江설비유한회사”에 875,870.02달러에 수출
  - － 그러나 중국 광둥성 신사(新沙) 항구에서 보강에게 석탄 인수를 거부 당하였으며(거부 사유 미상), 아울러 중국은행(불산 지점)에 동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으로 수출 대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함.
- 대광은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832,076.51달러)을 지급 받았으며, 대신 양자 간 계약에 따라 석탄 선하증권(B/L)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양도
- 석탄이 신사 항구에 3개월간 방치됨으로 인해 신사 해관은 관련 규정 에 따라 석탄을 변매처분한 후, 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관
- 선하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국 수입업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석탄 변매 금액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
  - － 중국 해관법에 의하면 수하인은 수입업자이며, 중국 민사 및 상법에 의하면 수하인이 선하증권 원본 소지자로 해석되어 양자가 함께 변매 금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한국수출보험공사(상해지사)가 대광에너지에게 단기수출 보험금(832,076.51달러)을 지불한 대신 대광으로부터 양도받아 확보하고 있는 선하증권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전조 작업으로 하기 내용에 대해 파악하여 줄 것을 공관에 요청(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하기 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
  - 석탄을 선적한 배가 입항한 항구명
  - 관할 해관 명칭

- 해관이 석탄을 변매처분 했는지 여부
- 변매 대금 금액
- 필요 비용을 제하고 현재 남은 금액 등

## 2. 공관 조치 사항

- 해관에 문의하여 석탄을 선적한 배가 입항한 항구 및 관할 해관 파악(광둥성 東莞市 新沙港 및 新沙海關)
  - 2009.3.10 광둥성 東莞市 소재 신사해관에 공문을 발송,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요청한 상기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줄 것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신사해관은 2009.4.17일 주중국대사관 앞 공문을 통해 주중국대사관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옴.
  - 석탄 선적 선박명 및 신사항구 입항 일자 : 行雲號, 2008.2.13일
  - 석탄 분량 : 22,013.96톤
  - 석탄 인수 기한 : 2008.2.13~5.13일(입항일로부터 3개월 내)
  - 석탄 변매 처분 기간 : 2008.8.12~21일
  - 석탄 변매처분 사유 : 입항 후 3개월간 수입신고자 및 인수자가 없었음.
  - 변매 금액 : 인민폐 8,805,584위안
  - 변매금 일부 처리 : 운송, 하적 및 보관비, 수입 관세 등 4,228,635.93위안
  - 변매금 잔액 : 4,576,948.07위안
  - 향후 처리 예정 : 한국수출보험공사와 보강에너지유한공사가 함께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관에 공매대금 잔금 교부 신청
    - ※ 규정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잔금 교부기간은 석탄이 매각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교부신청이 없을 경우 잔금은 국고 귀속

- 주광저우총영사관은 해관의 통보 사실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알려 주고, 변매 대금 잔액 수령을 위해 수입업자와 협상하여 본 건을 해결토록 당부
- 변매금 잔액 인민폐 4백여만 원은 현재 신사해관이 국고에 넣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입업자 간 합의하에 청구가 가능하게 됨.
  -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입업자는 각각 330만 위안, 70만 위안씩 나누어 가지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국수출보험공사(상해지사)는 피보험자에게 수출보험금을 지급한 대가로 B/L을 양도받았지만 동 B/L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석탄 선적의 입항 항구, 석탄 변매가격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는 바, 공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주효함
  - 만약,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금년 3월 공관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변매금 신청 기한 시효(2009.8월)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변매금 지급 신청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인 바, 공관의 협조로 인해 新沙해관으로부터 변매금 일부(인민폐 330만 위안, 한화 약 5.6억 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 (참고 사항) 한편,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신용장을 발행하였으나 석탄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중국은행(서울지점)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2009년 상반기 중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직후 서울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는 바, 판결 결과는 2010년도에 나올 예정
  - 신사해관은 동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패소할 경우, 변매금 잔액을 지급할 예정으로 보임(수출보험공사가 승소할 경우 변매금 지급은 안할 것으로 예상).

## 나이지리아

### 한국가스공사 현지법인 설립 지원

#### 1. 사례 개요

- 한국가스공사는 2008.8월부터 스위스계 석유회사인 Addax 및 현지 회사인 Chrome과 함께 나이지리아 바엘사(Bayelsa)주에 연산 1천 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 LNG 생산기지과 함께 발전용량 1천MW의 발전소도 함께 계획
- 한국가스공사 및 파트너인 Addax는 2009.4.21일 나이지리아 국영석 유공사 사장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
-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는 2009.5월 나이지리아 기업등록위원회(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현지법인 설립을 신청
  - 기업등록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현지법인명칭(Korea Gas Nigeria Limited)을 문제삼아 신청접수를 거부
  - 한국가스공사는 국영기업으로서 국제적으로도 KOGAS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수를 재차 중용하였으나 Korea라는 국가명을 사용한 법인명을 접수할 수 없다고 재차 거부

#### 2. 공관 조치 사항

- 한국가스공사는 나이지리아 기업등록위원회가 법인설립 신청을 재차 거부하자 2009.6.2일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영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에 유일한 천연가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법인으로서 Korea Gas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함을 토로
-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는 나이지리아 기업등록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여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에 유일한 천연가스 관련 국영기업으로서 현지법인 명칭으로 “Korea G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나이지리아 기업등록위원회는 대사관의 의견을 토대로 한국가스공사의 현지법인 명칭으로 “Korea Gas Nigeria Ltd”를 승인하고 2009.6.9일 법인등록증명서를 발급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나이지리아에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국영기업과 초기단계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적시에 공관이 개입하여 외교적인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

## 나이지리아

### 한국석유공사 소송 지원

#### 1. 사례 개요

-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석유공사가 2005.8월 낙찰받은 심해광구 2개소(OPL 321/323)의 탐사권을 2009.1.9일 무효화한다고 통보
  - － 생산불분배계약(PSC) 체결당시 하류사업의 조속추진을 댓가로 할 인받은 서명보너스(231백만 달러)를 대금미납으로 간주하여 무효화
- 한국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고 법원에 무효화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2009.3.5일 제기

#### 2. 공판 조치 사항

-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한국가스공사의 청원서를 외교경로를 통해서 나이지리아 정부에 제출하고, 공판명의를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
  - － 청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직접 대통령실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청원서 제출
  - － 또한, 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을 조건으로 석유탐사권을 취득하는 동 사업이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른 것인 바 공판명의를 항의 서한을 정식으로 나이지리아 외교부에 발송
- 항의 의견 제시 이외에도, 사안의 조기해결을 압박하기 위하여 대사가 직접 나이지리아 주요인사를 면담하여 유감의 뜻을 전달
  - － 석유부 Rilwanu Lukman 장관(2009.5.15), Odein Ajumogobia 국무장관(2009.5.4), Edmund Daukoru 전 석유장관(2009.5.21) 등을 연쇄 접촉하여 탐사권 무효화에 대하여 항의하고 조기해결을 촉구
  - －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무효화 사유로 제기한 서명보너스 할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무효화의 부당성을 강조
- 이와 함께, 2009.3.12일 개최된 행정소송의 인정심리부터 이후 12차례의 공판에 공판원이 모두 참관하여 소송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진행경과에 따른 소송대책을 논의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8.20 행정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승소를 판결
  - 연방고등법원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광구탐사권 무효화 조치는 불법적인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한국석유공사의 탐사활동은 지장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 또한, 하류사업의 조속추진을 조건으로 서명보너스의 일부를 할인 받은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선고
- 나이지리아 정부는 1심의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2009.8.27일 나이지리아 상소법원에 즉각 항소하였으나, 한국석유공사가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나이지리아 정부의 일방적인 탐사권 무효화 통보에 대응하여 공판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과 함께 주요인사 접촉을 통한 다각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승소판결에 영향을 미침.
- 우리 국영기업과 공관의 입체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은 현안의 타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네덜란드

### 국산 휴대폰의 네덜란드 정부 전자파 기준 초과 사례 대응

#### 1. 사례 개요

- 네덜란드 시장에서 판매중인 S전자 휴대폰 일부 모델제품(C450)이 2008.12월 중 네덜란드 정부의 샘플검사 결과 인체 내 전자파 흡수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S전자는 구매자에게 이를 개별통보, 동 제품을 다른 모델제품으로 무상교체해 주는 한편, S사 스스로 동 사실을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문제를 일단락 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 산하기관인 Agentschap Telecom(AT) 측과 합의
- 그러나, AT측은 2009.1.16일 당초 합의와 달리, 이르면 2009.1.20일 중 전자파 기준 초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S사측에 통보
- S사측은 정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될 경우 네덜란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S사 브랜드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사관의 문제해결 지원을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19 주네덜란드대사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대리를 면담, S사측이 앞으로 네덜란드 규정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고, 우호적인 한-네덜란드 양국관계를 고려, 네덜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  
- 아태국장 대리는 우리측 입장을 이해하며, 관계당국(경제부)에 사실을 확인, 우리측 우려사항을 전달하겠다고 함.
- 2009.1.19 주네덜란드대사는 경제부 대외경제담당 부차관보를 면담, 양국 모두 무역을 경제의 중추로 삼고 있는 국가들로서 국제금융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덜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

- 동 부차관보는 외교부로부터 연락을 받아 동 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측 요청을 유념하겠다고 답함.

### 3. 공관 조치 결과

- 네덜란드 경제부는 2009.1.19일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우리측 입장을 고려, 별도의 보도자료를 발표치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해 옴.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네덜란드 관계당국은 S사측의 신속하고 성실한 후속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주요 대외무역 및 투자 파트너인 우리나라와 양자관계 등을 고려, 우리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네덜란드

###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 품목분류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8.8월 네덜란드 세관은 삼성전자의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에 대한 BTI를 발급, 동 제품에 대한 품목 세번을 제8443호(프린터와 그 부품 - 무관세)에서 제3707호(사진용 화학조제품 - 관세6%)로 변경 - HP, Cannon, Lexmark 등 경쟁사들의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세번인 제8443호(무관세)를 유지

※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 EU회원국 세관이 기업의 요청으로 발급하는 관세 품목분류 문서로서 발급일로부터 6년간 EU 내에서 구속력이 발휘

- 2008.9~10월 삼성전자 현지법인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세관 BTI팀을 수차례 면담, BTI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동 세관은 삼성전자의 이의를 기각하고 ‘BTI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2009.2월 최종 6% 관세 부과를 통보
- 2009.5월 삼성전자, 로테르담 세관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사 관계자들은 외교부의 협조를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9.10 주네덜란드대사는 네덜란드 외교부 아태국장을 면담, 삼성전자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에 대한 6% 관세 부과조치는 차별적임을 강조하면서 관계당국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
- 2009.9.11 및 9.23 주네덜란드대사는 네덜란드 경제부 부차관보를 두차례 면담, 조치의 부당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시정을 요청
  - 2009.10.1 경제부 부차관보는 주네덜란드 대사 앞 서한을 통해 네덜란드 관계당국과 협의 결과, 네덜란드 대법원 결정과 EU차원에서 통일된 결정 부재를 근거로 들면서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음.

- 2009.10.15 주네덜란드대사는 네덜란드 재무부의 국세·관세총국장을 면담 시, 동건 시정을 요청, 특히 삼성 토너 카트리지, 네덜란드 대법원 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Ricoh 제품 및 경쟁사인 HP 등의 토너카트리지 샘플을 제시하면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설득
  - － 국세·관세총국장은 동 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 또한 조만간 재무부 관세과장 및 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하는 실무 협의를 갖기로 결정
- 2009.10.22 주네덜란드대사관 담당관-네덜란드 재무부 관세과장 간 실무협의 개최(삼성관계자 및 로테르담 세관당국자 참석), BTI 철회하기로 합의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1.3 로테르담 세관당국자는 주네덜란드대사관 담당관 앞 서한을 통해 2009.10.22일 실무 협의한 내용을 관세총국장이 수용키로 하였으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부과한 BTI를 철회하겠다고 통보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삼성전자측이 약 1년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건이 비교적 단기간 내 종결된 배경은 △주네덜란드대사의 국세·관세총국장 면담을 통해 관세 최고책임자와 관계 과장들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점(특히 샘플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고위당국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게 된 것으로 평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관세분야에 경험이 많은 로테르담 명예영사(로테르담 항만 공사이사장)로부터 정확한 자문(동인은 해결방안으로 관세총국장의 면담을 권유)을 얻은 점 △대사관 실무자-삼성전자 현지법인 실무자 간 긴밀한 협력과 10.22일 실무 협의시 유연한 대응 △외교부 본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

### 1. 사례 개요

- 네팔 EDCF 사업인 차멜리야(Chamaliya)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 2008.10월 입찰(한국수력원자력(주) 단독입찰)이 끝났으나, 당시 입찰에 참여하려다 포기했던 우리 기업 A사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사업에 진전이 없었으며, 낙찰 후 수차례에 걸쳐 왜곡된 기사가 언론에 게재됨.
- A사는 2009.2.2일 낙찰가격 4,500만 달러보다 20~30%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재입찰을 권유하는 서한을 네팔 수자원부장관 앞으로 발송하였으며, 동 서한 내용이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됨으로써 단독입찰, 고가입찰이라는 의구심이 관계부처에 퍼지게 됨.
- 이에 따라 중국 등 여타업체들이 네팔 전력청(NEA)에 재입찰 요구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10.26 주네팔대사는 G. Acharya 외교차관을 면담, 동 프로젝트가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
- 2008.11.28 주네팔대사는 S.P. Koirala 수자원부차관을 면담, 현지 언론이 동 사업 입찰과정에서 대해 모함성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네팔 정부의 입장 청취
- 2008.12.19 주네팔대사는 R.Mahato 상무부차관을 면담, 동 사업이 한국기업의 네팔 투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차원에서의 관심을 촉구
- 2009.2.2 주네팔대사는 G. Acharya 외교차관을 면담, 동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재차 언급하고, 한전과 같은 주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네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
- 2009.2.5 주네팔대사는 동 사업 관련 A사의 부당 경쟁행위를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A사에 주의를 촉구할 것을 건의



- 2009.2.5 주네팔대사는 B. Poudel 수자원장관을 면담, A사의 부당경쟁행위는 하급 직원의 월권행위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2009.2.5일 A사는 B.Poudel 장관 앞으로 해명서한을 송부)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4.8 K. Shrestha 네팔전력청장은 동 프로젝트의 최종승인을 위한 네팔전력위원회 개최 계획을 대사관에 통보
- 2009.4.22 네팔전력위원회는 동 사업에 최종승인 결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국수력원자력(주)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성사는 특히 네팔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프로젝트가 인도, 혹은 중국기업에 치우쳐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네팔 투자의 선도적은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바, 공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관계 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낙찰철회 사태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문제의 발단이 우리 기업의 현지 에이전트와 연계된 과당경쟁에 있었음에 비추어 우리 기업 간의 과당경쟁 방지 및 기업 윤리의식 제고 필요
- 사업계약 이후에도 네팔 전력청은 내부규정을 들어 계약사항인 선수금 지급을 지연시킨 바, 공관은 진출기업의 지원 요청을 받아 수자원부 및 전력청에 내용설명 요청 서한을 발송하는 등 관심을 표시, 선수금 조기지급을 유도
- 네팔과 같이 외국인 투자 유치 경험이 일천한 국가에의 투자의 경우 공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 필요

### 1. 사례 개요

- 2008년 말 이후 세계적인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S전자, L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가전, 휴대폰 등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웠으나,
  - 대형 유통점인 서킷시티 파산 등 시장불안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미국 현지 민간 신용보험사의 신용한도 축소가 이어져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확대 전략 추진에 차질 발생
- S전자, L전자 등 우리 글로벌 가전기업들은 2009년 초 Euler Inc. 등 미국 내 대형 신용보험사가 기존의 신용보험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 확대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거절 당함.
  - 이에 따라 L전자 등은 대사관 주최 확대경제회의(2009.1월) 등에서 수출보증 강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요청
  - 또한, 수출보험공사 뉴욕지사에 대해서도 신용보험 한도 확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연초 이후)

###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뉴욕총영사관은 동 사안을 접수한 이후, 우선 통상투자진흥회의 등 후속 회의와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기관인 수출보험공사 뉴욕지사 등과 동 사안의 해결방안을 협의
  - 범정부적인 수출보증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수출보험공사 뉴욕지사로 하여금 미국 내 보증보험 한도 확대에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신속한 수입자 신용조사 등 수출보험 지원 관련사항도 협의
- 특히, 미국 내 취업상황 악화로 美 이민국(USCIS)이 한국에서 파견 예정인 수출보험공사 실무자에 대한 취업(L-1)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대해 신속한 비자발급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2009.3월)

- 수출보험 업무의 전문성 및 비밀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부터의 전문 인력 파견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작성

### 3. 공관 조치 결과

- 주뉴욕총영사관 조치 이후 수출보험공사는 당초보다 크게 확대된 보험한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가전기업들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

\* 주요 수출보험 지원 확대 사례(2009년)

구분	수출기업	현지 수입자	신용한도 지원내용
사례 1	S전자	Best Buy	4억 달러 → 7억 달러
사례 2	L전자	Gregg	2천만 달러 → 4천5백만 달러
사례 3	L전자	Fry s Electronics	0 → 25백만 달러
사례 4	L전자	AAAA World	0 → 12백만 달러

- 또한, 공관의 협조 서신으로 인해 수출보험공사 실무자가 주한미대 사관으로부터 신속하게 비자를 취득하고 현지에 근무하게 되었고 동 실무자를 중심으로 신용보험사에 재무제표 제공을 거부하는 현지 수입자에 대한 출장 신용조사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

###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의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투자진흥회의 등 적절한 계기를 통한 정부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겪는 금융애로를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최소화함은 물론 오히려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 사례

## 뉴욕

### 동포기업 구인난 해소 및 해외인턴 취업 지원

#### 1. 사례 개요

-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동포 기업에서 한국 문화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 대학생 인턴 채용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적절한 대상자 파악 곤란 및 높은 소개료 부담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었음.
- 주뉴욕총영사관은 이러한 애로를 접수하고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시행중이던 WEST 프로그램(한미대학생취업인턴제)참가 학생을 동시에 소개함으로써 동포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해외취업을 지원함.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뉴욕총영사관은 뉴욕에서 연수중인 WEST 프로그램(한미대학생취업인턴제) 참가 학생들에게 동 업체를 소개하는 한편, 동 업체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 5명의 이력서를 동사에 제공하고 인터뷰를 주선(2009.6월)

#### 3. 공관 조치 결과

- 최종적으로 지원자 중 3명의 학생이 유급 사무직(무역업무, 매장 디스플레이 설계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게 됨(2009.7월 이후).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포기업들은 주로 단순 노무직 분야에 남미계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으나, 사무직분야에서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을 선호하고 있음.

- 그러나, 인력알선 업체를 통한 경우, 소개료에 대한 부담이 크고 신뢰성 있는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인력 확보에 애로가 큰 현실
- 동포기업의 애로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WEST 참가 인력풀을 활용, 적기에 Job-matching을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외 취업 확대에 기여

## 뉴욕

### IT 기업 전문인력의 현지파견 관련 애로 해소

#### 1. 사례 개요

- 우리나라에서 미국 현지에 투자한 IT 벤처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한국으로부터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전문인력에 대한 미국내 취업비자 신청을 요구하였으나 미국내 실업률 증가 등 취업시장 악화로 인해 이민국측은 상기 비자 발급을 유보하고, 유사한 미국내 인력으로의 대체를 권고
- 동 사는 모 법무법인을 통해 공관에 동 전문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영업 건전성 등을 설명하면서 비자발급 및 인력파견에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2009.6월)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뉴욕총영사관은 동 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을 확인한 후, 미국 이민국(USCIS)측에 신속한 취업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협조서한 발송(2009.7월)
  - IT 업계의 특성상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를 현지인력 채용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기술 경쟁력 및 지재권 보호 차원에서 매우 곤란한 사실임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

#### 3. 공관 조치 결과

- 주뉴욕총영사관은 조치 이후 동 회사의 직원 5명은 미이민국의 승인을 얻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취업비자(H1-B)를 발급 받았으며(2009.8월), social security도 발급받는 등 현지 정착에 성공
- 이에 따라 동 사는 2009.11월 웹사이트 개설, R&D 활동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 중이며 2010년경 비즈니스를 정식 개시할 계획임.

##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미국 내 고용상황 악화로 미국 이민국측은 외국기업의 취업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임.
- 민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 바, 공관이 신속히 기업애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및 전문인력의 해외취업 확대를 지원한 사례

### 1. 사례 개요

- 新安 SNP측은 2005년 대만 투자 진출 당시 대만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기한이 2009.3.27일부터 도래한 예정이라면서, 동 상환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공관의 지원을 요청(2009.3.13)
  - 동 회사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자금사정이 일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대만은행측에 상환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대만은행측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어려움에 직면

※新安 SNP는 LCD 등의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특수유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5.10월 우리 중소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만에 투자 설립된 업체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대만대표부는 2009.3.18일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처 및 대만은행측과 접촉하여新安 SNP에 대한 원리금 상환기한 연장을 협조 요청
  - 대만정부가 경제위기 관련 중소기업지원책으로 2009년 말 이전 도래하는 중소기업 은행대출금의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는 조치를 시행 중인 바, 동 조치가 외국 투자기업에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이후에도 주대만대표부는 대만측과 접촉을 통해新安 SNP와 대만은행 간 협의동향을 주목하면서, 협조를 지속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대만은행측은新安 SNP의 원리금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기로 결정
  - 주대만대표부, 대만은행측 관련 공문 접수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원리금 상환기한 도래 전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문제해결 지원
  - － 경제위기 관련 자금부족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 대만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투자기업이 동시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조
  - － 특히, 대만 내 투자한 최초의 한국 중소기업이라는 상징성과 동 기업이 도산할 경우 고용 중인 대만인 200명이 실업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 주효
- 신안 SNP는 원리금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받은 후에도 주거래은행인 대만은행측과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라스팔마스

###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비국적 어선에 대한 우리 국적 부여 지원

#### 1. 사례 개요

- 스페인을 비롯한 EU회원국은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EC법(Community Law)을 마련하여 제3국 어선이 공해상 또는 연안국에서 행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스페인 당국은 금년 3월부터 제3국 어선의 컨테이너 검역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종래 다른 국적어선의 위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편의적으로 통관해 왔던 비국적 어선들이 어획물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교민들이 운영하는 비국적선의 수산물의 반입이 제한(폐기 또는 재반출)됨.

####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09.4.25 주라스팔마스분관은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서양에 조업하는 한인 소유 비국적선에 대해 우리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7.17 농림수산식품부는 교민소유 외국적선의 국적전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
- 2009.10.5 국적취득 수요조사 결과 발송(7명/10척)
  - － 선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선검사를 필하는 경우, 우리 국적 부여 예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앞으로 이러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비국적선은 어업활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공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업계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함.

# 라스팔마스

## 스페인 반입 수산물의 통관 지원

### 1. 사례 개요

- 라스팔마스 위생 당국은 2009.10월 “우리 국적선(주식회사 라사교역)이 중동 오만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현지에서 어획물 운반용 콘테이너선에 환적하여 라스팔마스에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환적물에 대하여는 변경된 규정(2009.10.1일 시행)에 따라 해당 국가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며, 통관 불가 입장을 표명

#### ○ 관련 규정

- 개정규정
  - 조업선이 직접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용 콘테이너선으로 환적 할 경우에는 해당국가(컨테이너 환적지)의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스페인 시범 시행일 2009.10.1/ 전 EU 시행일 2010.1.1).
  - 관련조문: CONTROL DOCUMENTAL PRODUCTOS DE LA PESCA(CE 854/2004.IV4) / (CE, no 1005/2008)
- 종전의 규정
  - 어획물을 콘테이너에 환적할 경우, 해당국가의 어획물 환적 확인서만 첨부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0.6 주라스팔마스분관 담당관은 농림수산관은 당지 위생부의 Carlos G. Santana Garcia 국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업계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해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한 것을 이해시키고, 동 건의 수산물이 통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 아울러, 우리 어선이 제3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콘테이너로 환적 시 해당국가의 위생증명서 발급(CE 854/2004.IV4) 의무조항의 문 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
- 2009.10.8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제점 및 주에스파냐대사관의 조치계획을 보고

- 2009.10.13 상기 건과 관련하여, 스페인 정부(당지 위생국)에 통관 협조요청
- 2009.10.15 스페인 정부 라스팔마스 위생국의 Carlos G. Santana Garcia국장을 만나 마드리드 본부의 입장 확인
  - 한국 정부에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등록 어선” 냉동선(ZV)에 한해서만 해당국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할 방침
- 2009.10.15 라스팔마스 국적선사 및 수산물유통업체에 수산물 수출입에 주의를 당부
- 2009.10.21 스페인 정부의 방침을 각 국적선사 및 유통업체에 전달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0.21 문제의 수산물 50톤의 반입 허용(현재까지 약 150톤 물량 반입)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애로사항에 봉착한 관내 수산업체에 대해 공관의 신속한 협조 및 적극적인 조치로 문제 해결
  - 일부 선사의 어획물 중 그리스 및 이탈리아로 수출하고자 했던 물량의 수출선을 변경하여 스페인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됨.
  - EU 국가 중 상대적으로 수산물의 가격이 양호한 스페인에 하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지 한인 수산물 유통업계의 경제활동에 기여

## 라스팔마스

### 한국산 과자류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지원

#### 1. 사례 개요

- 스페인 중앙정부(라스팔마스 사무소)의 수입식품검사소는 당지 한인 수입자(대표 문OO)가 수입하고자 하는 과자류에 스페인 법상 식용 유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성분(쌀기름)이 사용되었다며, 통관을 허락하지 않음(2008.10.15).
  - 스페인 정부측은 수입물량 40피트 1컨테이너 분을 폐기 처분할 계 획임을 수입업자에게 통보
- 통관 거부 근거
  - 수출자/수입자 : 보성특산교역(주) /라스팔마스 문OO
  - 원산지/제품명 : 한국/ 농림 새우깡, 바나나킥 등 4종
  - 근거법령 : 스페인 행정법령 308/ 1983.1.25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10.25 주EU대표부는 외교부 본부 및 관련기관에 우리 수출입 자가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

#### 3. 공관 조치 결과

- 2008.10.31 주EU대표부는 다음 사항 확인
  - EU 집행위원회 보건총국 담당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1997.5.15일 이전 쌀기름 함유 식품이 EU지역에 상당한 정도로 소비되었다면, 소비된 회원국의 확인을 거쳐 수입을 재개할 수 있음.
- 2008.11.14 대표부는 영국에서 동 쌀기름이 식품으로서 상당기간 소비 되었음을 확인
- 2008.11.15 대표부는 상기 수입업체에 사실을 통보하여 실제 통관성사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애로사항에 봉착한 수입업체에 대해 공관의 신속한 협조 및 적극적인 조치로 수입업자의 어려움을 해소, 향후 EU에 수출되는 쌀기름을 사 용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해당 업체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음.

## 러시아

### LCD-TV 판넬에 대한 무관세 수입품목 지정기간 연장

#### 1. 사례 개요

- 2009.4.29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 정부가 2009.1월부터 9개월간 한시적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한 LCD-TV 판넬에 대한 수입관 세 부과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동향을 알려오면서 동 품목이 무관세 품목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
  - LCD-TV를 조립생산하는 칼리닌그라드 소재 러시아 기업들이 동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러 정부는 동 품목에 대해 관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13 주러시아대사는 페트로프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면담, 민간차원에서 동 품목이 무관세 품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
- 2009.5.18 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공사는 구딘 경제개발부 대외경제활동분 석규제국 부국장을 면담, 동 품목이 무관세 품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실무진에서는 세르듀코바 대외경제협력국 참사관 및 비아디스모프 한국담당관 등과 면담을 통해 동 품목의 무관세 품목지정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
- 2009.5.25 주러시아대사는 크레파치 경제개발부 차관을 면담, 러시아 정부의 LCD-TV 판넬에 대한 관세율 조정 움직임에 대한 러시아 투자 우리 기업(삼성 및 LG 전자)의 우려를 전달하고, 동 품목이 현행과 같이 무관세 품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러 정부의 협조를 요청
  - 우리 기업은 러시아 정부의 산업다변화 정책에 부응하여 현지에 현대식 공장을 건설하고 LCD-TV등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직접 투자한 현지공장도 러시아의 기업이므로 칼 리닌그라드 소재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도 유리



-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러시아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면담계기, 동 건에 대한 우리입장을 담은 대사 명의 나비올리나 경제개발부 장관앞 서한을 전달

- 2009.5.25 주러시아대사는 베리아노프 관세청장을 면담, 동 건에 대해 협의하고 협조를 당부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7월 경제개발부 관련 위원회는 총리실에 동 품목의 무관세 지정 기간을 9개월 연장해 줄 것을 건의
- 2009.8.19 푸틴 총리는 동 건에 대해 경제개발부 건의안에 서명하여 9개월 연장이 확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LCD-TV 판넬은 2008.12월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관세율이 수입가격의 10%이었으나 2009.1월부터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완제품을 수입하는 일본 등 다른 나라 제품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
- 향후 9개월간 무관세품목이 유지될 경우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입관세율을 5%로 예상했을 경우 약 5천만 달러의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정연한 논리를 준비하여 러시아 정부 유관부처(경제개발부, 산업통상부, 관세청)의 고위간부, 중간 및 실무담당 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

## 레바논

### 한전 운영 발전소 노조의 태업 사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8.11 레바논 남부 자라니 발전소 노조는 한전이 고용이전 기간에 대한 근무기간 연속성을 인정할 것과 추가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 및 태업 실시
- 2009.9월 한전측은 법원에 동 문제를 제소하고 레바논 전력청 등 관계기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
- 2009.10월 발전소 예방정비를 위해 10.30일 한국에서 26명의 인력이 파견되었으나 노조가 동 시공인력의 진입을 막는 등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

#### ○ 관련 내용

- 한전은 2006.2월 레바논 전력청과 5년 계약을 체결하여 레바논 남부 및 북부에 위치한 발전소 2곳에 대한 운영·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었음
- 남부 발전소 노조는 한전이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기 이전인 2000.1~2006.1월 기간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분 파업 및 태업 실시
- 상기 파업사태는 애당초 한전 계약이전 회사와 레바논 전력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인 레바논 전력청 등에서는 한전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될 소지가 다분하였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9.14 한전 법인장 교체 계기 대사관을 방문한 신·구 법인장으로부터 상기 사태에 대한 제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레바논 전력청과 한전측이 원만히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지 인사 접촉시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 요청

- 2009.11.2 신임 한전법인장이 주레바논대사관을 방문하여 상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사관에 경과 등 제반사항 설명
  - 12009.0.31 레바논 남부 자라니 발전소 예방 정비를 위해 도착한 한국 시공인력 26명에 대해 노조가 출입을 금지하는 등 태업사태가 갈수록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사관에 도움 요청
- 2009.11.3 주레바논대사의 주선으로 레바논 남부 티르시장을 면담, 동 시장의 주선으로 레바논 총 노동조합, 노조, 한전 등 관계자가 회합하여 동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 논의
- 2009.11.4 레바논 전력청 부청장, 발전소 노조, 레바논 총 노동조합등 관계자와 회합하여 제반 사항을 논의한 후 노조 근무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파견한 시공인력의 발전소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3개월 이상에 걸친 태업 사태 해결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1.3 관련 사태 해결에 대해 우리 관계부처에 보고하고 레바논 남부 티르시장 및 동명부대장(사태 해결내내 아랍어 통역 지원)에게 감사패를 전달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상기 사태는 레바논의 특수성으로 인해(노조의 고용계약 이전기간에 대한 근무기간 연속성 인정요구 및 관련부처의 무관심, 책임전가 등) 당사자인 레바논 전력청, 한전 및 노조측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여 자칫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어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소지가 있었으나, 대사

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친한인사 및 동명부대가 지원함에 따라 사태를 적기에 해결함으로서 우리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는 바, 향후 우리 기업이 레바논에 진출하여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사태 해결에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임.

## 리비아

### 수입기계 가동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현지 바이어는 2009.2월 우리 기업으로부터 120,000달러에 달하는 자동포장기계를 수입, 설치 및 가동방법을 몰라 7개월간 공장 내 방치해 오던 중 기계 설치 및 가동을 위해 우리 기업 엔지니어의 트리폴리내 공장 방문 지원을 요청
- 우리 기업의 엔지니어 및 리비아 바이어는 상호 영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기계 설치 및 가동을 위해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 애로해결이 필수 선결 과제

#### 2. 공관(무역관) 조치 사항

- 2009.8.27 주리비아대사관은 우리 기업 엔지니어의 트리폴리 공항 Pick-up, 리비아 바이어 공장 동행 및 기계 설치 관련 협의 지원
- 2009.8.28~8.31 우리 기업 엔지니어의 4일 체류기간 중 전기간 바이어 공장에 대한 현장 지원을 통해 기계 설치 및 가동을 위한 필요 자재, 설치 및 가동 방법, 기계 가동문제 처리 방법 등 상호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지원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9월 상호 커뮤니케이션 관련 지원을 통해 기계 설치 및 가동 등 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자동포장기계 정상 가동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리비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류를 수입하는 바이어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국산 기계류에 대한 선호도 또한 증가추세

(2009.9월 말 1.6억 달러 수출, 전년대비 39.6% 증가)에 있으나 제품의 특성상 A/S 활동이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향후 우리나라의 對리비아 기계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기계 설치 및 가동 관련 아랍어 매뉴얼 지원 및 수출 후 A/S 활동 지원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리비아

### 한국산 자동차 통관금지 조치 유예

#### 1. 사례 개요

- 리비아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중장비에 대한 갑작스런 통관 금지 조치(2009.10.25)에 대하여 우리 기업, 공관 및 정부가 기민하게 공조 대응한 결과, 조기에 리비아 정부로부터 동 조치에 대한 유보 약속을 얻은 사례
  - 리비아 내 시장점유율 1위인 우리 자동차 메이커들의 활동을 적극지원, 우리 상품의 리비아 수출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애로 사항 내용
  - 2009.9.30 리비아 정부는 기존 자동차, 중장비, 농업기계, 도로건설장비 및 의료기계를 수입하는 무역 에이전트들이 51%의 지분을 리비아 경제사회개발기금에 귀속토록 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각 결정(GPC Resolution No. 437)을 제정
  - 리비아 내 기존 무역 에이전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리비아 정부는 무역 에이전트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2009.10.25일에 한국, 일본, 독일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및 중장비의 통관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격 실시(3개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이 리비아 자동차 신차 시장의 95%를 차지)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0.27 주리비아대사관은 일본, 독일 등 유관 공관과 접촉, 동 조치에 대한 국가별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조의견을 모으는 한편, 우리 정부에 상기 통관금지 조치 및 대응 현황을 보고
- 2009.10.28 주리비아대사는 리비아 내 기아자동차 에이전트사 회장, 현대중공업 에이전트사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기업들의 대책 및 활동 상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공관이 지원하여야 할 범위에 대하여 명료화하는 절차를 지속 전개하는 한편, 리비아 경제무역산업부 장관

과의 면담을 추진(우선 금년 말까지 수입금지 조치 유예를 확보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설정)

- 2009.10.29 외교통상부는 한국산 자동차·중장비의 통관금지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
- 2009.11.1 주리비아대사관 담당관은 리비아 경제무역산업부를 접촉한 주리비아 독일대사관을 통해 리비아의 상기 조치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대 리비아 교섭 전략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리비아 경제무역산업부를 접촉, 동 부처 장관과 주리비아대사 간의 면담을 2009.11.2일로 확정
- 2009.11.2 주리비아대사는 리비아 경제무역산업부 장관을 면담하고, 상기 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동 장관으로 부터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동 통관 금지 조치를 유예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냄.
  - － 동 면담 직전, 외교통상부 본부는 통관금지 유예를 얻어낼 때 필요한 각종 교섭 자료들을 주리비아대사관에 제공함으로써 상기 면담의 성공 기반을 제공
- 2009.11.2 주리비아대사는 상기 장관 면담 이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 중공업 등 우리 기업 관련자들을 재차 접촉,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각 기업 및 무역 에이전트들은 동 면담 결과에 큰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유예를 얻은 기간 동안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 2009.11.3 주리비아대사관 담당관은 리비아 내 독일, 일본 대사관의 경제 담당관들과 회의를 갖고, 리비아 정부의 조치에 대한 각 국별 대응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의 공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1.2 리비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통관금지 조치를 연말 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 기간 동안 각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함.
- 상기 공관 조치를 통해 약 1억불 정도로 예상되는 연말 對리비아 자동차 수출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날로 신장되고 있는 리비아 자동차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한국 기업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기업은 애로 사항 발생 즉시 공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주리비아 대사관은 본부예의 보고 및 지시 접수, 타국 공관과의 선도적인 공조를 통해 해당 정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바라는 결과를 적기에 도출할 수 있었던 바, 민관 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애로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을 한 사례

## 말레이시아

### 한-아세안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년 상반기 우리 관세청에서 실시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과 관련, 관세 환급을 위한 첨부서류 중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 증명서의 말레이시아 발급과 관련 우리 수입업체의 애로 사항을 접수
- 동 수입업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흑후추를 국내로 수입하는 업체인 바, 2007년 및 2008년 중 발생한 수입에 대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희망
- 관련 말레이시아 거래 업체를 통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특혜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래 업체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여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애로 사항을 전달

#### 2. 공관 조치 사항 및 조치 결과

- 2009.5.8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의 담당자를 직접 면담, 우리 수입업체에 동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담당자는 최초에는 동 수입거래 발생 시점이 현재로부터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발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발급을 허용기로 결정

#### 3.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수입허가, B/L 등 정상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여타 서류가 구비된 경우 특혜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없어도 관세환급을 시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말레이시아

### Kuala Terengganu시 경기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건설업체 애로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6.2 말레이시아 동부 Terengganu주의 Kuala Trengganu시 종합경기장의 지붕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동 경기장 지붕공사를 한국 업체가 시공한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건설회사 가 곤경에 처하는 상황 발생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당해 사고발생 인지 직후부터 해당 한국 건설 시공업체와 긴밀히 접촉, 말레이시아 언론 및 정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의 중점이 초기에는 한국계 건설업체가 시공했다는 사실에 모아졌으나 이후 당해 공사전반에 걸친 감독상의 책임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동 동향을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업체가 현지를 방문,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 아울러, 준공검사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에서 해당 업체가 일정부분 자유로운 상황이며 해당 업체는 말레이시아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부분을 설계대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생길 경우에도 책임소재는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

#### 3. 공관 조치 결과

- 사고초기 현지 언론이 한국계 건설업체가 시공하였다는 사실만을 보도하였으나, 이후 사고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공사전반에 걸친 감독상의 책임이 제기되어 연방정부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부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 사고발생 이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원시공회사, 하도급 관계회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관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설계변경이나 시공과정상 사고발생 가능성 등 법적 공방에 대비한 사전 준비 필요
-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관, 본국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 공동 대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당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중인 한국건설업체의 우수한 지명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

## 말레이시아

### POSCO-MKPC 제2공장 건설 지원

#### 1. 사례 개요

- POSCO-MKPC는 POSCO-MALAYSIA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영업중인 POSCO 현지투자법인으로 2007.2월 말레이시아 Prestar 그룹의 코일센터 지분 70%를 인수함으로써 철강재 절단 및 판매 사업에 착수
- POSCO-MKPC는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의 잠재성과 가전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2공장 걸립을 추진하였으나 공장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인허가 지연 등의 애로 상황 발생

#### 2. 공관 조치 사항

- POSCO-MKPC측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주말레이시아 대사의 말레이시아 산업발전청(MIDA) 청장, 통상산업부 장관 등의 면담 및 예방 계기, 애로사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요청
- 2008.6월 한-말 정책협의회(수석 : 양국 외교차관) 개최시, 동 사항에 대한 애로해소 지원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제2공장 부지 예정지인 셀랑고르 주지사측에도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

#### 3. 공관 조치 결과

-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POSCO-MKPC측의 노력으로 제2공장은 2008.8월 건설에 착공하여 이후 기반시설 조성 등을 거쳐 2009.5월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시운전 및 조립준비 등을 거쳐 2009.7.17일 준공식을 개최
- POSCO-MKPC 제2공장은 KL에서 약 70Km 떨어진 포트 클랑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부지 21,365평, 공장 부지 3,875평으로 총 19백만 달러 투자

#### 4. 시사점 및 참고 사항

- POSCO-MKPC 제2공장은 연간 생산능력 12만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외판재 가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품질 향상은 물론 Rawang의 제1공장과 함께 2개 공장의 입지 및 설비 특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 법인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POSCO-MKPC 제2공장 건설 지원 사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한 공관의 다각도에 걸친 지속적인 애로 해소 요청과 당해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애로가 성공적으로 해소된 사례로 평가

## 멕시코

### 우리 배터리업체의 해외 산업재산권(상표권)에 대해 침해 대응 지원

#### 1. 사례 개요

- A 배터리업체는 중국 배터리 공장에서 건전지를 생산, 70% 정도는 미국에, 30% 정도는 멕시코로 수출하여 왔으나 최근 2~3년간 멕시코 내수시장에서 동 사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제품이 유통되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동사에 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음.
  - 동 사는 물질적 손해는 연간 1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외 무형적으로 동 사 상표의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음.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멕시코대사관은 멕시코시티 코트라에서는 2008.5.8일 미국 지사장 방문시 지적재산권 소송 경험이 많은 3개의 법무법인과 면담 주선
  - 2009.6.18 본사 임원 방문시 멕시코 경찰청 출신으로 불법복제품 조사 전문가를 소개
  - 한국 특허청의 산재권 소송비용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필요시 지원요청 안내

#### 3. 공관 조치 결과

- A사의 연방세관 협조요청으로 중국 수출품의 주요 수입항인 Manzanillo항 세관당국은 2008.11월~2009.2월 간 3차례에 걸쳐 불법 제품이 실린 컨테이너를 적발하고, 연방검찰로 동 물품 이관 및 폐기처리
- 수입업자는 Guadalajara 소재 멕시코 기업이었으나 추적 결과, 행방을 감추었음. A사는 중국 수출업자에게 공식 경고서한을 보냈으며 이후 불법 수출 행위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

- 또한, 멕시코시티, Monterrey, Guadalajara 등 주요 도소매거래가 이루어지는 도심지 시장을 방문, 불법제품을 팔고 있는 도소매업자에게 공식경고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이후 불법복제품 유통량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파악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건은 상표권 출원 등을 완료했음에도 중국내 생산자(추정)가 불법적으로 상표를 도용, 지적재산권 단속이 소홀한 멕시코 내 도매유통업자와 공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동 상표권자는 동 침해사실을 알고도 지연 대응하여 피해규모가 커진 사례
- 향후 상기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 합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거래선 등을 통해 불법 유통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불법제품 발견시 신속한 신고 및 공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



## 멕시코

### 삼성엔지니어링의 현지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입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5월** PEMEX의 Salamanca/Tula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국제입찰제안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은 5개 신청기업 중 최저입찰금액을 제시하였으나, PEMEX는 신청기업들의 자격미달 및 입찰조건 미흡으로 동 입찰을 유찰시킴.

※ 삼성엔지니어링은 2002~2008년 기간중 멕시코국영석유회사(PEMEX)의 Salamanca/Tula 및 Minatitlan 정유공장 현대화사업에 참여, 낮은 공사가격으로 공기준수 등 성공적으로 사업수행한 바 있음.

- **2009.10월** 입찰금액 차순위 기업인 이태리 Saipem사를 선정하려는 PEMEX 내부결정 및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2009.11월까지 최종사업자를 선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4.17일** 주멕시코대사는 PEMEX Jorge Borja 프로젝트 입찰부문 사장을 면담, 동사의 에너지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및 멕시코 에너지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국제입찰시 부과하는 FTA 체결국조건 완화를 요청
  - **2009.8.17일** 주멕시코대사는 PEMEX Carlos Morales Gil 탐사 및 생산부문 사장과 면담, 동사의 최종 사업자 선정 협조 및 FTA 체결국조건 완화 요청
  - **2009.9.2일** 주멕시코대사는 PEMEX Jesus Reyes Heróles 회장과 면담, 동사의 최종 사업자 선정 협조 및 FTA 체결국조건 완화 요청
  - **2009.9.2일** 주멕시코대사는 공공기능부 Elizabeth Yanez Robles 차관을 2차례 접촉, 동사가 최저가에 응찰하였고 과거 PEMEX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설명하며, 동 입찰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

- 2009.9.28일 주멕시코대사는 외교부 R. Granguillohome 경제관계 및 국제협력 차관과 접촉, 동사의 과거 PEMEX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사업경쟁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금번 입찰에서 동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3. 공판 조치 결과

- PEMEX는 삼성엔지니어링과 공판의 동 입찰에 대한 투명성 보장 요청 및 정부와 언론 등 각계로부터의 신중한 입찰실시 요구에 따라 수익계약 계획을 재검토기로 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인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FTA 미체결국으로서 멕시코에서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수주 경쟁력과 함께 공판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전략 협의, 꾸준한 관련 인사 접촉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멕시코

### 우리 기업들의 현지 물류운송에 대한 보안 문제 해소 지원

#### 1. 사례 개요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은 제품의 멕시코 내 판매를 위해 중국,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핸드폰 단말기를 정기적으로 항공운송하고 공항 도착 후 차량운송하는 바, 도로 운송과정에서 단말기 적재 차량이 무장 강도들에 의해 강탈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우리 기업 A사는 2008.11월 2건(35만 달러), 2009.9월 1건(86만 달러)의 강탈사건으로 물질적 손해를 연간 1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강탈된 제품이 암시장에서 헐값에 대량 유통되어 가격구조를 교란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음.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멕시코대사는 2009.5.14일 멕시코시장과 면담, 멕시코 내 한인사회 및 진출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치안불안 문제를 제기하였고, 멕시코 시장은 자체 치안회의(2009.5.20일)에서 대책방안 강구
- 2009.7.18일 주멕시코대사관에서는 동종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주요업체와 멕시코시티 경찰청 간부(차장)의 면담을 주선하여 예방대책을 논의

#### 3. 공관 조치 결과

- 멕시코시티 경찰청은 양 업체가 제품을 운송할 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 순찰차량을 이용해 공항에서부터 물류보관창고에 도착할 때까지 전 노선을 경호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차량 운송업체와 경호업체 직원들의 명단을 주면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여부를 검토하여 주겠다고 약속

- 멕시코 치안당국과 협조, 기업들의 수출입 관련 물류활동에 대한 보안지원 시스템 구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업체들의 수입품목, 특히 핸드폰 단말기는 부피에 비해 고가이며 바로 암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어 범죄집단에게는 매력 있는 표적이기에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사설 보안업체에만 의존하는 경비시스템만으로는 사건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는 바, 현지경찰과의 지속적인 협력유지 및 회사내부에서 화물운송 관련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가 요구됨.

## 멕시코

### B 생활용품사(면도기) 해외 산업재산권(상표권) 침해 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B 생활용품사 멕시코 법인은 멕시코 생산공장(티후아나)에서 생산된 면도기 제품을 현지시장에 10년 이상 판매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음.
- 그간 유사 모조상품이 유통된 적은 있었으나, 2008년 Harvill이라는 업체가 대만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상표, 포장재는 물론 제품 외관까지 거의 동일하게 제작되어 동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음.

#### 2. 공판 조치 사항

- 멕시코시티 코트라는 특허청 소관 산재권 소송비용(28,530달러)을 요청하고, 도소매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소송제기 계획을 전파

#### 3. 공판 조치 결과

- B 생활용품사 멕시코 법인이 특허청의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활용,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표하자, 해당 유통업체는 자발적으로 가짜제품을 회수, 상황이 종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재산권 소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 소송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 전파만으로도 산재권 침해업체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었음.

## 모로코

### 전력청 변압기 입찰참여 지원

#### 1. 사례 개요

- 효성은 2006.2월 모로코 전력청(ONE)에 공급업체(vendor) 등록을 완료한 이후, 2008년 처음으로 850만 달러 상당의 변압기 납품계약 체결
- 고압변압기는 효성의 기술력이 높고 경쟁사가 많지 않아, 신규 발전소 건설과 노후기자재 교체수요가 증가하는 모로코 시장진출 확대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고관세(35%), 현지 네트워크 미비, 언어장벽(불어로 입찰진행) 등으로 진출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던 상황
- 효성은 모로코 전력청이 2009.5월 및 6월 공고한 2건의 변압기 입찰(44대 5천만 달러 규모)에 응찰한 상황이며, 가격 및 기술평가가 연내 완료되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전력청 사정으로 지연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월 에너지자원대사 및 주모로코대사는 Ali Fassi-Fihri 모로코 전력청장을 면담하여, 전력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기술수준, 가격 경쟁력, 사후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우수함을 홍보하고, 한국 기업 및 전력기기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구매를 당부
- 2009년 상반기 주모로코대사관은 모로코기업연합회(CGEM) 한국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Taariji가 전력기자재 유통회사 “Energy Transfo”의 사장으로서 효성의 현지 수주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현지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성에 소개
- 2009.10.27일 모로코 전력청 관계자가 참석한 제5차 한·모로코 경제 공동위(서울) 계기, 우리측은 변압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모로코 전력청(ONE)은 금년 2건의 변압기 입찰에 대해 한국산 수입 관세 영세율 적용 예정
- 입찰결과 및 효성의 수주성공 여부는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에 결정될 전망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최근 모로코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전력기자재의 노후화에 따라 교체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번 변압기 입찰이 성공할 경우, 향후 지속적인 전력기자재 수출확대가 가능할 전망
- 대사관의 현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모로코 전력청의 우호적인 입찰평가 및 영세율 적용 등을 유도하여, 한국산(효성) 제품에 대한 전력청의 높은 만족도가 실제 낙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고관세가 적용되는 장비 수출의 경우, 관세율 인하 노력을 전개함과 동시에 국가발주 주요 프로젝트에 납품될 경우 적용되는 영세율 혜택을 적절히 활용 가능

## 모로코

### 한국산과 EU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 격차 완화 노력

#### 1. 사례 개요

- 모로코는 EU와의 제휴협정 체결로 2012년까지 공산품 관세철폐가 진행중임에 따라 EU산과 비EU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 격차가 20%p 내외로 확대되고 있어 수입승용차 부문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 약화 및 시장점유율 하락 우려
-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최혜국관세 인하프로그램을 진행중이나, EU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2009년 11.82%, 2012년 관세가 철폐됨에 반해, 비유럽산에 대해서는 2009년 27.5%, 2012년 17.5%의 관세율 부과 예정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모로코대사는 Ahmed Reda Chami 상공신기술부장관(2009.6월), El Aid Mahssousi 대외무역부 사무차관(2009.11월), Ahmed Lahlimi Alami 기획부장관(2009.12월)을 포함한 모로코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
  - 2012년까지 EU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한국산과 EU산 간의 관세율 격차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산 특혜관세율과의 격차가 10%p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승용차에 대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
- 제5차 한·모로코 경제공동위(2009.10.27일, 서울) 계기, 승용차, 타이어, 변압기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주모로코대사관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 결과로 승용차에 대한 EU산 특혜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 격차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크다는 인식이 정부관계자, 언론 등에 확산되고 있으며, 승용차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론 확산에 기여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승용차에 대한 EU산 특혜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 간의 격차가 20%p 내외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모로코의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고려, EU의 로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승용차 관세율 추가 인하를 위한 로비를 지속 전개할 필요

## 」 뭄바이

### 현대중공업 전기공급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뭄바이 Pune 지역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은 2007.7.18일 Maharashtra 주뭄바이 산업개발공사 (MIDC : Maharashtra Industrial Development Corp.)와 건설장비(굴삭기) 공장 설립 관련 MOU 체결 시 2008.6.30일까지 전력공급토록 되었으나 전신주 설치 관련 토지 수용 문제로 인해 주정부측의 송전설비 부지매입 지연으로 추가경비 소요, 공장 가동시간 제약 등 공장 운용에 난항을 겪음.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뭄바이총영사관은 Maharashtra 주 총리 및 주 MIDC 사장에게 현대중공업 굴삭기 공장 정상 운용을 위한 전기 공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협조하여 줄 것을 서한으로 요청하고 진전 사항을 수시로 점검, MIDC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

#### 3. 공관 조치 결과

- Maharashtra 주정부 측은 공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송전설비 부지 매입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2009.10.30일 변전 소와 현대중공업 공장간 배전선이 연결되도록 조치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전기 공급 관련 애로사항에 봉착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관의 적극적인 주정부 교섭지원으로 Maharashtra 주정부측으로 하여금 장기화 될 수 있는 토지수용 문제를 조속 해결되도록 조치하여 현지 진출 주요 기업의 운영정상화에 기여

## 미얀마

### 봉제업체 현지 경영 활동 관련 지원

#### 1. 사례 개요

- 미얀마에는 약 50여개의 봉제 및 관련 제조업체가 진출하여 현지 투자의 주력을 형성
- 일부 봉제업체들은 200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토지 또는 공장 임차료를 제 때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현지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무역거래중지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미얀마대사관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제부 및 MIC를 접촉, 경제부장관 및 MIC 사무국(DICA, Directorate of Company Administration)에 협조를 요청함.

#### 3. 공관 조치 결과

- A사는 임대료 부분 납부 후 정상적인 조업 및 완제품 수출 진행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애로에 대한 지원 제공

## 불가리아

### 기아자동차 차량압류사건 해결

#### 1. 사례 개요

- 마케도니아 세관당국은 2008.11월 기아자동차 마케도니아 현지 대리점 수입자동차 77대를 보세구역 내 사전검사 절차 이행의 위법성을 이유로 압류
- 기아자동차 동구/CIS 본부장은 2008.12월 주불가리아대사관 앞으로 동 차량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불가리아대사관은 불가리아주재 마케도니아대사관 및 마케도니아 외교부에 동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공한 2차례 송부 등)
- 특히, 주불가리아대사는 2008.12월 마케도니아에 직접 현지출장, 마케도니아 Milososki 외교장관 및 Petrov 차관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동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 2009.7월 불가리아 주재 마케도니아대사관을 재차 접촉, 마케도니아 외교부측의 계속된 협조와 지원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마케도니아 외교부는 상기 주불가리아대사의 요청에 대해 동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 2009.4월 마케도니아 세관당국은 상기 압류차량을 모두 반환기로 결정
- 2009.7.15 마케도니아 법원은 압류된 차량의 반환 확정 판결을 내리고, 기아자동차는 차량을 모두 반환받게 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마케도니아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마케도니아의 국내법령을 숙지하고, 이에 저촉됨이 없도록 기업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향후 마케도니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동 건에 대한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

# 블라디보스톡

## 원산지증명서 관련 수출애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9.2월 업카이트, 제일상사, 오비스무역, 오투기 등 4개 업체는 부산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GSP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블라디보스톡 세관에 제시
- 2009.2월 블라디보스톡 세관은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가 동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서와 인장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세감면 통관을 중지함으로써 우리 업체의 수출에 애로가 발생
  - 동 세관은 러시아 연방 세관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부산상의)의 인장 견본을 2009.3.25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
- 2009.3.10~12 주러시아대사관이 러시아 관세청과 협의한바, 러시아 측은 2008.12월 우리측으로 부터 수령한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서명 등록서는 복사본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본 재송부를 요청
- 2009.3.16 지식경제부는 유효한 등록서 견본(원본 형태)을 재발송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3.1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인증서 견본이 러시아 관세청을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톡 세관으로 전달되어 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 블라디보스톡 세관에 견본서 사본을 제출하고 관세 감면 통관 협조를요청
  - 블라디보스톡 세관은 상부기관(러시아 관세청)으로부터 증명서를 시달 받거나 별도의 지시가 있어야만 관세 감면 통관이 가능하다고 답변
- 2009.3.13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Shmarlin 블라디보스톡 세관장을 면담(3.13일), 재차 협조를 요청한바, 동 세관장은 증명서 사본

에 근거한 관세 감면 통관은 자신의 권한 밖이나 3.25일로 되어 있는  
통관 기한 연장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 2009.3.20 블라디보스톡 세관은 통관기한 연장을 결정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3.20 블라디보스톡 세관이 공관의 요청을 감안하여 통관 기한  
연장(4개월)을 결정함으로써 등록서 견본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됨.
  - 그러나 업체들은 창고 보관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물  
품에 대해 우선 관세혜택 없이 통관을 마치고, 추후 관세를 환급  
받는 방안을 선택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러시아의 경우 통관 관련 규정이 까다롭고 규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융통성이 거의 없으므로 세밀한 부분까지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

## 상트페테르부르크

### 우리 진출기업의 노동허가 발급 및 쿼터 배정 확대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8.10.6 현대자동차, 2009.7.31일 (주)엠코는 자사 직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쿼터가 부족하여 공장 건립, 출장 등 원만한 근무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관에 이를 해결해 달라는 협조 요청
  - 노동허가가 발급될 때까지 3개월마다 귀국, 러시아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지생산공장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 투입 인력에 대한 노동허가 쿼터 확대가 긴요한 상황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10.16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마트비엔코(V. Matvienko)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을 면담, 노동 허가 취득 문제로 기업 활동 및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현대자동차가 조속한 시일 내 필요한 만큼의 노동쿼터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시측의 협조를 당부
  - 시장은 이민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시 정부가 여유분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노동 쿼터가 현대자동차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
- 2008.12.30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인장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최 우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현대자동차에 필요한 2009-2010년간 노동허가 쿼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였다는 공관에 사의 표명
- 2009.4.23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현대자동차 부품생산공장 기공식 개최시 마트비엔코 시장과 몰차노프 제1부시장을 면담, 현대자동차에 대한 2009-2010년 노동허가 쿼터 배정 조치에 사의를 표하고,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등 우리 기업에 대한 2010-2011년 쿼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시장은 우리 기업에 대한 2010-2011년도 노동쿼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가능한 우리 기업에 노동 쿼터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약속

- **2009.6.10**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두나예바(Y. Dunayeva) 이민청장을 면담, 현대자동차 부품생산공장 건설이 시작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노동허가 쿼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쿼터 배정 확대, 거주등록 갱신 간소화 협조, 우리 기업 전담 이민청 담당직원 지정 등을 요청

- 이민청장은 추드노프 법률담당관을 우리 기업 전담직원으로 지정하고 노동쿼터 확보, 거주등록 갱신 간소화 등에 최대한 협조키로 약속

- **2009.8.4**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2009.7.31일 (주)엠코측의 신규 부임 직원들에 대한 노동쿼터 추가 확보 협조 요청에 따라 스미르노프(S. Smirnov) 부이민청장을 면담, 추가 노동쿼터 배정 관련 협조를 당부

- 부청장은 엠코측이 신청한 노동 쿼터 확보 절차가 총리령으로 확정되는 일반 절차로서 통상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고, 엠코가 요청한 노동허가를 적시에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정부가 보유한 내부 쿼터 배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민청 내 담당직원을 지정, 엠코측에 구비서류, 관련 절차 등을 설명토록 지시

### 3. 공관 조치 결과

- **2008.10.16, 2009.4.23** 마트비엔코 시장 면담 이후, 시측은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임직원 전체에 대한 노동쿼터 발급 및 거주등록 절차 조기 종료

- 연방 보건부가 2010-2011년도 노동허가 쿼터 배정을 확정하기 전에 쿼터 확대 배정을 요청, 이에 대한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차년도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노동허가 쿼터 또한 원활히 발급될 것으로 전망

- 2009.8.4 스미르노프 부이민청장 면담 이후, 엠코측은 일반 절차보다 수월한 절차를 통해 신규 부임 직원들에 대한 추가 노동쿼터 확보 가능
- 이민청측은 일반 절차를 통한 쿼터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소 3-6개월전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고 신청시 충분한 수(실제 필요한 수보다 약 1.5-2배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보를 제공한 바, 공관은 당지 진출 전체 우리 기업에 이를 공지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노동허가 및 사증문제는 통관 애로와 함께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서 절차가 복잡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
- 공관과 시정부, 이민청 등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동쿼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유익한 정보 등을 숙지하고 관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

## 상트페테르부르크

### 현대상선 컨테이너 반환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8.7.15 현대상선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인측은 현대상선 컨테이너 59대가 1~3년간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틱세관에 억류되어 운송 차질 등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동 컨테이너가 반환될 수 있도록 공관에 협조 요청
  - 억류 컨테이너중 高價 냉동 컨테이너 18대는 중국 화주가 선적 화물을 허위 신고, 발틱세관이 이를 criminal case로 분류함에 따라 반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7.19-22 관세청장의 제7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모스크바) 참석 계기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시, 주러시아 대사관은 7.20일 현대상선 등 당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관세청장과의 기업인 만찬간담회를 주선, 현대상선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동 문제를 양국 관세청장회의시 러시아측에 제기하여 줄 것을 건의
  - 대사관은 7.21일 관세청장과 체브라스อฟ(G. Chevrassov) 북서지역 부세관장 면담 시 현대상선을 배석, 발틱세관을 관할하고 있는 북서세관측에 현대상선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억류된 컨테이너가 조속 반환될 수 있도록 북서세관측의 관심과 지원 당부
  - 7.22일 양국 관세청장회의시 관세청장은 현대상선 문제를 러시아측에 제기,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측의 협조 당부
- 2009.3.3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투골루코프(O. Tugolukov) 발틱세관장을 면담, 현대상선 컨테이너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출입업자와 발틱세관 간의 문제로 현대상선은 사실상 제3자적 입장에 있음을 설명하고, 러시아 관세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존중, 절차대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나 동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발틱세관이 주체가 되어 동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

- 위법행위를 한 화주와 러시아 수입업자가 모두 회사를 폐사함에 따라 해결 당사자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 세관측의 호의적 검토 당부
- 2009.4.10 현대상선은 발틱세관측이 3.13일, 4.8일 두 차례에 걸쳐 억류 컨테이너 59대중 35대를 반환하였음을 알려오면서 총영사관에 그간의 노력에 대한 사의 표명
- 2009.4.14 총영사관은 잔류 컨테이너 24대 반환 문제를 제8차 양국 관세청장회의(서울)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본부에 건의
  - 관세청은 동 문제를 의제로 채택, 4.20일 제8차 관세청장 회의시 협의
- 2009.6.9 발틱세관은 잔류 컨테이너 6대를 현대상선측에 반환하였음을 총영사관과 현대상선에 통보
- 2009.6.16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그린(A. Grin) 신임 발틱세관장을 면담, 그간 발틱세관의 41대 컨테이너 반환 조치에 사의를 표하고, 잔류 냉동 컨테이너 18대도 조속 반환될 수 있도록 세관측의 협조 당부
  - 화주의 위법행위에 대해 현대상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3.3 발틱세관장 1차 면담 후, 발틱세관은 3.13일, 4.8일 두 차례에 걸쳐 35대의 컨테이너를 현대상선에 반환
  - 현대상선측은 나머지 24대 처리에 대한 세관측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음을 총영사관에 통보
- 2009.4.14 총영사관 건의로 제8차 양국 관세청장회의시 잔류 컨테이너 반환 문제가 의제로 채택, 양측 고위급간 협의
  - 발틱세관은 6.6일 6대의 컨테이너를 현대상선측에 추가 반환

- 발틱세관장 2차 면담 시, 세관장은 나머지 18대 컨테이너의 경우 ‘연방재산처분위원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에서 컨테이너 적재 물품에 대한 처리 심의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동 컨테이너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
- 다만, 연방재산처분위가 최근 내부 개혁 중에 있다면서 동 개혁이 완수되어야 컨테이너 문제도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측의 양해를 요청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통관 애로는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공관은 러시아 세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세관 간 협의시 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 현대상선 애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화주와 수출입업자가 모두 폐사한 상황에서 수십대의 컨테이너를 회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1대를 회수할 수 있었던 점은 현대상선과 대사관 간 긴밀한 협조, 공관과 지역세관, 우리 관세청과 연방세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

## 상트페테르부르크

###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의 공장 진입로 주변 도로 건설 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7.1, 8.7 현대자동차 및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자동차 공장 운영에 핵심요소가 될 상트페테르부르크 서부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동 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될 경우 공장 건설을 위한 부품 조달 및 공장 완공 후 완성차 운송과 부품 납입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면 동 고속도로 건설 현황 파악, 시측과 협의, 동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8.11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몰차노프 부시장과 프로호렌코 대외위원장을 면담, 서부고속도로 건설 현황과 전망을 문의하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시범차 생산을 위해 가동될 2010년 하반기까지는 공장 진입로 주변의 대안도로 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
  - 현대자동차측과 협의하여 우선 중요 도로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시측의 배려 당부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8.11 면담 이후, 시정부측은 현대자동차측과 우선 착공 도로 선정 및 착공 시기를 협의, 현대자동차측과 2010.9월전까지 대안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러시아 내 인프라 구축 미비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 투자 진출 및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큰 요소중 하나로, 비단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외국기업들도 겪는 유사한 애로사항 중 하나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부를 접촉, 최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들도 연합체를 형성, 공동 대응함으로써 시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상트페테르부르크

### 현대자동차 현지 생산공장 등기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9.8.7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인은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산공장을 등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총영사관에 전달하고 시정부와 협의,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
  - － 현대자동차측은 연방등기청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등기하려 했으나 공장 부지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단일 행정구역에 소재하지 않고 2개區에 걸쳐 있어 공장을 단일부지로 등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거부당하였다고 설명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8.11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프로호렌코(A. Prokhorenko) 시정부 대외위원장 및 몰차노프(Y. Molchanov) 부시장을 면담, 현대자동차 등기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동 애로사항을 조속 해결해 줄 것을 요청
  - － 대외위원장은 동 문제가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연방등기청과 협의하겠다고 하고, 행정구역 조정 등 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
- 2009.9.9 주 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바흐미스트로프(V. Bakhmistrov) 제1부시장을 면담, 현대자동차 공장 소재지를 단일 단위로 묶어 1개구에 등기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배려와 협조 당부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0.20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인측은 10.16일 시정부로부터 현대자동차 공장을 단일부지로 1개구에 등기할 수 있음을 통보받았으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주러시아 대사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



- 시정부측은 현대자동차 공장 소재지를 단일부지로 묶어 1개구에 등기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을 확정, 이러한 방침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등기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현대자동차측에 설명
- 현대자동차측은 시정부와 약속된 공정기간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무허가로 공장을 건립하고 있었다면서, 공장 등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공장 건축 허가 절차 등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충영사관에 설명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러시아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백개에 달하는 허가 조치를 연방정부 및 시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바, 공관과 시정부, 시정부와 연방정부의 긴밀한 협조 속에 까다로운 법적 절차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었다고 평가

## 스리랑카

### 우리업체 관련 노동분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11.20 스리랑카 진출 우리 의류업체 A사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분규가 발생, 사업장 기계파손 위협 및 사업주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알려오면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우선 주스리랑카대사관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적인 것이며, 현재 공장의 기계 파손 위협과 사업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즉시 경찰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의 행사를 중단해 줄 것을 스리랑카 정부에 요청
- 경찰이 개입하여 공장 자산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차단한 이후, 사업주는 스리랑카 노동부를 통해 노동자들과 협상을 벌였으며, 대사관은 노동부에 동 업체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동 업체가 의류수출 업체로 스리랑카 고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임금인상 등으로 공장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양측에 모두 손해임을 설득하면서 협상을 지원

#### 3. 공관 조치 결과

- 사업주 신변 및 사업장 피해는 없었으며, 노사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노동분규 등 물리력이 행사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경찰력 개입이 중요한 바, 경찰청장에게 대사가 직접 전화를 하는 등 공관의 즉각적인 조치가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노동부를 통한 협상시에도 공관의 측면지원이 원만한 협상 마무리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

## 스리랑카

### 탈세혐의 해소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10.6 스리랑카 진출 한국업체 J사(품목:cotton tea bag thread) 사업주가 주스리랑카대사관을 방문, 당시 스리랑카 세법의 미인지로 2006년 및 2007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최근 세관이 발견, 이를 추징하려 하고 있으나, 본인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며, 탈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스리랑카 재무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니, 스리랑카 재무부에 이를 설명할 기회를 갖게 해 달라고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스리랑카 재무부에 현지 진출 우리업체로부터 상기와 같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알리면서, 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
- 현재 사업주와 진전사항을 점검하면서, 향후 조치 필요사항 협의 중

#### 3. 공관 조치 결과

- 스리랑카 재무부는 스리랑카 세관으로부터 등 기업의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하는 중임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시 진출국의 세법 등 관련법령을 정확히 숙지 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스페인

### 한진해운의 안달루시아 주정부 보조금 획득 지원

#### 1. 사례 개요

- 스페인 Algeciras 지역에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건설 중인 한진해운에 안달루시아 주정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관에서 지원  
- 2009.1.20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제3컨테이너 전용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1,240만 유로를 지원키로 확정
- 한진해운은 2007.12월말 스페인 Algeciras 항만청이 발주한 지브롤터 해협 인근 Isla Verde Exterior 지역의 제3컨테이너 전용터미널 개발 프로젝트 국제입찰에 응찰하여 2008.2.8일 최종 낙찰된 바 있으며, 이후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스페인 대사관의 협조 및 지원 요청  
- 1단계 사업은 1.6억 유로 규모이나, 한진해운이 option을 갖고 있는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투자 규모는 3.4억 유로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스페인대사관은 2007.12.21일 한진해운(주)이 Algeciras 해운항만청에 전용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입찰서를 제출한 이래, Andalusia 주정부 및 안달루시아 해운항만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Sevilla 명예영사를 활용토록 지원
- 2008.6.23 주스페인대사는 Rafael Conde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면담, 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스페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 2008.7.9 주스페인대사는 Antonio Sanchez 산업관광통상부 통상투자국장을 면담, 동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 2008.9.22 주스페인대사는 Algeciras 항만청 Gerardo Landalu 국 제부장 및 스페인 대외무역청(ICEX) Fernando Leon 부장의 방문을 받음.
- 2008.10.6 주스페인대사는 Algeciras 항만청을 방문, Zarrias 안달 루시아 부지사 및 Moron 항만청장 등과 면담. 한진해운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및 Algeciras 항만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고 주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최대한의 재정지원 요청
- 2009.1.16 주스페인대사는 스페인 건설교통부 Fernando Palao 차관 및 Mariano Navas 항만청장과 면담, 동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Palao 청장은 중앙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20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한진해운의 제3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1,240만 유로 지원을 확정(투자금의 10% 수준)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진해운의 Algeciras 항만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는 Algeciras 항을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남미, 북미지역으로 통하는 물류·해운의 지역 거점으로 삼아 관련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동사의 전략적 구상하에 추진되는 것이므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긴요함
-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시 주재국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투자비용 감소 뿐 아니라 향후 투자 확대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바, 공관과 기업이 해당 국가의 보조금

제도 관련 정보 파악 및 보조금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프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스페인

### LG법인에 수출 보험공사 자금 조달 지원

#### 1. 사례 개요

- 2007년 이후 스페인 LG 법인의 주 거래 보험사인 COFACE사가 신용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오던 중, 2008년 1/4분기에는 신용축소 폭을 더욱 확대하여 LG 법인의 수출활동에 애로 발생
- 이에 스페인 LG 법인이 우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확대된 보험신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25 주스페인대사관은 스페인 주재 LG 법인장으로부터 자사 거래 보험사가 보험 신용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영업활동상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과 동 건 해소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신용 지원 요청을 접수
- 2009.5.27 주스페인대사관은 국내 수출보험공사와 접촉, 주스페인 LG 법인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신용지원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6월 수출보험공사는 주스페인 LG 법인에게 보험신용을 확대적용하기로 결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금융위기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에게 국내 무역금융을 이용한 신용을 제공하며 해외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슬로바키아

### 우리 기업 단기출장자 체류관련 애로 해소

#### 1. 사례 개요

- 슬로바키아 관련 법규(노동, 출입국)상 외국인이 7일 이상 근로하려면 노동허가와 체류허가 취득이 필요(구비서류 준비 및 허가 취득에 1개월 이상 소요)

※ 슬로바키아에는 단기상용비자 제도 부재(2008년 초)

- 2008년 초 삼성 LCD 공장 직원 17명은 출장기일 촉박 등으로 인해 노동허가 등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 장비 가동 점검 및 생산자 교육차 슬로바키아에 입국(단기출장)
- 2008.2.5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은 상기 17명을 불법근로 혐의로 연행 및 조사 실시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슬로바키아대사는 슬로바키아 관계 주요인사를 연쇄 접촉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상용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주도록 요청
  - 2.11일 Tibor Mako 외국인경찰청장 접촉
  - 2.21일 Olga Algayerova 외무차관 접촉
  - 2.28/3.14일 Ivan Surkos 외무부 영사국장 접촉
  - 3.3일 Emila Krsikova 노동차관 접촉 등

#### 3. 공관 조치 결과

- 슬로바키아 외무부, 2008.10.3일 외교서한을 통해 한국 주요투자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에서 단기상용비자(90일 이내 근로, D비자)를 발급코자 한다고 대사관에 통보



- 슬로바키아 국회, 2009.11.25일 현재, 모든 외국 주요투자기업 직원의 90일 이내 무비자 근로 허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구비서류 간소화(슬 범죄기록 조회서 제출 생략) 법안 심의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슬로바키아 주요인사를 접촉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대변함으로써 슬로바키아측이 우리 기업 단기출장자에 대해 허가 취득이 보다 용이한 체류허가 제도(D비자 등)를 도입하도록 유도

## 슬로바키아

### 현대모비스의 슬로바키아 정부지원금 수급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8월초 현대로템사 직원(현대모비스 직원 1명 포함) 10명이 자재 콘베이어 설치 공사차 슬로바키아에 입국(노동 허가 등 관련절차 진행). 한편, 자재 조달 지연으로 공사 개시 지연
- 2008.9.17 질리나 노동사무소 및 외국인경찰은 상기 10명을 무비자 근로자로 적발
- 2009.3.11 질리나 노동사무소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불법고용을 이유로 슬로바키아 정부보조금 지급 중단 및 벌금 부과 결정서 송부
  - 현대모비스는 2004년 슬로바키아에 진출 이래로 슬로바키아 정부로부터 부지 매입 지원금(총553만 유로), 생산자 교육 지원금(총318만 유로), 슬로바키아 인력 채용 지원금(총258만 유로)을 수급하고 있거나, 지급을 약속받음.
  - 상기 불법고용 결정서가 존속할 경우 슬로바키아 정부보조금 관련 법규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상기 지원금 수급이 불가

#### 2. 공판 조치 사항

- 주슬로바키아대사는 슬로바키아 노동장관을 접촉하여 정부보조금 중단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므로 동 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
  - 4.7/7.7 Jan Sihelsky 중앙노동사무소장 접촉(참사관)
  - 5.20 Viera Tomanova 노동장관 접촉(대사) 등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7.14 질리나 노동사무소는 내용이 변경(‘불법고용’ 삭제, ‘외국인 등록 해태’ 추가)된 재결정서를 현대모비스에 송부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기업과 공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슬로바키아 지방 행정당국의 과도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동 행정처분을 재고토록 유도
- 공관 요청에 따라 노동부 최고위층이 개입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 시내 도로·교량 공사 관련 애로 해소

#### 1. 사례 개요

- 2008.7월 A건설은 UAE 두바이 도로교통청이 발주한 4.66억불 규모의 두바이 시내 도로·교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진행
- 2009.9.13 현재,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지연, 시공도면에 대한 감리회사의 승인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 21.58%에 훨씬 못미치는 9.2%의 공정률 기록
- 이에 대해, 도로교통청은 지연 원인이 시공사측에 있다면서 발주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통보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A건설의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곧 두바이 도로교통청에 면담을 요청하여 9.30일 대사가 Al Tayer 청장을 면담  
- 주아랍에미리트대사는 한국 건설기업들이 가격, 품질 뿐만 아니라 공기준수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여 왔다고 설명하고, A건설 건의 경우 초기 시장진출로 인해 현지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인력, 자재 추가 투입을 통해 공기를 지켜갈 것이라고 설득

#### 3. 공관 조치 결과

- 주아랍에미리트대사 면담 후인 10월초 두바이 도로교통청은 A건설에 대해 3개월의 불가항력적 공사지연을 인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토록 허용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건설지상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건설사—공관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함으로써 기업 애로사항이 적기에 전달 될 수 있었음.
- A건설은 두바이 인프라공사에 처음 참여하면서 각종 대관업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지 인력·장비 조달도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 바, 동종 업체 간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발주처의 성향을 엄밀히 분석·대비하는 것이 중요

## 에콰도르

### 태평양정유공장(Refineria del Pacifico)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

#### 1. 사례 개요

- **2007.8월** Correa 에콰도르 대통령과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 간 일일 처리 능력 300,000배럴 규모의 태평양 정유공장 신설에 대한 MOU가 체결되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SK건설은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와 공동으로 에콰도르석유공사를 접촉코자 하였으나 주요 인사와의 면담 및 접촉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2008.4월 공관장회의 계기 기업간담회에서 동 애로사항에 대한 공관의 지원을 요청
- SK건설 관계자가 에콰도르를 방문하였으나 태평양정유공장 신설 프로젝트 핵심인사 면담 성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에 Palacios 전략조정장관(이후 광업석유장관 취임)을 초청하여 SK건설 사장 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Jaramillo 페트로에콰도르 사장 등 주요인사 면담 성사를 통해 SK건설이 2009.5월 사회-환경 영향 평가 계약 및 2009.7월 개념설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여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4월** 주에콰도르대사는 공관장회의 기간에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에콰도르 진출을 희망하는 SK 건설 관계자를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Palacios 광업석유장관 및 Jaramillo 페트로에콰도르 사장과의 면담 등을 주선
- **2008.9월** Palacios 광업석유장관을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토록 방한 초청하고 동 계기에 SK 건설 부회장 면담을 주선하여 SK건설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
- **2008.12월** SK건설 관계자의 Palacios 광업석유장관 면담 주선

- 2009.3월 주에콰도르대사는 Jaramillo 페트로에콰도르 사장을 면담하여 SK건설의 정유공장 건설 경험 및 기술 능력 홍보
- 2009.5월 SK건설의 태평양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사회환경 영향평가 계약(900만 달러) 지원
- 2009.6월 주에콰도르대사는 Navas 베네수엘라 대사, Jaramillo 페트로에콰도르 사장 및 Arias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에콰도르 법인장 면담을 통해 SK건설의 태평양 정유공장 건설 관련 참여 방안을 협의
- 2009.7월 SK건설의 태평양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개념설계 계약(4,100만 달러) 지원
- 2009.11월 Pinto 비재생천연자원부 장관을 2009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에 참석토록 방한 초청하고 동 계기에 SK건설 사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SK건설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기여

### 3. 공관 조치 결과

- 주에콰도르대사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주요 인사와의 면담 주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진출을 지원하고,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 및 2009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에 Palacios 광업석유장관 및 Pinto 비재생천연자원부 장관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이 에콰도르의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공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2009.11월 외교부에서 주최한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에 Pinto 비재생천연자원부 장관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및 진지성을 홍보하여 에콰도르 정부내 우리 기업의 진출에 대해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

- 동 고위급 포럼을 정례화하고 동 계기 방한 고위인사와 국내 주요기업 CEO 간 면담 주선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 할 필요있음.



## 에콰도르

###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공사 수주 및 공사 계약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10월 에콰도르 국영석유 공사(PETROECUADOR)가 Esmeraldas정유공장 개보수공사 국제입찰공고를 발표함에 따라 대사관은 SK건설 등 우리 기업에 동 정보를 제공하여 2008.10.4일 사업 설명회에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2008.10.14일 서류접수 마감일에 발주처 요구서류를 제출한 후, 2008.10.21일 SK건설이 우선협상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광업석유장관, Esmeraldas 정유공장 프로젝트 매니저 등 핵심인사를 면담할수 있도록 주선하고, 아울러 2008.12월내 공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9.30 주에콰도르대사관은 Esmeralda 정유공장 개보수 공사 국제입찰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 주에콰도르대사는 Palacios 광업석유장관 면담 계기에 SK건설 홍보
- 2008.10.5 Esmeralda 정유공장 개보수 공사 사업 설명회 개최 정보 제공
- 2008.10.15 SK건설 관계자의 Palacios 광업석유장관 면담 및 Monge 프로젝트 매니저 면담 주선
- 2008.10.17 주에콰도르대사는 Hugo Coronel 석유정책 차관을 면담 하여 SK건설의 정유공장 건설 경험 및 기술 능력 홍보
- 2008.10.20 SK건설 관계자의 Padilla 에콰도르석유운송공사 사장 면담 주선
- 2008.10.21 에콰도르석유공사는 에콰도르를 방문중인 SK건설 대표단에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1단계 사업(약 2.5억 달러) 우선협상 대상기업 선정 통보

- 2008.12.10 주에콰도르대사는 Palacios 광업석유장관 및 Jaramillo 에콰도르석유공사장을 면담하여 SK건설 부회장 방문 계기에 동 개 보수 공사 사업 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조 요청
- 2008.12.29 에콰도르석유공사와 SK건설 간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1단계 1차 사업(85백만 달러) 공사계약 체결 지원
- 2009.2월 주에콰도르대사는 Jaramillo 에콰도르석유공사사장을 면담하여 2009.1월 중순까지 지불기로 되었던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사업 선수금 75%를 SK측에 조속 지불되도록 협조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에콰도르 태평양정유공장(Refineria del Pacifico) 건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SK건설이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1단계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약 10억 달러 규모)은 물론 태평양정유소 건설 사업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2008.9월초 외교부에서 주최한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 계기에 Palacios 광업석유장관(당시 전략조정장관)이 방한 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에콰도르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및 진지성을 홍보하여 에콰도르 정부 내 우리 기업의 진출에 대해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에 크게 기여함.

## 영국

###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및 수출 지원

#### 1. 사례 개요

- 2002년 설립된 GMT 사이버네틱스사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기술 장비 국산화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해 옴.

※ VMS(Vessel Monitoring System) : 선박 발신 장비의 정보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항해 노선, 속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 그러나,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기술은 국제적으로 최첨단 기술로서 우리나라는 미개발 상태에 있어 관련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음.
- 또한,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이에 관한 안전기준이 토의되고 있었으나 GMT사는 관련 정보 및 참가방법 미숙지 등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음.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영국대사관은 GMT사가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특별 작업반 회의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사관 담당관은 상기 회의에서 동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 LRIT(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선박이 전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

#### 3. 공관 조치 결과

- 2008 GMT사는 세계 6번째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 동 시스템이 설치됨.
- 2009 GMT사, 스웨덴 고텐버그항만에 VMS 수출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공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영세기업이었던 동 사는 2009.10월 현재 매출 53억원, 직원 5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최첨단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IMO 주관 해사안전 기술협력 세미나 등의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선 세계 1위, 해운 세계 5위권의 국가로서 이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해양관련 첨단기술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며,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국

###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 국산화 및 수출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년 상반기 엔케이(NK), 파나시아, 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은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시도함.

※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은 평형수 내 유해수중생물을 제거하는 장비로 국제협약에 따라 2016년까지 선박 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 이를 위한 사전 조건으로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 제조업체는 IMO로부터 2차레 승인을 획득해야 함.
  - 승인에 앞서 IMO는 승인 심사비용의 지급보증, 시스템에 대한 각종 연구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을 해당 국가에 요구

#### 2. 공관 조치 사항

- IMO의 형식승인과 관련, 주영국대사관 담당관은 IMO-GESAMP 서류심사 기간 중 심사위원이 요구한 연구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관련 기관 및 시스템 개발 업체와 협의 실시
- 주영국대사관 담당관은 IMO 제59차 기간(2009.9.14~18) 중 엔케이가 개발한 평형수관리시스템의 국제기준 만족성 및 시스템 우수성 설명
- 2009.8월 주영국대사관 담당관은 스웨덴에서 개최예정인 IMO 참가 평형수처리 형식승인기관 간 국제세미나(2010.1월)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
- 2009.10.28 주영국대사관 담당관은 해외 해양관련 유수전문지(로이드 리스트, 트레이드윈드 등)에 우리 선박평형수처리기술 개발현황 및 평형수관리 국가정책에 대한 기고를 추진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7.17 엔케이 개발 선박평형수처리설비(NK-O3 Blueballast) IMO 최종승인 획득 및 현대중공업(주) 개발 평형수처리설비(Eco-Ballast) 최종승인 권고
- 2009.9.18 파나시아 개발 선박평형수처리설비(GloEn-Patrol Ballast) IMO 최종승인 획득 잠정결정
- 2009.12(예상) 현대중공업 개발 평형수 처리설비 IMO 기본승인 획득 잠정결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국내업체의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 기술개발은 성숙단계로 진입중이며 IMO 최종승인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까지 3만 여척에 15조원대로 추산(연 2.5조원)

※ (주)테크로스는 2008.12월 정부형식승인을 획득하고 제품 양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예상 매출액은 3백만 미불임.

- 2009.7월 세계적으로 IMO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기술은 8개에 불과하며 그 중 2개 기술은 우리나라의 것임.
  - 그러나, 일본, 남아공, 중국 등 후발주자의 기술 개발 가속화로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 영국

### 원양어업체 조업 쿼타 배정 지원

#### 1. 사례 개요

- 원양어업체인 인성실업은 1993년 이래 영국령인 사우스조지아 해역에서 조업을 하여 왔으나, 2007/8 영국령 사우스조지아 정부에 요청한 메로\* 입어 신청에서 탈락하여 조업쿼터를 배정받지 못함.

\* 정식명칭은 비막치어이며 남태평양 등지에 분포하는 농어목 바다물고기

※ 조업허가 및 쿼타 배정은 사우스조지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되 영국 외교부와 사전 협의 진행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3월 주영국대사관 담당관은 영국 외교부 극지과장을 면담하여 구체적인 실업기업의 탈락사유 등을 문의
  - － 영국 외교부는 인성실업의 탈락사유로 바다새 보호 장치 미사용 등 CCAMR(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밝힘.
  - － 이후에도 극지과장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우리나라 불법 조업 근절 정책 및 인성실업의 예방 조치 등을 설명
- 2008.10월 주영국대사관은 영국 외교부 관계자를 오찬에 초청, 우리 업체에 대한 쿼터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2.18 영국 외교부 주영국대사관에 (주)인성실업에 대해 2009년 조업쿼타 200톤을 허가한다고 알려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최근 자원 보호, 야생동물 보호 관련 규정 및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 원양어선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조업쿼타 배정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원양어선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사전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영국

### 체류허가제도 변경에 따른 지상사 애로사항 해소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2월 영국정부는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점수제 체류허가제도(PBS)를 도입하였으며, 2008.11월부터는 기존 고용허가제도(work permit)를 전면 폐지되고 상기 점수제 체류허가제도를 전면 시행함.
- 영국에 파견된 지상사 임직원들은 상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체류허가 획득에 큰 애로를 겪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7월, 2009.6월 2차례에 걸쳐 영국 주재 지상사를 대상으로 체류허가제도 세미나를 개최, 새로운 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 2009.4월 주재 지상사 대상으로 새로운 이민법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 영국 국경청(UKBA), 영국 외교부(FCO) 등에 새로운 체류허가제도의 문제점 제기 및 완화 요청
- 2009.10월 Lord Peter Mandelson 영국기업부 장관 한국 방문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동 애로사항을 제기토록 건의

#### 3. 공관 조치 결과

- 지상사의 체류허가 취득 애로사례 급감
- 주한영국대사관 및 영국기업부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

## 예멘

### 대우건설 법인세 부과 애로사항 해결

#### 1. 사례 개요

- 2005.6월 대우건설은 예멘의 모든 세금 및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발주사인 YLNG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예멘 최초 가스수출사업인 YLNG 프로젝트의 2개 가스탱크공사 건설을 시작함.
- 2008.4.13일 예멘국세청은 상기 대우건설과 발주처간의 면세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대우측에 2006년분 법인세 5.37백만미불을 부과하였으며, 동일한 이유로 2009.4.13일 2007년 법인세 1.6백만 달러를 부과함.
- 대우건설은 상기 예멘국세청 조치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지난 1년간 노력하였으나 예멘국세청이 대우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의사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2009.4.25일 주예멘대사관에 해결지원을 요청함.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월초 주예멘대사관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예멘 정부 가스개발협정(Gas Development Agreement)과 대우건설과 YLNG사 간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 대우건설은 YLNG사의 직접적인 'Contractor'이며, 1995년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예멘정부의 가스개발협정(GDA)에 따라 법인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 대우건설이 'Subcontractor' 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세금고지서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예멘 국세청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허구임을 확인함.

- 2009.5.18 예멘석유광물부 Taha Al-Ahdal 장관보좌관을 면담하여 대우건설의 법인세 애로사항 및 예멘 국세청의 억지 주장을 설명하며 석유광물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함.
- 2009.5.24 대우건설 발주사인 YLNG사의 Amin Al-Madihage 프로젝트 관리자를 면담하여, 발주처인 YLNG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함(대우건설 관계자도 참석함).
- 2009.5.25 예멘국세청 Abdulla Moshiki 부국장을 면담하여 대우건설이 'Subcontractor' 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세금고지서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예멘 국세청 주장이 법리적 근거가 없음을 설명함.(YLNG사 Amin Al-madihage 관리자 동석함)
- 2009.6.7 예멘 국세청 Ahmed Rasa 국장을 면담하여 적극 설명한 결과, Ahmed Rasa 국장은 조만간 대우측 자료를 검토하여 2007년 분 법인세(1.6백만 달러) 세금고지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함.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8.12 예멘국세청은 대우건설 2006년 및 2007년분 법인세 중 2007년 법인세 1.6백만 달러를 철회함.
  - － 대사관이 대우건설의 2006년 법인세도 마땅히 동시에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자, 예멘국세청은 대우건설 2006년 법인세는 예멘 세금항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므로 예멘국세청의 관할 밖이라고 답변함.
- 2009.9~2009.10.21 대우건설의 2006년분 5.37백만 달러 부과 취소를 위하여 예멘세금항소위원회, 예멘석유광물부 Amir 장관 등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청중이며, Amir 장관은 예멘재무부와 협의하여 모든 외국건설기업의 법인세 문제를 일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대우건설의 면세공사 관련 예멘 관련법 및 계약서가 당초 예멘정부에서 제공을 꺼림에 따라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대사관이 적기에 확보하여 핵심쟁점사항을 명확히 파악한 후, 예멘 국세청 인사 등 관련 정부 인사들에게 적극 설명한 것이 주효하였음.
- 우리 기업은 예멘과 같은 개발도상국 진출 시, 해당 정부가 무책임하게 계약서 내용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여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설공사 계약은 해당 정부와 직접 또는 건설 발주사와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바, 후자의 경우 건설 발주사와 정부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 후 신뢰성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함이 나중에 문제발생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또한, 우리 기업 뿐 아니라 공관이 함께 예멘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금번 사안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했음.

## 오만

### 우리 기업 직원용 부식 수입 통관 지원

#### 1. 사례 개요

- 오만의 석유화학 공장 건설을 진행중인 B사는 현장 직원용 부식 조달을 위해 한국에서 약 2.8톤, 5만 달러 상당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만 세관이 Halal Certificate 미비를 이유로 쇠고기 반입을 불허하였다고 하면서, 동 육류 통관을 위한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

※ 오만은 이슬람 국가로 외국으로부터 육류 반입시 동 육류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Halal Certificate 제출을 의무화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2.23 주오만대사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육류가 한국 관계 당국의 식품 안전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순수하게 현장 직원 부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동 물품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외교 서한을 오만 외교부에 발송하고, 외교부, 세관 및 농업부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3.18 오만 농업부가 반입을 허가함에 따라, B사는 2009.3.21일 동 육류를 세관으로부터 수령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B사의 경우 오만 육류 수입 관련 Halal Certificate 제출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받은 바, 우리 기업들은 향후 유사한 물품 반입시 통관 관련 제반 규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온두라스

### (주)한국전력 수력발전소 건설계약 중지에 따른 손실 차단

#### 1. 사례 개요

- 2009.1월 한국전력은 당지 수력발전회사인 H&G사와 Colon주 Sico 강 유역에 12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H&G사와 현지 주민들 간 보상금 합의가 실패하였고, H&G사의 외화조달 문제 등이 드러남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이 문제시 되면서 한국전력은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주온두라스대사관에 관련 정보제공 요청과 의견을 문의해 옴.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월 현지 주민들의 수력발전소 건설반대 시위동향 통보
- 2009.7월 H&G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주일온두라스대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Lefebvre 주온두라스대사가 소유한 건물 중 정부에 임차한 대형건물의 임대차 계약중지 동향 등) 제공

#### 3. 공관 조치 결과

- (주)한전 측은 주온두라스대사관이 제공한 자료와 온두라스 정세 및 H&G사의 대금지급 중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 계약이행을 보류함으로써 추가 손실 차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온두라스대사관으로서는 우리 기업의 현지 파트너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두라스

### (주)한솔 노동자 상여금 산출근거를 둘러싼 분규

#### 1. 사례 개요

- 온두라스에 투자 중인 편직물 임가공업체(Maquiladora)인 (주)한솔은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연 200%)을 본봉기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근로감독기관인 노동부의 수시점검에서 상여금 지급이 잘못(노동부는 총액기준으로 산정, 지급해야한다고 판정)되었다고 지적, 시정명령을 받았는 바, (주)한솔측은 총액기준 상여금지급은 국제기준 뿐 아니라 온두라스 노동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대사관에 법률적 자문 등 협조 요청해 옴.
  - － (주)한솔측은 노동부측이 수시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한국기업들만 표적 점검했다고 주장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11월 주온두라스대사관 담당관은 온두라스 노동부 Janet Bogran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한국기업들에 대한 표적점검이 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노동문제 관련규정 적용시 제3국 투자기업과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요청
- 2008.12월 온두라스 노동문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주)한솔 측에 동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노동문제 전문변호사를 통한 현지교섭이 보다 경제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 전달

#### 3. 공관 조치 결과

- 변호사 및 (주)한솔 측과 협의결과 동 건은 노동부내에서도 관계자간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온두라스 사법시스템 등을 감안 시 공관 직접개입에 의한 성급한 사건해결 시도 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교섭이 경제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따라, 현재 변호사를 통한 교섭 시행 중

- 공관의 적절한 조언 등으로 (주)한솔 측은 노사 분규를 사전 차단하여 경영손실 최소화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온두라스 노동법 규정이 대체로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노동문제는 공관의 직접개입보다는 전문가의 교섭에 맡기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해결책일 경우가 많은바, 본 건에서도 공관의 적절한 조언과 해당기업의 빠른 판단으로 상여금 분규에 따른 경영손실을 차단하였고, 한국기업의 노동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 옴.



## 우루과이

### 인성실업의 몬테비데오항 국영 냉동창고 임대사업 입찰 및 운영 지원

#### 1. 사례 개요

- 우리 원양업체인 인성실업은 2008.5.27일 최근 증가하는 어획고 및 각종 기자재 등의 원활한 보관 및 공급시설 확보를 위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내 국영 냉동창고 임대사업에 입찰하고, 동 입찰 건에 대한 주우루과이대사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 － 현재 인성실업은 몬테비데오항을 기점으로 조업중인 우리 원양업체 중 최대규모의 기업으로 소속 선박 10여척이 포클랜드 근해 및 남빙양에서 오징어 및 크릴 등을 어획중
- 아울러, 인성실업은 2008.8.20일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임대사업에 대한 입찰을 수주한 이후에도 사업 운영에 대한 항만청의 정식 허가 지연으로 사업 개시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가 있음을 설명하고, 동건 해결을 위한 주우루과이대사관의 협조를 희망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7.2 주우루과이대사는 Victor Rossi 우루과이 교통공공사업부장관을 면담, 인성실업의 몬테비데오항 국영 냉동창고 임대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 2008.10.1 Fernando Puntigliano 우루과이 항만 청장및 인성실업 부회장을 관저오찬에 초청, 냉동창고 임대사업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 2009.2.18 주우루과이대사는 Fernando Puntigliano 우루과이 항만청장을 면담, 인성실업의 냉동창고 임대사업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 2009.5.7 주우루과이대사는 인성실업 회장과 함께 Victor Rossi 우루과이 교통공공사업부장관을 면담, 향후 인성실업의 냉동창고 임대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루과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8.8.20 인성실업은 우루과이 항만청으로부터 몬테비데오항내 국영 냉동창고 임대사업을 정식 수주
- 2008.12.31 인성실업은 우루과이 항만청의 임대사업에 대한 허가를 정식 획득
- 2009.4.1 인성실업은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를 종료하고 몬테비데오항 국영 냉동창고의 운영을 개시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기업이 외국정부 발주 사업에 입찰·수주하여 실제 운영함에 있어, 해당기업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를 접촉, 우리 기업과의 면담 주선 등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
- 인성실업은 2008.8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냉동창고 임대사업을 정식 수주한 데 이어, 2009년에는 우루과이 Canelones주 지역에 농수산물 복합가공단지 건설을 위한 투자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는 바, 재외공관 차원에서 이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경주할 예정

## 우루과이

### 포스코의 조림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승인 지원

#### 1. 사례 개요

- 포스코는 2009.2월 POSCO-URUGUAY 현지법인 설립 이후 기후 변화문제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우루과이 Cerro Largo 지역에 조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우루과이 국토계획주거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주우루과이대사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
  - 포스코는 기후변화협약상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2009.9~2014.12월간 총 20천ha 규모의 조림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초기사업으로 1천ha 시험식재를 통해 사업성을 확인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4 주우루과이대사는 Gonzalo Fernandez 외교부장관을 면담, 한-우루과이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동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루과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2009.7.30 동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계획주거환경부의 Carlos Colace 장관을 면담, 포스코측이 신청한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Carlos 장관은 환경영향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지시하겠다고 언급
- 2009.8.19 Carlos Colace 국토계획주거환경장관 및 포스코 우루과이 지사장을 관저오찬에 초청, 포스코의 조림사업 투자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투자확대 실시에 있어서도 우루과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8.4 우루과이 국토계획주거환경부가 포스코의 조림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승인함에 따라, 동 사업은 예정대로 9월부터 개시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투자사업을 실시할 경우 현지 국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대사관에서 관계부처의 고위급 인사를 접촉,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포스코는 우루과이내 조림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조속히 획득하여 예정대로 사업을 개시
- 우루과이는 농축산임업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로서, 포스코가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첫 CDM 사업으로 우루과이에서 조림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으로 평가

## 우즈베키스탄

### 부당관세 부과 사례 시정조치 지원

#### 1. 사례 개요

- 한국통신(KT)의 우즈벡 현지법인 「Super I-Max」는 2008.10월 무선인터넷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통신 모듈·케이블 등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18만 달러)를 납부
-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 관련법(21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판매 목적이 아닌 내부 생산 또는 내부 사용목적으로 관련장비를 수입할 시 관세가 면제되며, 관련 증빙서류는 수입일 기준 1년 안에 제출하면 된다”는 조항에 따라 「Super I-Max」사가 증빙서류를 2008.12월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既납입한 관세를 2009.3월까지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은 동사의 애로사항 파악 후 2009.3.23일 경제담당이 타쉬켄트 공항세관 ‘파이즐라예프’ 제1부세관장을 면담, 우즈벡 관세 당국의 동사에 대한 관세부과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
- 이와 함께 동 회사 법인장과 ‘파’ 제1부세관장 간 면담을 주선, 현안 당사자 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토록 조정
- 그러나 공항세관은 동 사가 증빙서류를 통관 당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사유를 제기하며 관세 환급을 기피하자, 대사관은 2009.3.31일 우즈베키스탄 ‘내각’·‘대외경제부’·‘경제부’·‘재무부’ 등을 상대로 동 사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송부
- 또한 2009.4.3일 공관 경제담당이 동 회사 법인장을 대동하고 우즈베키스탄 ‘사이호프’ 상공회의소장을 면담, 동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를 지속 접촉, 동건 해결을 독려

### 3. 공판 조치 결과

-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는 2009.4.20일 동 사 법인장을 초청, 양측은 기 납부된 관세를 동 법인이 향후 통신부품 수입시 관련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2009.4.23 일자로 관련서류에 양측 책임자가 서명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애로사항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공론화할시 우즈베키스탄 관계당국의 보복이 두려워 공판에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도 대우즈베키스탄 정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은 기피하는 실정임.
- 그러나 동 사례에서처럼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상대로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서한을 송부하고 관련인사를 지속 면담, 협조를 요청할시 애로사항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즈베키스탄

## 우리 기업에 대한 환전지연

### 1. 사례 개요

- 2009.7월 대사관이 분기별로 개최하는 ‘경제인협의회’에서 「아시아나」지점 및 일부 교민기업들이 심각한 환전지연 문제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관차원의 지원을 요청

\* 「아시아나」의 경우 2008.11월부터 환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7.22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은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대외경제부’·‘중앙은행’ 등 관련부처에 우리 기업에 대한 환전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외교서한을 발송
- 서한발송에도 우측으로부터 반응이 없자 공관장이 직접 우즈베키스탄 외환 관리감독 기관인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수차례 신청 하였으나 우측이 이를 회피해 오던 중 10.2일 ‘중앙은행측’은 공관장과의 면담의사를 통보
- ‘중앙은행’ 측은 면담의사 통보와 함께 환전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현황 자료를 요청, 대사관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기업 을 우선 선정하여 업체별 미환전 현황과 함께 ‘중앙은행’에 송부

\* △ 「아시아나」 (180만\$) △ 제조업체 「보우」 (77만\$) 「대우팩」 (65만\$) △ 무역업체 「토우」 (53만\$)

### 3. 공관 조치 결과

- ‘중앙은행’ 측은 면담 전달인 2009.10.8일 우리측이 제기한 4개 기업 의 환전을 일괄해결 하였다고 비공식적으로 통보하였음

- 한편, ‘중앙은행’ 측은 여타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금번 환전조치에 대한 대외 보안을 당부하였으며, 공관장과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 시에도 환전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의 빈약한 외환 보유고에 기인한 고질적인 환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환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우리 고위급 인사 방문시 우즈베크 고위인사에게 환전문제의 심각함을 거론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방법이 장기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임



# 우즈베키스탄

## 우리 수출면장 불인정 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6.12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은 실패에 사용되는 지관(紙管) 등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 ‘금성인터내셔널’ (대표:박양균)로부터 원료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 사실을 확인

### 2. 공관 조치 사항

- 애로사항 청취 후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경제담당관은 2009.6.16일 ‘금성’ 대표 및 직원과 함께 해당 기관인 ‘세르젤리’ 세관을 방문,
  - ‘세르젤리’ 세관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실정법상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한 것은 우즈벡 세관의 명백한 잘못이며,
  - 우리 기업이 한국 세관에 신고한 수출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부가세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실제 구입가 보다 세금이 더 많으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세르젤리’ 세관장은 1)우리 기업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건은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 2)부가세의 경우 우리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구입한 가격 및 수출시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한 가격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시 이를 인정하겠다고 답변
- 상기 면담 결과에 따라 금성이 수출시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하는 수출면장을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공증하여 우즈베키스탄 세관에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금성측으로 하여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우즈베키스탄 세관에 제출토록 조치

### 3. 공관 조치 결과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조치에 따라 금성은 우즈베크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우즈베크 현행법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도 받게 되었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안은 우즈베크 세관이 우리 수출면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로, 세관 관계자들은 중국의 수출면장 조작 사례가 많아 여타국가에서 발행한 수출면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함.
- 이러한 우즈베크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해당 기업 및 공관이 직접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관계자를 설득한 점이 문제해결에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됨.

## 이란

### 우리 근로자 억류 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이란에서 광산개발 시공을 해 오던 우리 기업 S개발은 2008.7월 광구내 막장 붕괴사고 및 이란 발주사와 계약 이행 과정상의 갈등으로 현지 이란 법원에 형사 기소됨.
- 또한, 이란 발주사측은 막장 붕괴사고 및 생산량 미달에 대한 4,671만 달러의 배상금을 S개발측에 요구하며 발주사가 보관 중이던 우리 근로자 5명에 대한 여권 반환과 비자 연장을 거부함.
- 2008.7월 S개발은 주이란대사관을 접촉하여 사건 경위 설명 및 근로자들의 안전한 철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단 4명을 파견, 붕괴 사고와 관련한 현지 법원의 심리에 응하며 진전 상황 수시 통보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7.3 주이란대사관은 S개발측에 법원 소환장 재확인 및 변호사 선임, 심리 연기 신청 등 우선적 대응 방안을 안내
- 2008.7.10, 7.20, 7.21 S개발 대표단 상담을 통해 협상 진전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공사현장에 체류 중이던 우리 근로자 신변 안전 대책을 강구
- 2008.7.23 이란 발주사측이 적법 근거 없이 강제 보관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여권 반환, 공정하고 적법한 형사 심리 진행을 요청하는 주이란대사관 명의 서한을 이란 외교부 및 동 사건 관할 법원에 발송
- 2008.7.29 주이란대사는 이란 외교부 탈레비파 한국과장을 면담, 계약 관련 claim은 당사자들 간 해결해야 할 일인 바, 근로자 신변 보호 및 안전한 출국을 위해 여권 반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 3. 공판 조치 결과

- 2008.8.1 우리 근로자들은 이란 발주자측으로부터 여권을 모두 환수하고 이란 발주사측은 형사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힘.
- 2008.8.7, 8.9 우리 근로자 5명은 당국으로부터 출국비자를 받아 출국, 전원 귀국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안은 사인(私人)간 계약 분쟁이라는 측면과 재외국민 보호차원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감안, 주이란대사관은 양측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조언해 나가면서도,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국을 위한 지원을 적극 제공함.
- 동 건 관련 이란측 협조를 받은 것은, 사인(私人)간 계약 분쟁과 민간인 보호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란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측 입장을 경청하겠다는 일종의 “신사약속”에 의한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측이 성실하게 분쟁 해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란

### 우리 기업 주재원 노동허가 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이란 노동법에 의해 이란 주재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노동비자를 갱신해야 하나, 위법행위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란 주재 대우 인터내셔널(2009.3월), SK네트웍스(2008.10월), 현대중합상사(2009.1월) 주재원들의 노동허가가 이란 노동부측에 의해 갱신이 거부됨.
  - 이란 노동부측은 수출 외국기업들에게 對이란투자 및 이란제품 수입을 통한 이란 산업 기여, 현지직원 채용 촉진 등의 명목으로 압박을 가해오며 노동허가문제를 외국기업 통제 수단으로 활용, 동건과 같은 사례가 매년 빈번히 발생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4.20 주이란대사는 Jahromi 노동부장관을 면담(상기 우리 지상사 대표 동행), 동 건과 같이 외국기업 활동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허가 조치를 요청함.
- 주이란대사관은 기타 정부 주요인사 접촉 계기에 동 건 해결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기업 관계자 접촉 및 애로 수렴 시 우리측도 이란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이란측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케끔 권고함.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6.2 SK네트웍스 주재원 2명 노동허가 연장 승인
- 2009.6.10 대우 인터내셔널 주재원 4명 노동허가 연장 승인
- 2009.7.1 현대중합상사 주재원 1명 노동허가 연장 승인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이란 노동부는 이란 경제에 기여가 별반 없는 대이란 “단순 수출업체”에는 굳이 노동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으며, 특히 우리업체들이 현지 지사가 아닌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로 영업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강경입장을 고수하여 왔고, 이란측의 관련 규정 합리성 결여 및 자의적 적용에 대해 외국 기업들로서는 사안별로 임기응변식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문제가 이란의 친기업 환경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 중의 하나로서 이란의 해외 투자유치 정책, 민영화, 산업기반 조성 등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이란 정부를 설득해 나갈 필요
  - 단,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란 상품의 수출과 현지 지사 형태를 지향할 필요도 있음.

## 이집트

### 노동허가(Work Permit) 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현대자동차 아프리카 지역본부는 현대자동차가 신흥 잠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현대차 판매확대를 위해 2008.1.1일부로 아프리카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2008.11.1일부로 두바이에서 카이로로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이집트 노동법의 work permit 발급제한규정(외국인 1명 근무에 현지인 9명 채용)때문에 업무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주이집트대사관에 지원을 요청. 또한, 아프리카 판매 강화를 위해 직원 1명이 2009.8월에 새로 부임하였으나 동일한 문제로 애로를 겪음에 따라 대사관에서 해결해 줄 것을 희망해 옴.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2.10 주이집트대사는 이집트 노동부장관을 면담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을 위해 카이로로 이전을 단행하였고, 조만간 직업훈련소를 설립하여 아프리카 전 지역에 현대자동차의 최신 기술을 전수할 계획임을 알리고 노동부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현대자동차 아프리카 지역본부 주재원 6명에 대한 work permit 발급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 2009.9.2 현대자동차 신임본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아프리카 판매 강화를 위해 직원 1명이 새로 부임하였으나 work permit 발급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대사관에 해결을 요청해 옴에 따라 9월 중순 부임 예정인 신임 주한 이집트대사에게 work permit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부의 협조를 요청. 노동부에도 현대자동차 아프리카 지역본부가 아프리카 58개국을 관장하고 동지역에 대한 한국생산 및 이집트조립 현대 차량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신규 부임직원에 대한 work permit 발급을 요청하는 서한 송부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4.28 이집트 노동부는 노동법의 work permit 발급제한규정에  
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아프리카 지역본부 주재원 6명에게 work  
permti 발급
- 2009.11.4 이집트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아프리카 지역본부 신규 부임  
직원에게도 work permit 발급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이집트 관행상 기업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라도  
대사관이 적극 나서서 요청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대사관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예외적인 결과도출에 성공함.



## 이집트

### 원산지 기준 충족을 통한 무관세 수출

#### 1. 사례 개요

- **2009.3.25** LG전자 이집트 법인은 1/4분기 통상투자진흥협의회에서 최근 생산 판매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LCD/PDP TV를 남동아프리카 공동시장(COMECA), 아랍자유무역기구(GAFTA)에 무관세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으나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부품율이 40%이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산업개발청이 이집트(원산지) 생산부품에 대한 인정율을 낮게 산정하여 무관세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사관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를 희망
- **2009.6.29** 주이집트대사와 이집트 통상산업부장관 공동 주재로 개최된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오찬간담회에서 LG전자 이집트 법인은 이집트 생산부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비율의 탄력적 운용을 건의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참석한 산업개발청장에게 적극적 검토 지시
- **2009.6.31** LG전자 이집트 법인은 이집트 산업개발청으로부터 이집트 LG전자공장에서 생산되는 LCD/PDP TV 부품에 대해 원산지 부품율 40%이상을 승인을 받아 7월부터 COMESA와 GAFTA에 무관세 수출 개시

#### ○ 관련 내용

COMESA는 가입국에 따라서 25%~60%의 관세를 부과하고, GAFTA는 가입국에 따라서 5%~45%의 관세를 부과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4.1** 주이집트대사는 이집트 투자부장관 면담 시, LG전자 이집트 법인의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해결방안 검토 요청

- 2009.6.16 주이집트대사는 이집트 통상산업부 장관 면담 시, LG전자 이집트 법인의 애로사항과 함께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동 장관은 대사관과 통상산업부 공동 주재로 우리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 2009.6.29 주이집트대사관과 통상산업부 공동 주재로 우리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LG전자 이집트 법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6.31 이집트 산업개발청은 LG전자 이집트 법인의 LCD/PDP 현지 생산부품에 대해 원산지부품을 40% 인정
- 2009.7 LG전자 이집트 법인은 COMESA와 GAFTA지역에 LCD를 월 4천대(150만 달러)이상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모듈 부족으로 주문만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나, 동 문제가 해결될 2010년에는 월 1만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을 면담하고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한 결과 기업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을 대사관이 적극 나서서 중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함.

## 이탈리아

### 우리 지상사의 연금 납부 면제상 애로 해소

#### 1. 사례 개요

-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간 사회보장협정이 2005.4월 발효되고, 양국 해당기관 간 행정약정이 2006.1월에 서명되었으나, 2008년 상반기 기준 우리 지상사 주재원 48명이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연금납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주이탈리아대사관은 2008년 중 이탈리아 사회보장청 등과 10여차례의 접촉을 통해, 우리 지상사 직원들이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연금납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 납부 연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년 상반기 중 주이탈리아대사의 이탈리아 사회보장청장 면담 등 10여 차례의 협의를 진행함.
- 이후 사회보장청의 협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동 건 이행에 큰 진전이 없어 사회보장청 측에 협조를 재차 당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우리 업체에도 2009.4월까지 관련 사항을 수차 안내함.

#### 3. 공관 조치 결과

- 2008.4월 이탈리아 사회보장청은 기존 비수혜자의 연금 납부 면제 및 기납부 연금의 환급 조치를 취하여 주기로 함.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2008~2009년간 우리 지상사에 연금 납부 면제 절차 및 기납부 연금 환급을 위한 절차를 수차례 안내한 바, 2009.10월 현재 우리 지상사들의 특별한 애로 사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이탈리아에서는 행정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일선 부서의 업무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와 법적, 제도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합의 사항이 일선 실무부서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 바이오매스 조림허가 검토지연 애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9.3.6**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시 20만ha우드펠렛 조림지 확보 MOU를 체결하였는바,
  - PT. Bara Indoco는 동 MOU의 후속사업중 하나로서 서부술라웨시주 마무주군 7.1만ha에 대한 조림허가를 추진
- **2009.5월초** 군수 추천, 주지사 추천을 획득하고 산림부에 조림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산림부 산지계획청 등 내부검토, 조림허가 사업설명회 개최 지연 등으로 애로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산림부 산림개발청장, 산지계획청장 및 담당 국장을 면담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허가 진행 촉구서한 발송
  - 2009.5.19 산림부 조림국장, 5.22 산림개발청장, 5.26 조림국장, 5.29 산지계획국장, 6.16 산지계획청장 면담
- **2009.5.19** 산림부에서는 20만ha 우드펠렛 조림MOU 후속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검토 및 추천을 요청하여 왔는바, 2009.5.29 우리 산림청 동의를 받아 추천서 발송
- 조림허가 절차 중 중요 단계인 산림부내 13개 부서 국장이 참석하는 사업설명회 개최(2009.7.31)에 대비하여 2009.7.22~30일까지 각 부서국장을 면담하고 사전 설명 실시
- **2009.7.29** 주인도네시아대사가 카반 산림부장관을 면담,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동 허가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 촉구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7.14 지연되었던 검토가 완료되어 2009.7.31 사업설명회를 통과하고, 2009.9.14 인도네시아 산림부로부터 예비허가(SP-1) 획득  
 - 현재, 이후 절차로서 150일 기한으로 환경평가 실시 및 조림기금 납부 후 최종허가를 받게 될 예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조림사업을 위한 허가는 절차가 복잡하여 허가절차 검토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금번 사례는 양국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그간 구축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상대적으로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음.
- 앞으로 20만ha 우드펠릿 조림투자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속한 허가조치 등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

#### 1. 사례 개요

- 인도네시아 의류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봉제기업들에 대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세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왔으며 몇년에 걸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
- 2003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 2008.7월까지 의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논의 진척 없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8.25 국세청에서 세무전문가를 파견 받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관련 과세당국 및 인도네시아 국회와의 협상 전담 지정
- 2008.11.27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아시아 의원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인도네시아 국회 세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Melchias Mekeng)간 면담 주선
  - －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국제적 과세기준으로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바람직하며 조속한 통과 요청
- 2008.12.4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Sri Mulyani)과 면담,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 2008.12.15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인도네시아 세법개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소위원회 위원장(Vera Febyanthi)과 면담,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 － 국제적 사례 및 부가가치세 과세기 경제효과 등 자료 전달

- 2009.2.5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봉제협회 관계자 간 3자 합동 회의 개최
  - 6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 확인
- 2009.4.27 주인도네시아대사는 락소노 국회의장을 면담,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 2009.5.13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대통령 특사와 국회의장 간 면담 주선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해 국회차원의 전폭적 지원 요청
- 2009.5.26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세법개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개정 소 위원장과 재면담
- 2009.6.16 주인도네시아대사는 락소노 국회의장 재면담, 마지막 회기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차원 협조 당부
- 2009.7월 이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최종 법률안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경위원회 논의 진행상황의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9.16 인도네시아 국회,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통과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기업들의 오랜 세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세무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



-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의원외교, 대통령 특사와 인도네시아 고위 인사와의 접촉 등 우리 정부 역량의 전략적 활용 성과임.
- 우리 교민과 기업들의 권익과 이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 행정부 위주의 로비에서 벗어나 법률 제·개정 등 입법적 해결을 위한 대사관의 대 입법부 활동 노력의 성공 사례

## 인도네시아

### 지역 정부의 준공 허가 지연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PT. Solar Park Indonesia는 중부자바 워노소보군에 위치한 우드펠렛 제조기업으로 2009년 초 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시범생산 중
- 한편, 워노소보 우드펠렛 공장부지 획득 및 설비 시설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인 컨설턴트가 개입하여 공장부지 매입비를 일부 편취하고, 공사비를 더 받아낼 의도로 공사를 고의 지연시키는 등 신속한 준공허가를 받는데 애로 발생
- 준공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본격적인 생산·공급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동 기업에서는 워노소보군 및 지역경찰에 진정하는 한편,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3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경찰영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역경찰서장 및 군관계자를 면담하고 동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4월말 워노소보군 지역경찰의 협조로 시공자가 조기에 공사를 마감케 하는 등 사건 해결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경찰 및 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유사한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

## 인도네시아

### 한국산 수입소주 과세가격 인하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년도 이후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한국산 수입소주의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인 박스당 10달러를 인정하지 않고 13.6달러로 자의적으로 높게 결정하여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
-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입업체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지 동포들은 부당하게 고가로 판매되는 소주를 소비하여 왔으며, 이러한 고가의 소주가격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소주 밀수 등 불법거래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
- 특히, 금년 5~6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서 한국산 소주 밀수 등 불법거래를 수차례 적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소주 불법거래 해소 및 건전한 소주유통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 관련 업체 및 한인 음식점에서 소주 과세가격 인하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건의
  - － 소주 과세가격 인하문제는 관련 수입업체, 한인 음식점은 물론 교민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10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한국산 수입소주의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인 박스당 10달러로 인하조정해 줄 것을 요청 하는 등 협의
  - ※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대사관에 통보
- 2009.6~7월 대사관에서 한국산 소주 밀수방지를 위한 관련 업체 대책회의 개최 및 애로사항 등 협의 (4회)
  - ※ 2009.5~6월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 한국산 소주 밀수 등 불법거래를 수차례 적발한 사실이 인도네시아 언론에 보도되는 등 동포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되었음
- 2009.6.17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 인사를 초청하여 소

주 불법 거래방지 및 건전유통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업계 애로사항 건의

- 2009.6.23 대사와 Anwar 관세청장 간 면담을 통해 대사관 및 관련 업계의 건전한 소주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소개 및 합리적인 소주 수입 과세가격의 인하 조정 요청
- 2009.7.23 대사관에서 소주회사 본사 관계자와 함께 인도네시아 관세청을 방문 실제 거래가격 설명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2009.7.30 수입 소주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인하조정 (3.6달러/박스→10달러/박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제출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8.13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 대사관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산 소주의 과세가격 인하·조정 시행
  - 조정전 : 13.6달러/박스 → 결정 후 10달러/박스 (20병/박스)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본 사례는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간 고위급 초청 설명회 개최, 대사와 관세청장 면담, 한국 수출자로부터 입수한 가격자료 제출 등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갖고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루어 낸 성과로,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간 최초의 협력 성공사례로 평가
- 수입 소주 과세가격의 인하로 소주의 유통가격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업체의 오랜 통관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소주 밀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건전한 소주 유통거래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청두

### 사천휴비스 천연가스 공급량 확보 지원

#### 1. 사례 개요

- 사천성 자공시에 위치한 화학섬유 생산회사인 사천휴비스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감소시키겠다는 자공시 가스 공사의 통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자공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도
- 그러나, 천연가스 공급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사천성 경제위원회의 비준이 필요하고, 또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천연가스 공급량과 가스압력이 대폭 줄어들어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주청두총영사관의 지원을 요청(2009.11월)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1.13 주청두총영사관은 사천성 경제위원회측을 접촉,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요청
  - － 협조 서한 및 경제위원회 주임에게 총영사 명의 개인 서한 발송
- 2009.11.17~26 총영사관은 사천성 경제위원회 주임실 및 담당부서(경제은행처)를 수차례 접촉, 동 사안 관련 교섭 진행
  - －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시키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 2009.11.27 총영사관은 사천성 경제위원회 경제은행처 처장을 접촉,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1.20 사천성 경제위원회 주임은 관련 사항을 담당부서인 경제은행처에 하달, 원만한 처리 지시

- 2009.11.27 경제위원회 경제은행처장은 현재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경제위원회 주임 또한 동 건을 중시하고 있어 천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2009.12.1 사천성 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여타 화학비료공장에 대한 가스 공급량을 줄여서라도 휴비스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사천성 자공시 내 가장 큰 규모의 외자기업이자 사천 지역에 진출한 대형 생산기업인 사천휴비스가 불안한 가스공급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에 처할 경우, 향후 사천성에 진출하게 될 여타 한국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천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및 신속한 조치 유도

## 칭다오

### 공장가동 금지 조치 철회

#### 1. 사례 개요

- 산둥성 치박시에 소재하는 A사는 타일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고 있음.
-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중 일부종목이 치박에서 개최 되면서, 도자기공장 200여개 중 환경오염이 심한 30개 회사는 15일간 공장가동 중지처분을 받은바, 동 회사 중에 속하게 되었음.
- 2009.10.9 주칭다오총영사관은 동 회사는 환경설비를 갖추고 환경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만약 15일간 생산이 중지되면 한국의 거래처로부터 발주 받은 물량을 맞추지 못하여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임을 호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0.9 외사판공실 및 환경보호국에 동 회사의 경영손실 우려를 전달하고, 동 사가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업체임을 감안하여 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공문으로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0.13 환경보호국은 전국체전 기간중 환경오염배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제로 계속 영업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사판공실을 통해 계획을 취소하였음을 알려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회사가 이미 환경오염 예방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환경오염 예방 규정 이행에 노력해온 점을 뒤늦게 인정받은 경우로서, 기업경영상 항상 규정사항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 칭다오

### 과수농장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

#### 1. 사례 개요

- 산둥성 교남시에 소재하는 청도문경농산유한공사는 40만평의 부지에 과수농장(배나무)을 운영
- 교남시에서는 배 과수원에 인접한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계획하고 터파기 공사에 착수
- 2009.4.10 동 회사는 총영사관에 쓰레기장 건립시 과수 생산량 감소 및 해외에 배 수출시 증금속 검출 등을 우려하며 지원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4.10 주칭다오총영사관은 청도시 외사관공실 및 교남시에 공사 착공 단계에서 사전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것을 공문으로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5.8 교남시 정부는 공사 착공시부터 오수침하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 운반 및 매립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과수농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과 조치계획에 합의하였음을 서면 통보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교남시 정부가 쓰레기매립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없음을 미리 파악하고, 최대한의 피해예방에 초점을 맞춰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아울러 만약 피해가 발생할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결과, 원만한 선에서 업체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었음.



## 카메룬

### 수입장비 통관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한국기업 K사의 카메룬 자회사인 G사에서 현장 사금 생산을 위한 선별기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2009.9.15~19일 두알라 항만을 통해 통관을 진행하던 중 카메룬 세관 직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수속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컨테이너 사용료 추가부담 및 생산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되자 회사측에서 주카메룬대사관 협조를 긴급히 요청하여 주카메룬대사관에서 해당 세관 직원을 직접 설득, 신속한 대응으로 기한 내에 무사히 통관을 마칠 수 있었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9.17 오후, 회사측 연락을 받고 일단 주카메룬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안심을 시킨 뒤, 해당 세관 책임자의 연락처 및 소재를 파악하는 대로 즉시 연락해 줄 것을 요청
- 2009.9.18 오전,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세관책임자와 접촉하여 한국과 카메룬 양국 간의 통상 및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해당 회사인 G사를 포함한 카메룬 내의 한국 기업의 자본 및 시설투자, 기술협력 등이 카메룬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들어 세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카메룬 세관 책임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결과로 G사의 통관이 그 날 즉시 재개 되었고, 토요일인 다음날도 세관측의 이해적인 협조로 장비 통관이 깨끗하게 마무리 되었음.
- G사의 통관이 예정대로 이루어져서 추가 수수료의 부담이나 일정의 차질없이 생산현장의 장비수급이 이루어졌고 G사의 본사로부터 감사의 연락을 받았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최근 카메룬 내 한국기업들의 사업 장비 및 물자의 수출입이 잦아짐에 따라 통관 관련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 카메룬 세관의 시스템 및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점과 일부 기업들의 통관에 대한 정보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관에서는 한국기업들과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협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카메룬

### 카메룬 유명기업에 의한 교역사기 대응

#### 1. 사례 개요

- **2009.4월** Top Sales SARL라는 카메룬의 유명기업이 우리나라 A사(서울시 소재)에 카메룬 보건부가 2010년 월드컵 대비 말라리아 퇴치 운동 홍보용 T-셔츠 200만장을 국제입찰로 구매하려 한다는 허위정보를 제공
- **2009.5월초** A사는 샘플, 디자인, 입찰구비서류를 카메룬으로 우송하였고, 가공의 보건부로부터 계약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이후 A사는 계약대리 변호사 수입료 등 여러 명목으로 Top Sales SARL이 수회에 걸쳐 요구한 총 미화 59,700달러를 송금
- A사는 Top Sales SARL이 추가로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에서 반테러 기부금 10만 달러(invoice 총액의 1%)를 요구한다는 요청을 받고서야 주카메룬 대사관을 접촉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국제무역 사기라는 것이 밝혀짐.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6월** 주카메룬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예방법 등을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외교부 본부에도 보고하여 적극 홍보토록 요청하고, 특히 이들 유명기업들이 KOTRA 홈페이지의 Buying Offer 란을 악용하는 것을 파악하고 KOTRA에도 주의를 당부하는 서한 송부
- **2009.7.2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카메룬 경찰청 차장과 INTERPOL 책임자를 면담하고, 아울러 외교서한을 통해 범인 검거 등 협력을 요청

### 3. 공판 조치 결과

- 카메룬 경찰당국은 범인 검거를 위한 정보 수집차 주카메룬 대사관에 담당수사관을 2차례 파견
- 현재까지 경찰에서 수사 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대부분의 유령기업들은 초기에는 매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옴.  
즉 각종 위조서류와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우리 기업들을 안심시킨 후, 이런 저런 명목으로 소액 송금을 요구함.  
- 우리 기업들은 초기에는 부담없이 소액 송금에 응하다가 점차 큰 금액을 송금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임.

## 케냐

### 한국직원의 케냐 근무를 위한 노동허가 취득 지원

#### 1. 사례 개요

- 케냐에 소재한 한국 투자기업운영을 위해 한국 직원 파견시 현지 근무를 위한 노동허가(Work Permit) 취득에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애로가 있었음.

※ 케냐는 영주권 제도 없음.

#### 2. 공관 조치 사항

- 코트라 나이로비 무역관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노동허가(Work Permit) 발급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케냐 투자청(KIA; Kenya Investment Authority)에 협조를 요청함.
- 케냐 투자청은 코트라의 협조요청에 대해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최근 현지 우리투자기업인 A사의 본국파견직원에게 대해 신속하게 노동허가를 발급

#### 3. 공관 조치 결과

- 노동허가(Work Permit) 발급 기간이 기존 3-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당지 주재 우리 기업의 애로 발생시 대사관/KOTRA에 협조를 요청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콜롬비아

### 골든오일 석유 광구 탐사·생산(E&P)계약 조건 완화 지원

#### 1. 사례 개요

- 골든오일이 2008.12월 석유탐사광구 3개를 낙찰 받고 2009.3월 콜롬비아 석유청(ANH)과 계약을 추진하던 중 계약보증금 문제로 난관에 처한 바, 주콜롬비아대사가 ANH측에 요청하여 양측이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하에 계약을 선 체결토록 함.
  - － 통상 3년간 투자 금액의 10% 보증금 관행과는 달리, ANH는 50%의 보증금을 요구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3월 지식경제부 차관의 콜롬비아 방문시, 주콜롬비아대사가 ANH 청장 면담 기회에 동 건을 제기한 결과, 계약 보증금 문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 하에 골든오일과 ANH간 석유 탐사·생산(E&P)계약 3건을 서명함.

#### 3. 공관 조치 결과

- 골든 오일의 석유 탐사광구 3건 계약 성사
  - － 2009.11월 현재, 현지 콜롬비아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참여시켜 계약보증금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협의 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석유 탐사·생산(E&P) 계약 조건은 콜롬비아 정부가 상황에 따라 외국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관의 역할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음.

## 콜롬비아

### 현지 터널공사 입찰 부적격판정 철회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11월 POSCO건설의 콜롬비아 「La Linea 터널공사」(약 3.5억불 규모) 입찰 제출 서류에 대해 콜롬비아 도로청(INVIAS)이 부적격 판정을 하였으나 주콜롬비아대사관의 노력으로 동 판정이 철회됨.
  - － POSCO건설의 입찰서류는 총 2,00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이었으며, POSCO건설은 동 서류에 대하여 우리 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콜롬비아 도로청에 제출하였으나, 콜롬비아 도로청은 콜롬비아 정부가 인정한 공식 번역사에 의해 번역이 되지 않았고, 콜롬비아 영사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콜롬비아대사관은 우리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확인한 문서를 기각하는 것에 국제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POSCO 건설 서류 자격 미비여부 판단 문제는 국제조약의 해석대상이므로 콜롬비아 도로청이 최종 결정권한이 없으며 양국 외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찰절차를 잠정 중단 해줄 것을 요청함.
  - － 콜롬비아 외교부, 교통부, 도로청 등에 관련 서한 송부
  - － 상기 서한 사본을 POSCO건설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콜롬비아 대통령실, 상공부 등 고위인사에게도 전달
  - － 주콜롬비아대사의 콜롬비아 외교부 아주국장, 영사국장과의 수시 면담 및 통화를 통한 콜롬비아측의 시정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8.11월 APEC 회의 계기 한-콜 양국 정상회의시 우리측이 동 건을 제기하기에 앞서 Uribe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에게 콜롬비아 상공차관에게 동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특별 지시하였음을 언급

- 2008.12월 POSCO건설은 16개 입찰 참여 업체 중 최종 4개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인정됨.
  - 동 건으로 콜롬비아 고위인사들은 우리공관의 역할을 콜롬비아 외교관이 배워야 할 귀감이라고 언급하였다는 후문
  - POSCO건설은 다른 최종 선정 3개 기업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La Linea 터널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하였으나, 콜롬비아 입찰 참여 경험을 쌓고 콜롬비아 정부 및 건설업계에 서 상당한 인지도를 구축



## 콜롬비아

### 콜롬비아 지상사 차량 통행 제한 철폐 지원

#### 1. 사례 개요

- 보고타시는 보고타 내 교통체증 대책으로 요일별 차량운행제(Pico y Placa)를 운영(주중 3일만 운행 가능)함에 따라 콜롬비아 주재 지상사들이 애로를 토로한 바, 보고타시경에 요청하여 우리 지상사별 최소 1대는 운행제한제의 적용을 면제받도록 함.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콜롬비아대사관은 콜롬비아 경찰측에 최소 1개사에 차량 1대는 면제 차량이 있어야 기본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협조를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한국타이어, 세라젼, 현대자동차, 현대종합상사의 대표차(1대)는 요일별 차량운행제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

## 콜롬비아

### SK의 對콜롬비아 진출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년 하반기 SK에너지의 콜롬비아 석유탐사광구 3개 낙찰과 더불어 SK그룹의 대콜롬비아 진출 관심이 증가한 바, 주콜롬비아대관은 SK회장-Uribe 대통령과 면담, SK에너지-Ecopetrol(콜롬비아 최대 석유사) 간 면담 등 주선을 통하여 SK의 대 콜롬비아 진출을 지원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콜롬비아대사관은 SK회장과 Uribe 대통령간 면담을 주선했.
  - SK는 석유개발, 광물개발, 플랜트 건설 등 분야 협력 희망 피력
- 대사관은 SK에너지 간부와 Ecopetrol 부사장간 면담을 주선 (2009.2.17)함.
  - 양 석유사 간 장기적 차원의 협력 방안 협의

#### 3. 공관 조치 결과

- SK에너지-Ecopetrol 간 장기적 차원의 협력 프로젝트 모색중임.
  - 2009.7월 양 기업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 SK건설의 Ecopetrol 정유공장(바란까베르메하 소재) 시설 현대화사업 참여 협의중임.
  - SK건설은 입찰참가 예비심사(Range 2 PQ)를 통과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기업의 對콜롬비아 정부, 기업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

## 크로아티아

### 중소형 선박제조 업체 투자진출 지원

#### 1. 사례 개요

- 국내 중소형 선박제조 업체 바칠라캐빈社は 크로아티아 시베닉 소재 Sibnaval社와의 합작투자를 모색한 바, 각종 인허가 문제 및 외국 업체 투자 관련 법령 등과 관련 본격적인 투자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크로아티아대사는 2008.11.26일 시베닉시를 직접 방문하고, 시장 및 시개발청장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업체 바칠라캐빈社の 투자진출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
- 특히, 바칠라캐빈社の 진출이 성사될 경우 300만유로 상당의 자본 및 설비투자자와 20명 규모의 우리 기술진이 투입되어 시베닉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 또한, 바칠라캐빈社가 진출하는데 있어 최대 애로사항중의 하나인 외국업체 직원에 대한 크로아티아에서의 노동사증 취득이 쉽지 않으며, 가족동반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

#### 3. 공관 조치 결과

-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시베닉 시정부는 바칠라캐빈社와 Sibnaval社 간 합자에 있어 제도적 법적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 특히, 주크로아티아대사의 우리 업체 진출에 관한 애로사항 등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서 현지 재계에서도 우리나라 업체의 현지

진출 모색 노력과 이에 대한 현지투자환경 개선 필요성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현재 바칠라캐빈社は 사내 다른 이유로 인해 시베닉에 대한 투자진출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베닉 현지의 투자환경은 보다 개선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

## 태국

### 지방도로 건설 관련 민원 지원

#### 1. 사례 개요

- 현지 진출한 물류업체 A사는 최근 태국 교통부가 동사 물류창고 바로 앞을 지나는 지방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에 커다란 차질 발생 우려
- 2009.4월 동 A사는 수차례 태국 교통부에 노선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원활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주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태국대사관 담당관은 2009.4.1일 태국 교통부 지방도로과 (Rural Road Department) 과장을 접촉하여 (1)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2) 동 A사의 지역경제 기여 (고용, 수출 등)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

#### 3. 공관 조치 결과

- 지방도로과장은 일단 도로계획심의회의 의결을 마친 사안이라 노선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전제하면서, A사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변

## 태국

### 항공기 말소 등록 지원

#### 1. 사례 개요

- SkyStar Airways(태국법인)는 2007년부터 투자자를 모집, 교보증권과 현대증권이 공동 투자한 항공기 1대를 포함, 총 4대의 항공기로 방콕-인천 간 운항
  - 2008.4월 교보증권과 현대증권은 GrandStar를 설립, SkyStar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767-200 항공기 1대 임대
- 2008.11.27 SkyStar Airways 부도 및 대출금 미상환
- SkyStar Airways 부도와 관련, 교보증권과 현대증권이 공동으로 SkyStar Airways 측에 임대한 항공기의 말소등록 신청
- 2009.2.28 항공기 소유권자인 GrandStar는 SkyStar Airways에 리스계약해지를 통보하고 SkyStar측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선언에 대한 확인서'와 '항공기 말소등록위임장' 징구
  - ※ 항공기 및 건설기계장비 등 초기에 막대한 자금투입이 필요한 산업리스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대출금을 완전 변제하기 전까지 소유권은 임대인 몫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계약이 유지되며, 항공기의 경우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운항 및 신규등록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2009.3.9 Grandstar는 태국 교통부 민간항공국에 말소등록위임장을 첨부,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
  - 민간항공국은 항공기 말소등록은 당초 등록을 한 SkyStar Airways 측에 있으며, 소유권자인 Grandstar는 말소등록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 2009.8.28 GrandStar, 2009.8.7일 말소등록 재신청하였으나, 민간항공국으로부터 SkyStar Airways 보다 상위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으라는 공문 접수
- 2009.9.1 교보증권과 현대증권은 동 말소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

## 2. 공판 조치 사항

- 2009.9.11 주태국대사는 태국 민간항공국장을 면담, 해당 항공기 소유권은 GrandStar에 있고 GrandStar가 SkyStar로부터 ‘항공기 말소등록위임장’을 징구하였으므로 말소등록 권한이 있음을 주장함. 아울러, 임차항공사의 채무불이행(Default)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유권자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국제관례를 들어 동 건을 조속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주태국 대사관 경제담당관, 태국측 법률전문가 등 관계자 4명 배석)
- 민간항공국장은 태국 항공규정에 말소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일반적인 법관행에 따라 등록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동 말소권한은 등록자인 SkyStar측에 있다고 말함. 또한, 등록자인 SkyStar측이 ‘항공기 말소등록위임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 말소위임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동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민간항공국이 중재자가 되어 양측의 화해를 통해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우리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항공기 운항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해 지는 점을 설명하고, 민간항공국 차원에서 기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당부

\* 대사관은 동 처리를 위해 태국 민간항공국 및 해당 금융기관과 수시 접촉함

## 3. 공판 조치 결과

- 주태국대사관의 항공기 리스계약 특성, 국제관례 및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끈질긴 설득 결과, 태국 민간항공국은 2009.11.4 법원의 ‘긴급재판’을 통해 동 항공기에 대한 말소 및 신규 등록을 지급(2009.11.4 당일) 처리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에서 해당국가가 자국회사 보호를 우선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해 기업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지난할 수 있음. 정부 및 현지공관과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절약, 최대효과 획득 등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음.
- 항공기 말소등록에 관한 국제관례에 의하면 임차항공사(Lessee)의 채무불이행(Default)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유자 보호를 위해 동 소유자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 우리나라 항공법(제12조 말소등록)은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을 규정
- 태국측은 항공기 소유자(GrandStar)가 ‘말소등록위임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법인(SkyStar) 보호를 위해 동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법원의 ‘긴급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동 건을 지급(당일) 처리함.
- 금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민간항공국은 항공규정에 ‘말소등록’ 조항을 추가, 2009.11.1 이후 신규 등록하는 항공기는 임차인(Lessee) 또는 임대인(Lessor)이 항공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파라과이

### 금호타이어 대리점 자산보호 법정소송 지원

#### 1. 사례 개요

- 금호타이어 파라과이 대리점은 파라과이 유력기업인 Raúl Doutreleau 소유 대지를 임차해 영업활동을 해오던 중 임차료 인상을 문제로 2008.5월 퇴거되게 됨에 따라, 대지에 영업을 위해 건립한 사무실·작업장 건축자재(조립식 건물)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Doutreleau가 동 가건물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키 위해 판사 등에게 정치적 압력과 매수를 통해 2008.9.23일 동 가건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판결문을 받아냄.

※ Doutreleau는 파라과이내에서 비윤리적인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관계·재력을 이용, 금호의 자산을 불법·노골적으로 탈취 시도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파라과이대사관은 동 건이 사인 간 법적소송이라 직접 관여를 지양하고 금호가 변호사를 통해 대응토록 하였으나, 2008.9월 1심 판결문이 금호의 항소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내외국인의 기본권리 침해로 보고 2009.1.26일 공문을 통해 파라과이 외교부에 이의 제기 및 공정한 재판을 희망
  - 사법부 문제인 점을 감안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외교부 법률국장과 정식 공문으로 이의 제기 방법·내용 협의
- 2009.1.28 주파라과이대사는 Nuñez 대법원장 면담 기회에 동건의 원만한 해결 지원 요청
- 2009.2.6 주파라과이대사는 Lopéz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기회에 동건의 원만한 해결 지원 요청
- 2009.2.9 주파라과이대사는 Heisecke 상공장관 면담기회에 동건의 원만한 해결 지원 요청

- 2009.3.3 주파라과이대사는 Doutreleau 변호사의 요청으로 면담기회에 동 건의 합리적 해결을 권고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6.25 고등법원에서 1심판결에 대한 금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 금호측의 자산반출 권리 인정 판결
  - 그간, 파라과이 외교부·상공부와 대법원 간 수차례 회합, 협의한 결과
- 2009.7.15 Doutreleau 측은 대법원에 상기 고등법원 판결문의 위헌심사요청 및 판결무효 상소원 제출
  - 현재, 대법원에서 상소 수락여부 검토 중 (금호측은 동 사안은 법률적으로 대법원 상소가 안된다는 입장)
  - 2009.10.5 주파라과이대사는 Fretes 대법원장 면담기회에 금호측 입장 전달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파라과이 판사들 다수가 정치적 압력과 뇌물에 따라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 사법부는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바, 이에 현 정부는 사법부 개혁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
- 우리 기업들이 파라과이에 신규 진출시 사업파트너, 변호사 선정시 보다 세심하게 인물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파라과이

### (주)정보 파라과이 육가공 공장 설비반입 및 수출허가 취득기간 단축

#### 1. 사례 개요

- 2008.1월 (주)정보는 파라과이 Concepción시에 육가공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계획서(약 250만 달러)를 제출하였으나, 투자승인이 계속 지연되어 생산·수출계획에 차질과 반입설비·물품에 대한 보증보험료의 장기간 납부로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2008.9월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해 옴.
  - － 투자승인은 평상 3~4개월 이내 소요되나, 파라과이 정권교체 분 위기(2008.8.15 신정부 출범), 비능률적인 행정·관료들의 부패가 부당한 지연요인이 됨.
  - － 투자법에 의해 무관세로 반입된 설비·물품에 대해서는 정식 투자승인이 날 때까지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함.(매일 가산됨)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9.18 주파라과이대사는 신 정부의 Heisecke 상공장관을 직접 면담, 외국인 투자업체로서 (주)정보의 상기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 요청
  - － Heisecke 장관은 담당관들을 불러 신속히 처리토록 지시
- ※ 동 장관은 취임전인 2008.6.1~5일간 Lugo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자를 수행하고 방한한 인사로 매우 친한적 인사
- 2008.12.1 주파라과이대사는 상공부 절차가 완료된 후 관계부서인 재정부·관세청에서 또다시 업무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Heisecke 장관에게 요청, 상공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주)정보건을 전담해 모든 관계부서와의 업무를 처리토록 함.
  - － 이후, 파라과이측 착오로 투자승인서에 일부 반입설비·물품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동 누락부분에 대한 투자승인 문제도 지원

- 이후, (주)청보가 투자승인에 따라 생산한 육가공품(갈비탕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동물검역청의 승인이 필요하나, 위생검역팀 공장방문 지연 및 각종 불요한 서류요구로 수출이 계속 지연되자,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
- 2009.3.19 주파라과이대사는 동물식품검역청 (SENECSA)의 Corrales청장을 면담(이후 수차례 통화), 신속한 처리 요청
  - 이에 따라, 위생검역팀 (주)청보공장 방문 실사, 일부서류 면제 등 조치가 이루어짐.

### 3. 공관 조치 결과

- 현재 (주)청보는 반입설비·물품에 대한 보증보험료 납부 부담이 해제되고, 위생검역 등 수출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한국·중국으로 수출 개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최근 對파라과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우리 국내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파라과이 현 정부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비능률, 부패현상이 남아 있어 파라과이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서류 제출시부터 초기에 (주)청보와 유사한 애로를 겪게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사관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파푸아뉴기니

## 한중발전소 사용연료 수입 관련 불리한 법제도 개정 애로 해결

### 1. 사례 개요

-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한중발전소의 발전 연료인 중유의 유허성분 함량기준을 대폭 낮추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제정·시행(2009.1.28)함에 따라 발전 중단 위기상황이 초래된 것과 관련, 한중발전소는 법원에 제소(2009.3월)하였으며, 이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정부 측은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함.

#### ○ 관련 내용

- 법 개정 내용 : 유허성분 함유량 0.35% 초과연료 수입금지
- 현 사용 발전연료 : 유허성분 함유량 3.2% (0.5% 이하 중유 사용불가)
- 현 중유 공급자(InterOil사) 보유재고량 2009.5월 말경 소진 예상
- 2009.3월 말까지 중유 발주 진행 못 할 경우, 2009.5월 말이면 발전소 가동 중단 불가피

※ 한중발전소(Kanudi Hanjung Power Ltd.)는 1999.4월 준공 이후 수도권 지역 전력의 약 30%를 공급(24 MW 전력 생산)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15년간 판매 후 파푸아뉴기니에 이전 예정

### 2. 공판 조치 사항

- 2009.2.19 한중발전소의 문제 발생 상황에 관한 서한(2009.2.17)을 받고, 관계 장관 6명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대사 명의 서한 발송
- 2009.4.20 상공부 장관 면담을 통해 동 문제 해결을 촉구
- 2009.3.16~ 법원 심리 과정에서 한중발전소와 지속적으로 협의(공판의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대한 해결 요청 서한에 대해 관계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답신이 없었다는 서한을 한중발전소에 발송하였고, 한중발전소는 이를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무대응을 입증하는 자료의 하나로 법원에 제출)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3.31 파푸아뉴기니 고등법원은 최종 판결 시까지 기존 연료에 대한 수입을 잠정 허용하는 잠정적 효력정지명령(Stay Order)을 내림.
- 2009.9.18 파푸아뉴기니 고등법원은 문제 규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건설 및 장기간(15년) 운영 후 정부에 이전(BOT 방식)하는 한중발전소의 경우, 건설 당시 계약조건에 크게 배치되어 불리하게 변경되는 법제도 개정은 안정적인 투자 및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불리한 법제도 개정 초기부터 한중발전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파푸아뉴기니 관련 부처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우리 진출 기업의 부당한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09.10.27일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그간의 정부측 무대응으로 보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 페루

### 신강하이텍의 페루 수질정화사업 참여 지원 등

#### 1. 사례 개요

- (주)신강하이텍는 2008.6월부터 페루의 리마시와 지방도시(Olmos시)에 수질정화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1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동 시 당국으로부터 회신이 없자, 주페루대사관에 연락(2009.6.25) 도움을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7월 주페루대사관은 Olmos시에 수질정화시설 사업설명회 확인을 위하여 동 시장 및 담당국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실을 확인, 신강하이텍시에 전달하였음.
- 2009.7월 리마시 담당국장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동사의 리마시 방문 계기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여 승낙 답신을 받았음.

#### 3. 공관 조치 결과

- 신강하이텍는 2009.9월 리마시와 Olmos시를 각각 방문, 사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향후 동 사업 수주에 기반을 마련하였음.

## 페루

### 오픈타이드의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1. 사례 개요

- (주)오픈타이드는 2008.11월 APEC 정상회담 계기, 지식경제부와 페루 총리실 산하 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MOU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2008.12월~2009.2월까지 3개월간 마스터플랜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하면서 페루 정부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을 대사관에 협조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월 이후 주페루대사관은 (주)오픈타이드와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간의 3차례 면담에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

#### 3. 공관 조치 결과

- (주)오픈타이드는 2009.2월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09.3월 지식경제부차관 방문시 사업결과 설명회를 국무총리실에서 개최, 페루 관계부처, 정부기관 및 언론 등으로 부터 TV에 생중계 되는 등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음.
- 이를 기반으로 2009.3월 지식경제부와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간 한-페루 전자문서(E-Document) MOU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 페루

### 우리 자원업체(케드콤 및 골든오일) 광구 분양계약 낙찰 지원

#### 1. 사례 개요

- 우리 자원업체인 KEDCOM 및 Golden Oil은 페루 국영석유회사인 Perupetro의 석유·가스 분양광구 입찰 및 낙찰후 당지 법인 설립 등 광구 운영 활동 지원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4월 주페루대사관은 Saba 페루페트로회장이 서울에서 개최한 「한국 로드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에 건의
- 2008.4.27-5.1 서울에서 개최된 석유가스 광구입찰 프로젝트 관련 「한국 로드쇼」에 Saba 페루페트로 회장 일행 방한
- 2008.6월 주페루대사관은 페루페트로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캐드콤 등 우리 자원업체들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
- 2008.9월 페루 정부(페루페트로 주관)가 주관한 20여개 광구 입찰 절차 등 상세 사항을 우리 정부 및 업계에도 전달
- 2008.9월 페루페트로 주관으로 실시한 페루 유전광구 개발 국제입찰에서 캐드콤社 및 골든오일社 낙찰 측면 지원
- 동 우리 업체들의 당지 활동 지원을 위해 주페루 대사관은 Saba 페루페트로 회장 면담 주선, 페루 석유관련 업체들과의 회의 등 당지 활동 측면 지원

#### 3. 공관 조치 결과

- 2008.9.12 페루페트로가 실시한 17개 석유광구 입찰에서 캐드콤社는 160번 광구, 골든 오일社는 132A, 132B 광구 개발권 획득

- 2009.4.16 페루 대통령궁에서 Alan Garcia 대통령이 주재한 13개 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허용하는 광구분양 계약 서명식 개최
- 이를 계기로 캐드콧社 및 골든오일社는 페루에서 본격적인 유전개발에 착수하게 됨.
- 2009.6월초 캐드콧社는 160 광구에 천연가스(1억5천만 배럴) 발견

## 페루

### 우리 수산업계 애로사항, 한-페루 FTA협상 의제 반영

#### 1. 사례 개요

- 우리 수산업계는 페루 북부 피우라지역 영해에서 1991년부터 최고 58척의 선박이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음. 2009년도에는 5척의 우리 선박이 월간 약 4,500만톤을 조업, 페루 정부에 입어료, 수리비, 공과금 등 약 1억 달러를 납부하고 있는 바, 우리 선박에 대한 과도한 입어료 부담의 경감을 위해 한-페루 FTA 협상시 입어문제 관련, 별도 약정체결 제의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월 주페루대사관은 우리 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본부에 전달하고, 한-페루 FTA 협상에 반영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제3차 한-페루 FTA 협상에서 페루측은 입어료 문제 논의 포함에 대하여는 신축적 입장 표명
- 제4차 한-페루 FTA 협상에서 페루측이 입어조건 관련 우리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접근 분야에서 페루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산물(특히, 오징어) 양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페루측은 입어문제에 대한 특혜약정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페루

### 우리교민 운영 중고차 업계들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우리교민 운영 중고차 7개 판매업체들은 2009.5월 주페루대사관에 페루 관세청의 한국산 중고차(동 교민들이 수입, 판매하는 차량)들에 대한 미터기 조작 의혹 등 검사 필요성을 이유로 수입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지원을 대사관에 요청
  - 아울러, 한-페루 FTA 협상에서 중고차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줄 것을 우리 정부에 건의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27 주페루대사 주최 우리 교민 중고차 업체들과의 만찬간담회 개최
  - 페루 정부의 디젤 중고차의 수입제한(2008.12.28 공포) 조치 해제
  - 페루 관세청에서 통관 지연되고 있는 수입중고차 (235대)의 즉시 통관 등 협조 요청
  - 기타 중고차의 통관절차 개선, 중고차 관세문제 개선 등
- 2009.6~10월 주페루대사관은 페루 관세청, 자동차 협회 및 교통통신부에 관련 우리 교민들의 애로사항 전달 및 조속한 처리 등 협조 요청
- 중고차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한-페루 FTA 협상관련 우리측 대표단에 협상의제로 건의, 현재 페루측과 협상 진행 중

#### 3. 공관 조치 결과

- 페루 관세청은 주페루대사관의 지속적 처리 요청에 대해, 공식 답변을 통해 가능한 조속한 처리를 약속
  - 2009.10월 관세청은 동 중고차량들의 미터기 조작 의혹 등이 확인되어 한국으로 돌려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통보
- 디젤 중고차 수입규제, 중고차 통관문제 등은 현재 한-페 FTA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우리측이 페루측에 제기한 상태

## 페루

### 공항운영 위탁 국제입찰 참여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6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페루 투자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6개 지방공항 민간합작 공항운영 위탁 국제입찰 참여 관련, 교통통신부 및 투자진흥청과의 면담 지원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4월 페루 투자환경 소개 서울-리마 화상회의 개최 지원
- 동 회의를 통하여 페루는 우리 기업에게 도로, 항만건설, 공항, 전기통신, 수로개발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요청 지원
- 2009.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페루대사관에 입찰 정보 제공 희망 및 교통통신부, 투자진흥청 관계자와의 면담 지원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단 페루 방문 계기, 투자진흥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투자진흥청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소개하여 향후 입찰 참여방안 등을 협의

## 페루

### 한국석유평사의 페트로텍 인수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년말부터 한국석유평사(KNOC)는 콜롬비아 국영석유평사(Ecopetrol)와 공동으로 미국인 소유의 페트로텍社를 인수 및 계약 체결(총 9억 달러, 지분 50:50, 2009.1.26)을 추진하였으나, 페트로텍 사 전 소유주인 Kellogg사장의 부정부패, 1993년 초반 페트로텍사의 광구 인수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인수지연 등 문제발생

####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09.1.23 동 계약체결(2009.1.26)관련 당지를 방문한 한국석유평사 사장의 페루 Alan Garcia 대통령과의 면담 지원
- 2009.1월말 Pava 주페루 콜롬비아 대사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페루 외교부 장관과의 수차례 면담 등 우리 석유평사 입장 설명
- 2009.2.2 주페루대사관은 페트로텍 인수 지연사태 해결을 위해 페루 Pedro Sanchez 에너지광업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페트로텍社 인수의 당위성, 향후 추가투자 계획 제시
- 2009.2월 페트로텍 계약체결 관련 재차 방문한 한국석유평사 사장과 의 면담을 통하여 현지 동향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페루정부에 대한 정책적 협조방안 등 조언
- 2009.2월 신임 부법석 페트로텍 CEO 등 경영진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향후 회사 운영에 대한 정보 및 방향 등 제공
- 2009.2월 페루 Simon 총리 예방 및 Blaunde 외교장관 면담
- 2009.3월 페트로텍의 조기 안정화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Luiz Robelledo Perupetro 회장 및 Gutierrez 전 회장면담을 통하여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2009.5월 KBS의 한국석유개발 사업 및 한국기업 진출 현황 보도 지원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2.5 페루 Alan Garcia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와 콜롬비아 Ecopetrol사의 페트로텍 인수에 최종 동의
- 2009.2.6 리마소재 페트로텍 사무실에서 인수계약 체결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국석유공사가 미국계 페트로텍社 인수에 전 페트로텍 소유주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페루 국회 및 언론 등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대사관은 페루 정부, 국회, 국영석유회사 및 언론기관 등을 통해 우리 석유공사 입장을 설명,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고, 아울러 주페루 콜롬비아 대사관 및 Ecopetrol社 등과도 공동 대응하여 페트로텍社 인수에 성공을 거둠.

## 페루

### 현대자동차의 리마시 버스노선 현대화 프로젝트 입찰 참여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4월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페루 방문시 리마시 CNG 프로젝트 (버스노선 현대화 프로젝트) 진출관련 관계기관 방문 및 입찰관련 협조 요청
- 2009.4월 현대자동차는 페루 교통통신부장관과 리마시장의 면담 주선 및 2010.5월에 실시 예정인 동 프로젝트에 참여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4월 주페루대사는 교통통신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리마시 CNG 프로젝트에 참여의사 및 페루 기간산업 참여의지 표명
- 2009.4월 리마시장 면담을 통하여 동 프로젝트 참여 의지 표명

#### 3. 공관 조치 결과

- 주페루대사관은 2010.5월 실시 예정인 동 프로젝트에 현대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 예정



## 페루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정기 협의회 개최

### 1. 사례 개요

- 주페루대사관은 매년 주기적으로 페루 진출, 페트로텍,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인터, KOTRA, KOICA, KNOC 및 한국광물공사 등과 지상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상호 문제 해결방안 등 논의
- 2009.2월 회의에서 한국광물공사 대형 프로젝트 인수문제, SK에너지의 페루 정부, 공공기관 및 경쟁사들과 협조 체제 구축 협조요청 문제 등 논의
- 2009.9월 회의에서 LG전자의 규격인증 문제, Ls-Nikko의 마르꼬나 동광 경계의 중국계 수광사와의 도로, 전기 및 용수문제 협조, 주해원의 비자연장 문제 제시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페루대사관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상사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본부에 보고하고, 페루 정부에도 문제점 등을 제시하여 해결방안 강구

### 3. 공관 조치 결과

- 지상사 협의회에서 제기된 2개의 애로사항 해결 조치 중

## 페루

### 현지 석유가스 관련기관과 우리 에너지자원 업체 간 협조체제 구축

#### 1. 사례 개요

- 주페루대사관은 페루 국영석유회사(페루페트로, 페트로페루 등)과 우리 에너지·자원 업체(페트로텍, SK에너지, KNOC, LS-NIKKO 등)과 유기적 공조체제 유지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9월 주페루대사관은 Daniel Saba 페루페트로 회장 및 Milton Rodriguez 사장 및 우리 에너지·자원업체들과 간담회 개최, 양국 간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강화 및 매 3월마다 정기적 간담회 개최 합의
- 2009.10월 Maria Claudia 콜롬비아 대사, 부범석 페트로텍 사장 및 Nelson Castenada 부사장 등을 오찬에 초청,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2.1 주페루대사관은 SK에너지, 페트로텍, Daniel Saba 페루페트로 회장 및 Milton Rodriguez 사장 등과 간담회(10여명 참석) 개최

## 페루

### 까미세아 광구의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 1. 사례 개요

- 2009.4월 우리 SK에너지가 지분 참여 중인 까미세아 광구의 Malvinas 생산설비 현장 방문을 통하여 까미세아 광구 운영권자인 Pluspetrol로부터 브리핑,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 2. 공관 조치 사항

- 우리 정부의 자원외교 강화노력을 설명하고, SK에너지와 Pluspetrol 간 순조로운 사업 전개를 통해 양국 간 win-win하는 성공적인 자원개발 협조 요청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까미세아 광구의 천연가스 공급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 3. 공관 조치 결과

- 향후 주페루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페루 정부, SK에너지 및 Pluspetrol 등과 협조 체제 구축

## 폴란드

###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EU 펀드 보조금 지원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폴란드 루블린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투자업체 대원강업(현지명 D&D Resory Polska)은 폴란드 정부에 EU 투자 펀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08.12월 선정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
  - ※ 대원강업은 자동차용스프링 제작업체로 루블린공장에서 약 300명의 고용을 창출, 생산품은 대부분 체코와 슬로바키아 소재 현대 및 기아 자동차공장에 수출
- 주폴란드대사관에서 정부내 인사 접촉 및 서한발송 등을 통해 풀측을 설득하여 폴정부의 EU 펀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됨.
  - 이에 따라, 우리 투자진출업체 대원강업은 경제혁신운영프로그램으로 EU자금 2천7백만 PLN(9.5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확보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3.31 주폴란드대사관 명의 폴란드 기업개발청장 서한을 통해 상기관 관련 한국기업에 대해 공정한 기회제공을 요청
  - 대원강업측에 투자자금조달능력 증명 등 대응방향을 조언하고, 폴란드 경제부 고위인사를 접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등 한국측 입장 설명
  - 이에 대해, 폴란드 기업개발청(Polska Agency for Enterprise Development, PARP)은 4.15자 폴란드 대사관 앞 서한을 통해 풀측 입장 설명 및 검토 입장 표명
- 2009.7.10 주폴란드대사관 명의 폴란드 기업개발청장 앞 서한을 통해 보조금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9.8 폴란드 정부는 우리투자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EU 투자펀드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키로 결정
  - 향후 소정 절차를 걸쳐 2010년 중 기업의 시설확충 투자 자금으로 2천7백만 PLN(9백5십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수령할 예정

※ 2009.9.29 대사관 명의 서한을 통해 협조에 사의 표명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대원강업의 EU 펀드 확보는 유럽 진출 우리 기업으로서는 최초의 사례로서, 이미 당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나 향후 폴란드 투자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업체들에게 좋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폴란드는 2007~2013년까지 EU로부터 총 673억 유로의 경제개발 및 사회통합 펀드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82억 유로는 “혁신경제운영 프로그램” 제하에 폴란드에서 활동중인 중소기업 중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수출전망이 좋은 기업들의 활동 보조금으로 지급

## 프랑스

### 우리 기업의 프랑스 조선소에 대한 투자 승인

#### 1. 사례 개요

- 우리나라의 STX(주)는 2007.10월 노르웨이 Aker Yards사로부터 프랑스 Saint-Nazaire 조선소의 주식 39.2%를 취득
- 2008.4월 STX는 프랑스 정부에 동 건의 투자 승인을 요청
  - 상기 조선소는 크루즈선 건조 외에도 프랑스 항공모함의 선체를 제작하며, 2005년 제정된 프랑스 법령상 국방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정부의 승인 필요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프랑스대사는 2008.1월 STX 회장을 면담, Aker Yards사 인수에 따른 EU 집행위원회의 심사 진행상황과 프랑스 정부의 이해관계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이후, 주프랑스대사관은 STX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
- 주프랑스대사는 2008.6.6 Idrac 통상장관 면담 시 STX 투자 승인건 관련, 한-불 간 경제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對 프랑스 투자 규모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할 STX가 프랑스 정부와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 경영을 통해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승인을 득하여 STX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 3. 공관 조치 결과

- STX는 프랑스 정부와의 2개월간에 걸친 협상 끝에 조선소 지분 9%를 프랑스 정부가 Aker Yards사로 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투자 승인을 획득

- Saint-Nazaire 조선소의 지분은 Aker Yards사가 75%, 프랑스 Alstom이 25%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동 MOU 체결로 프랑스가 34%의 지분을 획득함에 따라 프랑스측은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영 관련 특별 결의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
- 아울러, STX측과의 상기 MOU 체결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거부권과 함께 회사의 사법권 관련 프랑스법 적용 및 프랑스 이외 지역에서 크루즈선 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확보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STX의 프랑스 Saint-Nazaire 조선소 투자승인 획득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최대 규모 M&A 방식 투자 진출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프랑스 정부와 우호적 관계에서 투자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한-불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투자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STX 회장은 2008.6.12일 프랑스 정부와 MOU를 체결한 직후, 주프랑스대사관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Saint-Nazaire 조선소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조선소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 필리핀

### 현지 밀수방지청의 교민 업체 업무방해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9.11월 대통령 직속 밀수방지청(PASG)이 A사 및 B사(가구수입업체) 등 파식 지역 우리 교민 운영 업체에 밀수 조사를 이유로 창고 폐쇄 등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요구
  - － 밀수방지청은 통상 해당업체의 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령서를 근거로 업체의 창고를 폐쇄하고 운송차량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업체를 압박하면서 금품을 요구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1.10 한인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동 민원을 접수하고, 상공회의소에 유사한 사건을 취합토록 요청
  - － 한인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파악되었으며, 인터넷 민원(장관과의 대화)을 통하여도 유사한 민원 접수
- 2009.11.12 주필리핀대사는 PASG 청장(차관급)에 면담 요청
- 2009.11.17 주필리핀대사는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필리핀 정계 실력자인 Angara 상원의원을 면담, 동 문제로 인한 우리 교민 업체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조속한 해결 방안을 중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인상공회의소장을 동석하도록 하여 상기 우리 교민 업체의 불만 상황을 전달)
  - － 필리핀 정부당국의 적법한 밀수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교민업체들도 전적으로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으나, 조사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
  - － 동 상원의원은 배석한 비서실장에게 즉시 우리 업체 관련 사건 번호를 파식 지역 밀수방지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사관의 우려를 전달하도록 지시



- 2009.11.18 주필리핀대사는 PASG의 Antonio Villar, Jr. 청장(차관급)을 면담하고 상기와 같은 우려를 전달
  - 동 청장은 본인으로서도 그간 밀수방지청 일부 지역 사무소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전일(2009.11.17일) Angara 상원의원으로부터 우리 공관의 우려를 전달받은 즉시 모든 한인업체에 대한 조사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하였다고 설명
  - 동 청장은 또한 향후 그러한 불합리한 조사활동이 필리핀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상시라도 즉각적인 연락이 가능한 본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주필리핀대사에게 전달

### 3. 공관 조치 결과

- 200.11.19 상공회의소장을 통하여 우리 교민업체에 대한 조사현황을 파악한 바, 동 청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2009.11.17일부터 모든 밀수방지단이 우리 교민업체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철수하였음을 확인
  - 상기 B사측은 상공회의소장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장에 나와 있던 밀수방지청 팀장이 그간의 일을 사과하고 즉시 철수하였다는 감사 메일을 송부
- 동 사례 접수를 계기로 공관에서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총선을 앞둔 필리핀 내에서는 그간 동 밀수방지청이 우리 교민업체를 포함한 여러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이의 해제를 댕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금번 공관과 밀수방지청장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향후 우리 교민업체에 대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여타 문제 발생 시에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핫라인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

## 헝가리

### 삼성전자 및 한국타이어 노사분규 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6월 삼성전자와 한국타이어는 강경노조 결성을 표방하는 외부 세력들이 사내 해고근로자 등을 이용하여 극단주의적 행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특히, 삼성전자는 자사에 대한 테러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용의자를 압축해 경찰에 신고
- 2009.8월 한국타이어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1명이 2009.8.1일자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테 대해 회사측의 조치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고소  
- 산별노동조합(DGSZ)이 동 해고 근로자를 포섭, 조직적인 기업적 대행위 시도
- 2009.10.2 Kiss Peter 사회정책담당 무임소장관, 한국타이어내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회동하여 노사 간 상호 중재자를 선정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요구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6.19 주헝가리대사는 Garamhegyi 국가개발경제부 차관을 면담하고, 삼성전자와 한국타이어를 대상으로 한 극단주의적 강경노조 세력의 방해 행위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
- 2009.9.23 주헝가리대사는 헝가리 투자청 Csaba Kilian 부대표와의 면담 시 강경노조세력의 영업방해 행위가 헝가리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투자청이 외국기업 유치관련 유관 부처에 대한 선도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10.2 K. Peter 사회정책담당 무임소장관이 개입, 노사 간 상호 중재자를 선정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노사 간의 극한대립이 표면상으로는 해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외부의 산별노조가 회사내부의 불만을 가진 근로자를 포섭하여 극단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우리 기업이 신속히 대사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계 요로에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헝가리 정부가 우리 기업 입장을 고려하는 조치를 강구토록 유도

## 헝가리

### 연간 초과근무시간 기준 완화

#### 1. 사례 개요

- 헝가리 진출 우리 기업들은 연간 200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자들의 연간 초과근무 시간 규정으로 인해 생산시설 및 전반적인 투자확대에 애로가 있음을 수차례 걸쳐 제기하면서, 외국기업의 투자 및 생산의 욕을 저해하는 헝가리측의 투자유치 환경의 개선을 요구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14 주헝가리대사는 한국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 초청한 Garamhegyi 국가개발경제부 차관에게 초과 근무시간기준 완화조치 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
- 2009.1.15 주헝가리대사는 주헝가리 미국대사 주최 Bajnai 경제부장관(현 총리) 초청 오찬 참석시 초과근무시간 규정 등에 대한 우리 기업측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개혁조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6.1 헝가리 노동법령 개정으로 단체협약 없이도(without collective agreement) 개별협약에 따라(with individual agreement) 연간 30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토록 조치(Labor Code Art. 127/A)
- 2009.7.29 주헝가리대사는 Garamhegyi 국가개발경제부 차관 송별 오찬 주최시 초과근무시간 기준 완화조치 시행 결과 확인
- 2009.8.13 주헝가리대사는 Mester 신임 국가개발경제부 차관 면담시 관련 법안 통과 결과 확인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노조측은 초과근무 시간 연장이 추가적인 신규 노동인력의 고용기회를 축소한다며 강한 반대를 표시해 왔으나, 기존의 숙련노동자가 주문이 밀려드는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추가 근무를 통해 output을 증가시킬 경우, 기업은 시간을 두고 생산라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규 고용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노조설득을 위한 논거를 활용
- 외국기업의 신규투자가 헝가리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자극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그와 같은 신규투자 및 투자 확대 추진에 초과근무시간 제한 규정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관계 요로에 전달하여 헝가리 스스로가 노조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

## 헝가리

### 삼성전자의 AEO 인증 획득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6월 삼성전자는 EU가 공인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자)제도 이용을 위한 헝가리 관세당국의 증명서 발급을 요청
- 2009.9월 삼성전자는 주헝가리대사관에 AEO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고,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
  - 삼성전자 등 헝가리 진출 한국기업들은 FTA 체결시 현지진출 법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강화로 인해 통관 절차가 지연되어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헝가리측의 시정조치를 요구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9.23 주헝가리대사는 Csaba Kilian 투자청 부대표 면담 시, 원산지 증명절차 소요시간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리 기업측 우려를 전달하고 헝가리측의 대응 조치를 요구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0.29 삼성전자는 EU의 AEO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통관절차 장기화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대사관에 통보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EU FTA 체결과 관련, 우리 기업측이 사전에 문제점을 적시하고 헝가리 관세 당국과 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주헝가리 대사관이 관계부처 기관장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공동 대응한 바, 헝가리측은 기존의 제도적 장치에 따라 우리 기업 요구사항을 수용

## 호주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와이옹 유연탄 광산 개발 프로젝트 지원

#### 1. 사례 개요

-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우리 기업은 호주 시드니 100km 북쪽에 있는 와이옹 광산의 유연탄을 개발하는 대규모 석탄광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으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로부터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발급이 장기 지연되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음에 따라, 주호주대사관의 협조 및 지원 요청

##### ※ 와이옹 유연탄 개발 프로젝트 개요

- 약 12억톤(육상 7억톤, 해상 5억톤)의 발전용 유연탄을 매장하고 있으며, 육상광구의 경우 가채광량은 1.5억톤이고 생산광구는 연 4.5백만톤으로서 가채년수는 38년임
-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가 82.25%, SK 에너지가 4.25% 등 우리 기업이 95%의 지분을 보유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6.24 주호주대사는 호주의 Martin Ferguson 자원에너지관광 부장관 면담 시 동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 2009.7.20 주호주대사는 동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조속 발급 등 협의를 위해 Nathan Rees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리 및 주 기획부장관 면담을 요청
  -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복잡한 내부 정치 일정상 면담 성사가 지연되었으나, 주정부에 동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도를 주지 시킴.
- 2009.11.20 주호주대사는 와이옹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업 추진현황 브리핑 청취, 개발 예정지 등을 시찰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대응방안 협의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8.10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약 3년간 지연되었던 동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전격 발급
  - 향후 주호주대사관은 KORES 등 사업 주관기관의 긴밀한 협의하에 호주 연방정부 및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의 주요인사 접촉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와이옹 유연탄 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이 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자원개발 투자 관련 핵심사업으로서 최초로 우리 기업이 운영권을 확보한 의미있는 사업임.
- 동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아직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존재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 의회의원 상당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조속히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개발권 승인 획득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우리 정부 차원 및 공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S' 마크 미각인 타이어 재고 문제 해소

### 1. 사례 개요

- EU 자동차타이어소음규제지침(Directive 2001/43/EC, 01년 채택)에 의거 2009.10.1일부터 소음인증마크('S' 마크)가 각인되지 않은 타이어의 EU 시장내 판매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2009.10.1일 기준으로 EU내 동 마크를 각인하지 않은 한국산 타이어 109만 개(약 5천만 달러 상당)가 판매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부, 유럽내 관련 협회와 유기적 협조하에 EU 집행위에 동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EU 집행위는 2009.9월 'S' 마크 미각인 타이어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하에 계속 판매를 허용키로 최종 결정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2월 주EU대표부는 제7차 한-EU 공동위 준비과정에서 EU 측에 우리측 우려 전달
  - 제7차 한-EU 공동위(2009.2.7일, 서울)에서 동건 공식 제기
- 2009.2.25 유럽타이어제조협회 사무총장을 면담, 동 문제 관련 유럽 업계 입장 및 EU 집행위와의 협의 현황 등을 파악
- 2009.4.8 유럽타이어제조협회 사무총장을 재차 면담, 동 문제 관련 유럽업계 입장 및 이에 대한 EU 집행위 반응 파악
- 2009.4.16 EU 집행위 기업산업총국 관계자를 면담, 집행위 실무 검토 결과 우리측 요청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을 파악하고, 우리업계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위가 전향적이고 창조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청
- 2009.5.11 유럽타이어제조협회는 EU 집행위, 유관국 대표부 등을 접촉한 결과, EU 집행위가 해당 지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찰 결과를 보고하여 통상장관 명의 서한 발송을 건의

- 2009.5.29 EU 집행위 기업산업총국 실무자를 접촉, 통상장관회담시 우리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파악
- 2009.6.26 유럽타이어제조협회 사무총장 및 EU 집행위 관계자를 접촉, 집행위의 동 문제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
- 2009.9.24 EU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를 면담, 동 건 해결방안 논의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9.26 EU 집행위는 'S' 마크가 각인되지 않은 타이어도 기술적으로 새로운 소음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해당 업체가 새로운 소음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받고, 동 인증서를 소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S' 마크 미각인 타이어의 판매를 허용기로 최종 결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건은 EU가 제정한 새로운 지침에 대해 우리업체가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으로써 우리업체는 자사 제품과 관련한 EU의 새로운 규격 또는 기준 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시 동 제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 타이어 업체가 사전에 유럽내 타이어 제조사를 대표하는 유럽타이어제조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함에 따라 동 협회를 통해 동 문제 해결 방안을 제기하고,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던 바, 유럽 진출 우리업체의 경우 유럽내 유관 협회에 가입해 두는 것이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시 동 해결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관에서 유럽타이어제조협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EU 집행위의 검토 동향을 면밀히 파악, 보고함으로써 본부가 동 건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관, 본부, 업계 간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이에 기초한 유기적 대응이 긴요함.





# III

## 미수금 해결 지원 사례

## 대만

### K사의 장비납품 및 잔금지급지연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2009.2.10 K사는 LCD 패널 생산 장비의 납품과 관련, 계약사인 대만 CMO사(奇美電子)의 장비 선적 유예 및 잔금 지급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한화 약 200억원)을 입고 있다면서 공관의 지원을 요청

- 동 사는 2004년 이래 CMO사에 LCD 패널 생산 장비를 납품해 왔으나, 경제위기 관련 CMO측의 일방적인 장비납품 및 잔금지급 지연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CMO측은 동 지연에 대해 협의조치 거부하고 있다고 지원을 호소

※ K사는 2008년 매출액 1,800억원을 기록한 IT 분야 국내 상장기업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대만대사관은 2009.2.10일 CMO측과 긴급접촉, 2009.2.11 CMO측에 지급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하고 성의있는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CMO 사장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하는 등 CMO측을 압박
- 당지 KOTRA 무역관도 CMO측에 한-대만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 차원에서 동 건의 원만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2.12 CMO측은 K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K사 납품 장비의 즉각적인 선적에 동의하고, 잔금지급 문제에 대해 K사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대만대사관 KOTRA가 협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K사의 문제 해결 지원
  - 민원 접수 당일 공관과 KOTRA가 각기 CMO와 긴급 접촉하고, 익일 CMO와 K사의 협의가 성사된 바, 최단시간내 문제 해결에 기여
- 동건 이후, K사는 CMO측과 대금지급문제를 지속 협의해 오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CMO측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완전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
- 동건은 IT 분야 대만 대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이 장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대만 대기업의 대금지급 지연 횡포에 맞서서 당장 법적인 해결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기여



## 리비아

### KT 미수금 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KT는 리비아 우편통신공사(GPTC)와의 국제전화수입금 정산이 2001년 이래 지연되고 있다면서 리비아를 방문 협의코자 하니 리비아측 GPTC를 접촉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

##### ○ 미수금 개요

- 1990~2004년간 한-리비아 국제전화 요금 정산결과 KT측이 리비아 GPTC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7,997,267달러 발생
- 그간 KT측은 리비아를 수 차례 방문하여 정산금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리비아측의 무관심으로 정산이 지연
- 2006년 리비아측이 체납액의 50% 할인을 요청해왔으나 KT측에서 거부한 이후 리비아측은 KT측과의 연락을 두절(이메일, 전화 거부)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6.10 GPTC측 담당자가 KT측 뿐만 아니라 주리비아대사관 의 일체의 연락이나 면담도 거부함에 따라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위 책임자인 구매국장 Abdulbaset Gobbassa 면담에 성공, KT측 의사를 전달하고 KT측과의 면담을 요청 → 동인은 면담요청을 수용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7월 KT측은 리비아를 방문 GPTC측 구매국장과 면담, 협상 결과 GPTC 측으로부터 체납금 지불 규모에 합의
- 2009.11월 체납금 지불관련 절차 진행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비공식적 인간관계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리비아의 특수성을 감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가족 관념이 강한 리비아에서는 법과 원칙에의 의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모로코

### 의료기기 수출업체 수출대금 회수 지원

#### 1. 사례 개요

- 의료기기 수출업체인 (주)아이소텍은 모로코 거래업체인 Centramedic사로부터 수출대금 5만 달러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2009.10.9일 주모로코대사관에 Centramedic사의 송금여부 및 신용도 확인 등 지원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모로코대사관은 Centramedic사에 수 차례 연락하여, 예정일보다 지연되었으나 수출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주)아이소텍으로 전달

#### 3. 공관 조치 결과

- Centramedic사는 주모로코대사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송금조치를 하여 (주)아이소텍은 2009.10.21일자로 수출대금 수령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상기 수출대금 회수 지연 사유는 모로코측 거래업체가 약속 시한까지 송금을 하지 않았으며, 은행 간 송금 절차상에도 지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주)아이소텍은 향후 거래시 수출대금 지급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

## 몽골

### 한국기업 신용장 미수금 패소사건

#### 1. 사례 개요

- 대우인터내셔널(3,3천만 달러) 및 LG(3,8천만 달러)의 총 71백만 달러의 신용장 미수금 문제 발생
  - 대우 : MPB(Mongol Post Bank) 3천만 달러, GB(Golomt Bank) 3백만 달러
  - LG : TDB(Transportation & Development Bank) 3천만 달러, GB(Golomt Bank) 8백만 달러
  - 2003년 한국의 수출업체인 노마랑사는 몽골의 수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대우인터내셔널과 LG에 양도(수출물품은 가구류 및 육류가공설비 등)
  - 2004년 신용장을 개설한 상기 몽골 은행들은 노마랑과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대금상환을 지체할 경우, 노마랑이 이를 직접 해결하며 은행은 노마랑에게 신용장상의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이면 계약체결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거부
  - 2005년 동 문제 공판에 제기
  - 2006년 미수금 총 71백만 달러 중 공판의 노력으로 GB로부터 대우3백만 달러, LG 8백만 달러 회수(그 후 LG는 동 문제에 관해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손비 처리)
  - 2009.9.23 대법원장은 대우의 주장 기각조치

#### 2. 공판 조치 사항

- 주몽골대사는 중앙은행 총재, 대법원장 2회, 국회 부의장, 대통령 법률 보좌관 등을 면담하여 대우인터내셔널의 신용장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또한, 주몽골대사는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국제상법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동 내용으로 우리 장관명의 몽골 외교장관 앞 서한도 발송

### 3. 공판 조치 결과

- 상기 우리 정부와 공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6월 몽골 대법원은 1차 판결에서 대우 패소, 이어서 2009.9.23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회부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동 사유로는 몽골은행과 한국 수출업자인 노마랑 간에 체결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MPB는 대우측에 신용장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여 대우측의 상고를 기각(대우측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요지로 판결)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단순 이면계약만을 근거로 한국기업에 대한 패소판결은 몽골 사법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용장거래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치 않았는바, 이는 국제상법을 무시한 정치적 판결로 향후 한국 투자자들이 대 몽골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사항임.
- 2009.6월 취임한 Elbegdorj 대통령(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조치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인가는 몽골 민주화 진전과는 또 다른 문제로 보임. 다만, 2009.10월 오유폴고이 동광산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국제투자자들이 몽골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외 투자자들의 이익과 몽골 국가 이익을 균형 있게 배려하는 사법부의 분위기가 점차 조성될 것으로 판단
- 몽골은 16개 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는 자본잠식상태로 실제적인 파산상태에 있는바, 투자 전에 이러한 사항을 경시하고 높은 이자율(현지화의 경우 18%, 외환의 경우 8%)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음. 현재 몽골정부는 불안한 몽골의 금융시장을 개편코자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건실한 정착이 다기한 정치 분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경제적 논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벨라루스

### 선박회사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7월 벨라루스 기업 「BSC」는 우리 기업 「삼선 로직스」와 4-6개월 사용조건으로 용선계약을 체결(동 계약은 영국법에 준거하여 대리인을 통해 체결)한 뒤, 한 차례 사용 후 일방적으로 반선하고 용선료 지급을 중단
- 양 기업의 계약상 용선료는 선박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최소 4개월치를 지불해야 하나, BSC측은 2항차(통상 1달) 용선료만 지불하고 나머지 용선료 지불(약 350만 달러)을 중단
- BSC측은 계약서에 사장의 사인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계약 및 용선 당사자가 아닌바, 용선료를 지불할 수도 없다고 하고, 삼선 로직스측은 계약서상 사인이 없어도 영국법상 효력이 인정됨을 주장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2월 주벨라루스대사는 교통부장관을 면담하여 양측 기업 간 계약 당사자 진위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국제관례에 따라 동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벨라루스 교통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 2009.4월 주벨라루스대사는 교통부 해운수로국장 및 BSC 사장을 면담하여 양국관계를 고려하여 기업 간 미수금 문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
- 2009.4월 주벨라루스대사관은 BSC측의 입장과 논리를 파악, 삼선 로직스측에 법적 해결에 대비한 증거서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11월 삼선 로직스는 미수금 지급 중재에 관한 소송을 영국법원에 제기했으며, 영국법원은 BSC측이 삼선 로직스측에 약 27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중재 판결을 내림.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분쟁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측 기업이 미수금 문제에 대해 승소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 간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의 및 협조 필요

## 벨라루스

### 협력업체 간 미수금 분쟁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A사와 벨라루스 B사 간 미수금 문제 및 양 기업 직원 간 내부거래로 인한 갈등
  - A사는 2009.3월 양 기업 협력 1차 사업으로 76만 달러 상당의 부품을 B사에 공급하였으나, B사측은 일부(약 3%) 부품의 결함을 이유로 대금의 약 35%를 결제하지 않음.
  - 양측기업 직원 간 내부거래로 추가 부품 공급계약이 미체결되고, 기업 간 갈등 발생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5~6월 양측 경영책임자를 수차례 접촉하여 사건을 중재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의 각별한 관심과 유념을 당부
  - 특히, 양측 기업 간 거래는 벨라루스 정부(보건부, 산업부)의 ‘의료기기 현대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대사관의 적극적 활동으로 계약이 성사된 바, 양국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 당부
- 벨라루스 외교부를 접촉하여 동 문제가 양국 정부 간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부측의 관심과 지원 당부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6월 두 기업은 직원 간 내부거래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양 기업 간 거래 지속 및 확대에 대해 합의
- 2009.8월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고, 2차(36만 달러) 및 3차(40만 달러) 사업진행 합의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벨라루스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영기업을 통해 진행되는 바, 국영기업과 우리 기업 간 거래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공관의 역할 및 해당 정부 관련부서의 협력확보가 중요

## 세네갈

### 대림산업 수출 대금 결제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7.12 주세네갈대사관, 'A사(Daelim Industrial)'가 세네갈 S사에 2008.12.24일 컨테이너 2대 분량의 bopp film을 수출한 후 2009.5월 말 컨테이너 1대분의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1대분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
- 2009.7.20 주세네갈대사관에 중재에 따라 세네갈 업체가 나머지 컨테이너 1대분(약 3만 달러)에 대한 대금 결제 완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7.12 A사으로부터 미수금 해결 지원 요청을 접수받고 주세네갈 대사관 담당관은 세네갈 S사 사장과 3차례에 걸친 전화 통화를 통해 신속한 대금 결제를 요청(당사자의 명예는 최대한 존중)
- 담당 참사관과 통화시 S사 사장은 파리에 체류 중이었으나, 담당관의 3차례에 걸친 전화를 받고 조속한 시일 내 대금 결제를 완료하겠다고 약속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7.20 S사 사장은 담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금 결제를 완료했다고 알려 왔으며, A사측도 S사 사장으로부터 동 미수금을 지불 받았음을 확인하여 동 건 종결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세네갈 등 서부아프리카 국가 소재 바이어들과의 거래시에는 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신용장(L/C) 개설을 통해 자금 결제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 A사는 S사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L/C 방식이 아닌 D/P방식(은행을 통해 자금결제를 하되 은행이 지급 보증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사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당사자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사관의 관심 표명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 A사의 미수금 건도 대사관에서 당사자의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종용한 것이 주효하였던 것으로 분석

## 앙골라

### A사 건설공사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6월 건설분야 현지 진출업체인 A사 컨벤션호텔 건설현장의 공사 기성금 약 40백만 달러가 수금되지 않아 자재구입대금 지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사관에 호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7.1 지상사 협의회를 긴급 소집하여 해당 건설현장소장으로부터 관련 상세 내용 청취 및 의견 교환
- 2009.7.3 외교부 및 국토해양부(해외건설과)로 관련 내용의 공문을 보내 2009.8.6~7일 개최 예정인 제2차 한-앙골라 공동위 계기 앙골라측 수석대표에게 관련 문제 공식 제기할 것을 제안
- 2009.7.22 제2차 한-앙골라 공동위 앙골라측 수석대표인 Carneiro 공공사업부 장관을 면담하며 동 기성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2009.8.6~7월 제2차 한-앙골라 공동위에 참석한 공관 직원이 기성금 미수 외 몇몇 기업어로사항을 앙골라대표단에게 재차 상기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8.27 A사측은 그동안 지체되었던 3,300만 달러 상당(5월분까지)의 미수금을 지급받았다고 공관에 알렸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건은 2008년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앙골라는 국가재정의 원유판매 수익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으로 주요 발주처의 자금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바도 있지만, 사적계약의 준수 의무를 경시하는 앙골라와 같은 개도국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써 진출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며 앙골라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발주처(주로 국영기업 및 정부인사 소유 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의 불리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함.
- 이러한 기업의 불리한 입장을 감안, 공관이 직접 앙골라 유관 부처에 해결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양자 공동위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정부 차원의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동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보호막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시의 적절하였다고 판단

## 이탈리아

### 커미션 잔금 회수 지원

#### 1. 사례 개요

- 우리 업체인 A사는 이탈리아 F업체의 한국내 대리점 활동을 수행하면서, 2008년에는 F업체 기계를 한국 업체에 판매하여 주고, 그 댓가로 커미션 50,000유로를 지급 받기로 함.
- 그러나, F업체는 상기 기계 판매 이후 A사에 당초 약속한 커미션 50,000유로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0유로는 지급하지 않음.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10월 주이탈리아대사관은 F 업체를 수차 접촉하여,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F업체는 A사에 커미션 잔액 25,000유로를 지급해 주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일부 계약서 변경을 제의하였으며, A사는 대사관의 중재로 F업체가 커미션 잔액 지불 계획을 표명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
- 2009.12월 A사는 주이탈리아대사관에 동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확인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연 100건 이상의 이탈리아 기업 정보 요청 및 분쟁 해결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기업 간 수·출입에서 발생한 피해나 대금 지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요청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미수금 민원 중에는 물품 구입시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이탈리아의 사법절차가 매우 느린 점을 감안할 때(민사소송 절차에 7년 소요), 우리 업체들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임.

## 쿠웨이트

### 우리 건설기업의 현지 보증금 회수 지원

#### 1. 사례 개요

- A사는 쿠웨이트에서 석유화학 부산물 재처리 공장 프로젝트 공사 수행과 관련 보증금으로 기납부한 38만 달러의 회수지원을 요청
- A사는 프로젝트 완료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 2008.8.10일에 쿠웨이트 노동부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산업청으로부터 적절한 요청공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 현지 규정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주어진 쿼터 내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는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주요 산업시설로 노동부 허가 전에 쿠웨이트 산업청에서 특별 승인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었음.
  - 따라서 당초 A사는 쿠웨이트 산업청에 인력 사용관련 승인을 받고 노동부 규정에 의한 보증금 납부후 인력 400명을 고용하여 프로젝트를 마치게 됨.

#### 2. 공관 조치 사항

- A사는 현지 공관 및 KOTRA에 지원을 요청하여, 공관 관계자 및 KOTRA 관계자가 직접 산업청장 및 실무국장급의 면담을 실시하여 산업청에서 희망하는 내용의 정확한 공문을 재작성하여 산업청장에게 직접 접수 시킬 수 있도록 지원

#### 3. 공관 조치 결과

- 공관에서 고위관계자 및 실무관계자를 직접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 산업청으로부터 오랫동안 지급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게 되었음



- 특히, 쿠웨이트 산업청과 KOTRA는 2008년에 산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 산업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고위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한국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쿠웨이트의 통상적인 행정 관행으로 볼 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절차를 2009. 11.6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현지 행정 체계의 불합리성, 표준화 되지 않은 절차, 행정 처리 지연 등 국내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적응하기 힘든 기업환경에서 공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음.





# IV

## 기타 지원 사례

## 과테말라

### 동포 기업인 납치사건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9.18 18:10경 동포 기업인 A씨가 퇴근하던 중 신원미상의 괴한 3명에게 피랍
- 2009.9.18 납치 조직이 피납자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몸값으로 미화 2만 달러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않을시 피납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
- 2009.9.19 납치 조직의 집요한 몸값 요구와 협박 지속
- 2009.9.19 17:00경 납치 조직과 협상 타결 후 몸값을 전달, 19:00경 피랍자 무사 귀환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9.18 주과테말라대사관 경찰 영사는 사건 발생 신고 접수 즉시 과테말라 내무부장관 직속 납치전담팀장과 접촉하여 피랍자 안전한 구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 피랍자 가족을 방문하여 납치조직과의 몸값 협상 요령 및 유의사항 등 설명하고, 몸값 협상 진행 중 상황 변화에 따른 지침을 제시
- 2009.9.19 주과테말라대사는 Rafael Espada 과테말라 부통령을 면담하여 피랍자의 안전한 구출 및 여타 진출업체에 대한 치안 강화 조치를 요청
  - 주과테말라대사관 담당관은 Raul Velasquez 과테말라 내무부장관 및 Amilcar Velasquez 검찰총장을 면담하여 상기사건의 조속한 수습과 과테말라 치안불안으로 인한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당부

### 3. 공관 조치 결과

- 주과테말라대사관과 경찰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납치조직과 협상을 진행, 피랍 후 만 24시간 만에 피랍자가 무사히 귀환하였으며, 해당 기업 및 여타 동포 기업들의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 진행
  - 피랍자의 업체 내부 고용인들 중 용의자 2명 지목하여 증거수집 및 정보활동을 강화
- 기업인 A씨 기업활동 재개

### 4. 시사점 및 참고 사항

- 과테말라는 마약 밀매조직을 비롯한 범죄조직들이 남미 국가들로부터 북미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하는 지역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로 지적되고 있는 바, 기업환경에 있어서도 치안불안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 기업인 및 진출기업에 대한 사건 발생 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과테말라 치안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납치 사건의 경우 몸값을 조건으로 납치범 등과의 협상 시 과테말라 수사당국이나 공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랍자 가족이 납치범들과 직접 협상에 임할 경우, 고액의 모갑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에는 피랍자가 살해될 가능성이 다대한바, 수사 전문가(파견 경찰영사 또는 현지 수사관)의 협조 아래 협상에 임하는 것이 긴요함.
  - 우리 기업인들의 과테말라 치안상황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박장, 유흥장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 등이 한인회, 교회 등 교민단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민 계도가 필요함.

- 우리 기업인 납치 사건 등 강력범죄의 빈발은 對과테말라 통상·투자 확대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바, 과테말라의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치안 대책이 강화되고, 범법자를 체포하여 엄중한 처벌을 통한 사후적인 범죄 억제 효과가 제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과테말라고위인사 접촉 시 지속적으로 요청 필요

## 광저우

### 민사상 법률조언 제공

#### 1. 사례 개요

- 복건성 장저우(Zhangzhou)시에서 2003년부터 묘목 및 화훼사업(회사명 : 생략)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인 최○○는 중국인 鄭○○과의 경제 분규로 민사소송을 당해 1심(2007.1)에서 패소 후 2심 법원에 상소하려고 하였으나 기간 경과로 상소가 기각(2008.2)된 것과 관련, 2009.5월 공판 앞 민원서를 보냄.

- “광둥성고급인민검찰원”에 1심(汕頭市중급인민법원) 판결의 부당함, 광둥성고급인민법원에서 상소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탄원하는 “申冤書”를 보냈다고 하면서, 주중국대사관이 광둥성고급인민검찰원에 공문을 보내 동인의 신원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주도록 요청

※ 주) 광둥성고급인민검찰원은 광둥성 각급 법원의 오심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음

- 최○○는 묘목·화훼사업을 위해 2003.6월 100만 위안(한화 약 1.8억원), 2005.4월 150만 위안(한화 약 2.7억원)을 중국인 鄭○○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동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어 상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소기간이 경과하여 상소가 기각된 바 있으며, 1심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09.5월 동인 소유 농토(약 2만여 m<sup>2</sup>, 감정가 인민폐 725만 위안)가 경매에 부쳐짐.

※ 최○○는 선임한 변호사가 病死하는 바람에 상소 기간을 놓쳤다고 말함

- 2007.1월 최○○는 250만 위안 중 100만 위안이 합자투자계약서에 의해 유입된 투자자금이며, 2005.8월 태풍을 만나 묘목이 유실되어 투자액 전액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00만 위안을 반환해 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동 합자투자계약서가 제목만 합자투자계약서로 되어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대차계약서로 간주된다는, 순수 차입금 150만 위안은 물론, 최○○가 합자 투자액이라고 생각하여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100 위안을 포함한 250만 위안을 鄭○○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함.



## 2. 공판 검토 사항

- 주광저우총영사관 자문변호사가 법률적 검토 및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요청한 광둥성고급인민검찰원에 본건 선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대신에 1심 법원의 판결상 하자가 있다는 증명을 민원인이 갖추어 광둥성고급인민검찰원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 3.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본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계약 내용, 재판 심리 과정에서 대응 미흡, 변호사의 조력 미흡, 상소 시한 경과로 인한 상소 기회 상실, 판결 결과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 소유 토지가 경매처분당하는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바, 계약서 작성 잘못을 비롯한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재판에서 패소

※ 만약, 재판 결과에 따라 250만 위안을 보상하여 주었다라면 자신의 농토가 경매에 부쳐지는 일이 없었을 것임.

### ○ 용수 묘목 합작투자 100만 위안 계약서

- 최○○(한국인) 鄭○○(중국인) 쌍방은 협상에 따라 용수 묘목 배양과 수출 항목의 경영 및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 및 상호 동의
- 鄭○○은 토지 40,000㎡를 최○○이 구매하도록 도와주며, 인민폐 100만 위안을 투자
- 최○○은 8개월마다 鄭○○에게 인민폐 60만 위안을 투자 고정 수익으로 제공
- 최○○은 자금운용과 생산 경영 활동 책임을 지며, 鄭○○은 참여하지 않음.
- 합작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합작 기간이 끝나면 최○○은 鄭○○에게 투자수익을 청산해야 하며, 투자금을 鄭○○에게 돌려줌.
  - ※ 제목은 투자계약서이지만, 계약 내용중에 투자금 인민폐 100만 위안을 중국인에게 돌려 준다는 조항이 있음.
- 한편, 최○○은 150만 위안도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계약서 내용은 금전 대차계약에 불과

### 1. 사례 개요

- 주뉴욕총영사관은 2009.9월 다자간개발은행 주최로 개최되는 전자공공조달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발굴하고, 국내개발 전자공공조달 시스템(KONEPS)의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문 보고

\* KONEPS은 조달청의 발주에 의해 국내업체인 삼성 SDI가 개발한 시스템으로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조달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음.

- 이후 주뉴욕총영사관은 동 컨퍼런스에 직접 참가하여 주제발표, 주요국 접촉 등 동 시스템의 수출촉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일부 국가와 기본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수출지원 성과 거양

### 2. 공관 조치 사항

- 조달담당 영사가 조달청 본청 대표단과 함께 동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수출 지원활동 전개
  - 주제발표 및 토론 참여를 통해 KONEPS의 우수성 강조
  - 사전준비한 KONEPS 관련 브로셔를 관련국에 배부하고 주로 전자공공조달시스템 미실행국가를 대상으로 KONEPS 채택여부 타진
- 행사참여기관인 미주개발은행(IDB)측과도 KONEPS의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방안을 협의

### 3. 공관 조치 결과

- 컨퍼런스에 참여한 일부 국가와 KONEPS 시스템 수출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IDB측과 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 구체화
  - 자메이카 : 양국 간 전자공공 조달 관련 MOU 체결 및 삼성SDI와 자메이카 정부 간 계약 체결 합의

- 그루지아 : 그루지아 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 컨설팅 실시 요청 접수
- IDB : IDB측이 실시하는 e-Government교육사업(2010.8~10월 경)에 우리의 e-GP(Government Procurement)를 포함하고 현지 e-GP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 협의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유용한 수출시장 정보를 기민하게 파악하여 우리의 조달시스템인 KONEPS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 기회로 활용한 사례

## 독일

### 한-독 워킹 홀리데이 공동성명 체결

#### 1. 사례 개요

-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 인력고용의 어려움, 특히 독일 거주 한국인(예 : 유학생) 고용시 취업 비자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 인력 수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기
  - － 2008.7.18~19 전 독일지역 통상투자진흥회의 참석자(103개 독일 진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현황조사 설문 실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상기 애로사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두산 인프라코어, 한국타이어, Konet, 현대모비스, SWIT 등)
- 또한, 우리 진출기업들은 영어/독일어/한국어에 능통한 현지 2세, 유학생 등 신규 인력 구인난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현대 종합상사 등)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5월부터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공동 성명) 체결을 위해 독일 외교부(아시아 문화교류과)측과 수차례 걸친 문안 교섭 결과, 2009.4월 하노버 박람회 동반국 행사 계기 동 협정에 서명기로 양국 간 합의
- 한승수 총리를 수행하여 독일 하노버 박람회 행사에 참석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귄터 글로저 독일 외교부 차관 간 2009.4.19일 공동 성명에 서명
- 협정 주요내용
  - － 한-독 양국 청년들(18-30세)에게 상대국가에서 최장 1년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취업비자 보다 간편한 절차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 가능

### 3. 공관 조치 결과

- 한-독 워킹 홀리데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2009.10월 60여명 이상의 한국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취득, 독일에 서 1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음.
- 이에 따라, 독일내 우리 진출 기업들의 한국인 유학생 등 고용 사정도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양국 청년들 간 교류 증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전망

## 라스팔마스

### 수산물 통관 지원을 위한 스페인 정부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

#### 1. 사례 개요

- EU의 수산물 수입과 관련, 위생검사의 강화 및 새로운 어업통제 기준 제정으로 제3국 어선의 EU회원국내 항구 접근의 규제가 강화되어 유럽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한인 수산물 생산업체 및 유통업자의 어려움을 해소(관계법령의 이해)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 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3~4월 : 스페인 정부인사 세미나 지원(강사) 협조요청 및 승낙
- 2009.6.27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지원요청(예산지원)

#### 3. 공관 조치 결과

- 1) 일시 및 장소 : 2009.10.14/ 라스팔마스 항만청 회의실(3층)
- 2) 주최 : 주 라스팔마스 분관
- 3) 세미나 주제 : 수산물 통관관련 법률(어업 및 위생)의 이해, 앞으로 EU 수산물 수입규제 방향 및 부두의 이용 등
- 4) 강사(3명) : 스페인 농림수산부 본부 부국장(Concepcion Sanchez trujillano), 스페인 위생부 카나리아주 위생담당 국장(Carlos Gabriel Santana Garcia), 라스팔마스 항만청 공보관(Manuel F. Vidal Garrido)
- 5)참석 : 수산물 생산업체(대리점 포함) 및 유통업체 약 42명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스페인 정부 공무원 초청 세미나는 우리 업체가 “EU의 수산 및 위생 분야”의 법률적 이해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양국 관계 공무원 간의 유대관계에도 기여
-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추진할 계획



# 라스팔마스

## 재외국민보호 관련 지원

### 1. 사례 개요

#### ● 사건 개요

- 2008.5.25 마약운반 혐의로 김OO은 카나리아군도에서 1,200마일 떨어진 대서양에서 스페인당국에 의해 검거(선박 및 인신 억류)
- 라스팔마스 적십자사에 거주하며 매월 2회 카나리아주 법원에 출두하여 거주확인을 받음.
- 2009.4.6 마약운반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사건이 종료되었으므로 법원의 거주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결정문 수령

#### ● 쟁점

- 마약운반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2009.4.6일)을 받았으나, 항만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동 선박을 공해에서 침몰시킴.
- 피의자 김OO은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고자 함.

#### ● 선박제원

- 선박의 국적 :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및 기니(2중 국적)
- 선명 : Atlans 2호 / 톤수: 120톤
- 선령 : 24년
- 선박 소유자 및 선장 : 김OO

※ 국적증서상(2중 국적)의 선박 소유주는 각각 타인으로 되어 있음.

### 2. 공관 조치 사항

#### ● 법원 결정(4.6 거주제한 해제) 이후의 조치사항

- 2009.4.6 김OO과 동행, 법원결정문 수령 및 부두 방문(수산물:선박없음 확인)
- 2009.4.13 Capitanía Marítima(부두경찰)에 선박 실체 확인(선박폐기 확인)
- 2009.4.15 김OO 선박 억류 해제요구(주스페인대사관→스페인 외교부)

- 2009.4.23 선장확인서 발급(항만 당국 접촉용)
- 2009.4.25 김OO 선박문제와 관련, 라스팔마스 변호사단체 (Colegio de Abogados de Las Palmas de Gran Canaria 〈Turno de Oficio〉 para los servicios de orientación)면담
- 2009.5.4 스페인 법원 및 국선변호사에게 선박반환 관련, 김OO 명의 편지 발송
- 2009.6.18 선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항만청 공보관 비공식 접촉
- 2009.6.23 선박의 실체 파악을 위한 부두경찰(Capitanía Marítima) 면담
- 2009.6.25 라스팔마스 적십자사 방문(김OO 거주 연장 요청)
- 2009.7.1 김OO 사건 진행사항 보고(본부 및 주 스페인 대사관)
- 2009.7.12 법원의 선박반환 명령 확인 및 결과, 주스페인 대사관 통보(마드리드→주스페인 대사관)
- 2009.7.20 선박 반환관련, 라스팔마스 변호사단체 변호사 면담
- 2009.7.22 라스팔마스 항만청장 면담
- 2009.7.28 김OO 사건관련, 민간변호사 면담
- 2009.7.31 김OO에게 항만청장 및 변호사 면담결과 설명
- 2009.9.3 라스팔마스 적십자사 방문(김OO 거주 연장 요청)
- 2009.9.4 김OO 압수물(개인사물) 소재확인(마드리드 경찰)
- 2009.9.10 장기 체류시 피고용을 위한 자문(적십자사)
- 2009.9.21 장기체류시 피고용을 위한 관련서류에 적십자사 고문변호사 면담
- 2009.9.23 김OO 선박문제와 관련, 라스팔마스 변호사단체 면담
- 2009.9.24 경찰당국이 압수한 김OO 개인서류 반환 요구 및 협조 요청(법원 및 국선변호사)
- 2009.9.25 피고용과 관련, 적십자사 고문변호사에게 관련서류 제출
- 2009.10.23 김OO 선박문제와 관련, 라스팔마스 변호사단체 면담

### 3. 공판 조치 결과

- 2008.10.3 형사사건 국선변호사 선임
  - 2009.4.6 법원 마약운반 혐의 무혐의처리
    - － 거주제한 해제
- ※ 현재 민사 소송을 위한 지원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김OO 사건의 경우, 마약운반 혐의는 종결되었으나 항만당국이 해당 선박을 침몰 시킴으로 인해 사건이 장기화 되고 있음.
  - － 항만당국은 당해 선박의 노후 등을 감안, 항내에서 침몰될 우려가 있어 폐기했다 주장
  - － 스페인 정부의 사법환경(재판진행의 장기화;약5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건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동 사건관련 정부의 지원범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상대방측을 설득하고, 지원가능한 행정부분에 대하여는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러시아

### 현대·기아 고급 승용차 시장개척 활동 지원

#### 1. 사례 개요

- 러시아 내 현대 및 기아자동차 판매법인은 러시아 시장에서 수입자동차의 최대 판매대수를 기록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금년들어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러 수출지원을 위해 대사관 후정 및 국경일 리셉션 계기 러시아 정부고위인사 및 자동차 산업 관련 경제인, 기자단 등 여론 주도층을 초청하여 신차발표회를 각각 개최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9.2 기아자동차가 러시아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뉴 쏘렌토, 모하비를 주러시아 대사관 후정에 전시하고 러연방 문화부차관, 지역개발 부차관, 러-벨라루스 국가통합위 사무총장 등 정부고위인사와 외교단, 기자단 및 딜러 등 280여명을 초청하여 기아자동차 브랜드와 전시 차량의 우수성을 소개
- 2009.10.2 현대자동차의 최근 출시 차량인 뉴 에쿠스, 제네시스를 국경일 리셉션에 맞추어 주러시아 대사관 후정에 전시하고 초청한 러연방 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 주러 외교단, 주요 경제계인사 등 약 1,300명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현대자동차 브랜드와 전시 차량의 우수성을 소개

#### 3. 공관 조치 결과

- 주러시아대사관 외교시설을 활용한 현대·기아자동차의 고급 승용차 신차발표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여론 주도층에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홍보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지만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고급 승용차의 러시아 시장 신규진출을 지원

※ 주러시아대사관은 2004년 신축하면서 대사관 후정을 넓은 잔디밭과 한국식 조경 그리고 전통 정자가 잘 조화되도록 조성하여 외교활동 장소로 활용해 옴.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러시아의 정부 고위관리 및 주요 경제인, 기자단 등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게 신차 전시를 통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직접 소개하여 현대·기아 자동차의 브랜드와 차량품질의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소형차(현대 - 액센트, 겐츠, 기아 - 스펙트라, 시드) 위주의 자동차 시장 진출을 탈피하여 러시아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러시아의 수입자동차 판매 동향에서 국제금융위기로 중·소형 차량은 판매실적이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 시장의 감소폭은 15% 미만

- 러시아 경제의 회복시 예상되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체 간 경쟁에서 2011년 준공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리비아

### 건설공사 보증문제 해결

#### 1. 사례 개요

- 리비아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입찰하기 위한 입찰 보증, 공사수주 이후에는 사업자가 선수금 보증, 이행보증 등 필요한 보증을 현지은행으로 부터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현지은행들이 우리 수출입 은행의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되었다며 보증을 거부

※ 현지은행들은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외환은행 등으로 부터 1차보증을 받아야만 이를 담보로 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우리의 수출입은행 등과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보증액이 한도에 이를 경우 추가적인 보증을 거부

- 2008.11.4 코오롱 건설 관계자가 리비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입찰하려 하였으나 현지 LAFB, SAHARA 은행에서 외환위기 등을 이유로 우리 수출입은행의 보증서를 접수 거부함에 따라 입찰이 불가함을 주리비아 대사관에 알렸음.
- 2008.11.13 이수건설 관계자가 리비아 Zentan 지역 주택 3,300세대 건설공사 계약(4.15억 달러)을 체결하여 2008.11.25일까지 공사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나 우리 수출입은행 또는 외환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로는 현지 은행의 보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음.

#### 2. 공관 조치 사항

- 주리비아대사관은 현지은행을 방문하여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용도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이 리비아 은행들을 방문 보증한도 증액을 협의토록 건의
- 수출입은행에서 리비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건설공사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기업금융팀장 등 2인이 방문하게 됨에 따라 현지 5개 은행과 면담을 주선하고 방문시 동행 지원

- 코오롱 건설의 입찰보증 거부와 관련해서는 2008.11.13일 대사가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 입찰위원장에게 “최근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입찰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입찰참여 허용을 요청” 하는 서한을 전달
- 이후에도 주리비아대사는 Gumhouria Bank, First Gulf Libyan Arab Bank, Libyan Arab Foreign Bank 등 현지 은행장들을 방문 면담하여 수출입은행이 우리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 신용이 양호함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의 보증에 협조를 당부

### 3. 공관 조치 결과

- 코오롱 건설의 경우 주리비아대사관의 협조서한을 첨부하여 보증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수건설의 경우에도 Gumhouria Bank에서 보증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지 은행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모든 사업에 대한 보증을 케이스별로 검토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보증한도를 늘리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이후 우리업체들의 공사보증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리비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본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본부에 건의함으로써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해결
-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향후에도 문제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할 필요

## 말레이시아

### 대한상공회의소(KOCHAM) 설립 지원

#### 1. 사례 개요

- 말레이시아의 제6대 교역국이자 제8대 투자국으로서 한-말 간 경제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1960년 한-말 수교 이후 말레이시아내에서 대한민국 경제인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조직이 부재
  - 그간 지상사협의회, 해마회(해운사협의회), 철마회(철강관련업체 협의회), OKTA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단체가 존재하여 왔으나, 이들 단체의 경우 업종별·분야별 비공식 협의체 성격으로 한인경제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및 공식성이 결여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2월 말레이시아 대한상공회의소(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설립 필요성을 현지 한인경제인들에 적극 설득하는 한편,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의 적극적 주도과 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KOCHAM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담당관들 위원으로 참여한 KOCHAM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조직구성 및 회원규약 마련 등 준비활동을 거쳐 2009.5.22 ‘KOCHAM 발기인회의’를 개최, 이상배 삼성그룹 말레이시아 단지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12개 분과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향후 KOCHAM의 본격적 활동을 위한 모든 준비작업을 마무리

#### 3. 공관 조치 결과

- ‘KOCHAM 발기인회의 개최’ 이후 초대회장 및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단’이 발족하였으며, 동 ‘운영위원단’을 중심으로 KOCHAM의 말레이시아 공식 등록 및 창립총회 준비 작업을 진행



- 2009.11월 KOCHAM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재말련 대한민국상공회의소로 공식 등록되었으며, 2009.11.25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장관 및 주요 인사의 참여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향후 KOCHAM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말레이시아 정부 및 여타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말 간 경제협력 강화 기여, 한인 경제인들의 권익 보호 및 사업지원을 위한 중요하고 다양한 활동(각종 규제개선 건의, 한인 경제인 지원조치 강화 건의, 한-말 경제인간 네트워크 형성기회 마련 등)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

## 미얀마

### 수출보험 한도 증액 지원

#### 1. 사례 개요

- 2008년 말부터 對미얀마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2009.1~2월에는 3,266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
-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對미얀마 수출보험한도(MFTB은행)가 7,500만 달러에 불과, 수출보험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 발생

\* MFTB는 Myanmar Foreign Trade Bank의 약자로 국책 프로젝트 발주물량의 거래 창구 은행임.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4월 주미얀마대사관은 즉시 철강수출업체 간담회를 개최, 사실을 확인하고 수출보험공사 실무라인을 접촉, 수출보험한도 증액을 요청
- 2009.4월 주미얀마대사관이 수출보험공사 사장에게 서면으로 수출보험 한도 증액을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5월 수출보험공사에서는 對미얀마 수출보험한도를 미화 150백만 달러로 증액  
- 향후 필요 시 한도를 추가로 증액하겠다고 약속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금년도 9월까지 對미얀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 30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철강류 수출이 140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는바, 수출보험한도 확대가 수출증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

## 방글라데시

### 평강특장차 공공조달 시장 참가 지원

#### 1. 사례 개요

- 평강특장차는 레커차 및 소방차 등 특장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방글라데시 공공조달 시장 참가 추진
  - 하지만, 방글라데시 소방차 등 특장차의 경우 과거 일본 및 유럽의 무상 원조로 제공되었던 것에 대한 교체수요가 많아 우리 제품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이들 국가 중심으로 조달 진행
  - 특히, 소방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조달참가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달 참가가 원천 봉쇄되었던 상황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7월 주방글라데시대사는 소방재청, 경찰청 등 관련 입찰기관을 방문, 방글라데시 조달관행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우리 기업의 참가를 위한 방글라데시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2009.1월~현재 주방글라데시대사관 및 현지 KOTRA 사무소는 동사업 관련인사 방한초청 지원 및 친밀한 유대관계 구축 위해 노력중

#### 3. 공관 조치 결과

- 소방재청 소방차의 경우 2008년 입찰시 한국을 입찰대상국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방글라데시는 2009년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약속
- 경찰청 레카차는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시정을 위한 관계자 면담 추진 및 지속적 모니터링 결과 한국기업 최초로 동조달시장 진출 성공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방글라데시는 빈번한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 인해 소방재청,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특장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원 사례는 앞으로 우리 기업이 방글라데시 특장차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특히, 방글라데시의 경우 정부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고 과거 불합리한 조달관행을 계속 답습하고 있어 해당기업만으로는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주방글라데시대사관의 적절한 측면지원, 주방글라데시대사관-KOTRA-해당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유연한 대응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

## 선양

###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은행 자금 대출 지원

#### 1. 사례 개요

- 주선양총영사는 선양에 진출한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선양진출 우리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양 현지은행의 자금대출 지원 방안을 모색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선양총영사관 및 선양한인(상)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 주선양총영사관은 선양에 진출한 한국 은행(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기업의 대출신청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선양시담보센터에 접수하고 선양시담보센터의 심사를 통하여 현지 은행의 대출에 필요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확정
- 선양시 담보센터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약속

#### 3. 공관 조치 결과

- 현재 선양진출 한국기업체 한곳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한국 금융기관의 검토를 받아 선양시 담보센터의 심사절차를 진행 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북3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현지은행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번 기회를 통해 자금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

- 금번 신청건이 통과되어 자금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동북3성 지역중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도시로의 확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예정

## 스페인

### LG 전자와 Telefonica사 간 전략적 제휴 지원

#### 1. 사례 개요

- 세계 3위의 정보 통신 회사인 Telefonica사와 우리 LG와 전략적 제휴 방안 모색을 위한 기반 조성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3.30** 주스페인대사는 주스페인 LG 법인장과 함께, Telefonica사의 Santiago Fernandez 재무·투자 담당사장(CFO) 및 Angel Vila 개발 담당 이사를 면담,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남미 지역 등을 중심으로 LG 등 우리 기업과의 공동 진출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
- **2009.9.8** 주스페인대사는 Kim Faura Telefonica 까딸루냐 총괄 사장(한-스페인 민간 경협위 스페인측 위원장)을 면담 시, LG 등 우리 IT 기업과 협력강화를 재차 요청
- **2009.9.11~15** Kim Faura Telefonica 까딸루냐 총괄사장 방한 지원

#### 3. 공관 조치결과

- **2009.9.8** LG와 Telefonica사는 향후 양사 간 전략적 제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LG는 Telefonica사에 휴대폰 공급이외에 IPTV 등 IT관련 부가 서비스 부문에서도 Telefonica사와 협력기로 합의함으로써, 그간 휴대폰 판매 위주의 영업 활동을 향후 여타 부가 서비스 부문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스페인 최대 통신회사이자 통신부문 세계 3위권인 Telefonica사와 우리 IT 회사 간 협력을 통해 핸드폰 판매 중심의 영업 활동이 부가 서비스 부문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Telefonica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의 주요 통신업체인 바, Telefonica사와 우리 기업의 협력확대는 향후 우리 IT 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도 긴요
  - 향후 양국 통신회사간 협력의 공고화를 위해 Telefonica의 아시아 지역 진출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아랍에미리트

## 지재권 침해 문제 대응

### 1. 사례 개요

-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거대 자유무역 시장인 UAE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상품의 수입 의존도가 현격히 높으며 물류 중심지로 서 주변 국가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근지의 가격 민감도가 큰 소비자들을 위한 저가 제품 유통 비중이 큼.
  - 이러한 저가 제품들 중에 상표권을 도용하여 유명 기업 상표와 유사하게 만들거나,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들의 이미지 및 우리 기업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 밍크담요의 경우 한국산 제품이 품질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Made In As Korea' 등으로 하여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으로 속여 유통

〈가짜 한국산 밍크담요〉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특허 및 상표권을 담당하는 UAE 경제부 담당자 면담

- 담당자 : Rashid Al Mualla, Industrial Property Directorate Director, Ministry of Economy
- 논의내용 : 한국기업의 특허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요청, 동 사안 관련 문제 발생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구축 요청
- 중계무역이 많은 두바이의 UAE 경제부 두바이 사무소장 면담
  - 면담자 : Ali Al Shamsi, Director, Ministry of Economy
  - 논의내용 : 두바이 내 한국상품의 지재권 침해사례 발생시 협조 및 적극적인 단속 요청, 기업들이 실제 지재권 침해사례 발생 확인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문의 등

### 3. 공관 조치 결과

- UAE 정부측에 한국 상품이 지재권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인식시키고,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보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여타지역 대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며, UAE 정부 또한 최근 정부차원의 단속의지를 펼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한국기업들은 아직도 지재권 관련 문제를 겪는 기업들이 많음.
- 금번 UAE 경제부를 통해 한국 상품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향후 기업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서 UAE를 기점으로 중동아프리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권익 보호 및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아르헨티나

### 국제입찰 낙찰건 정상진행 지원

#### 1. 사례 개요

- 아르헨티나 최대의 송전 공기업인 Transener사가 실시한 지방 변압기 국제입찰(Licitacion N 90309, 500만 달러 규모)에 최저가로 참여한 우리 기업 효성이 2009.8.14일 우선협상대상자 1위로 낙찰
- 동 입찰에 2위로 떨어진 현지업체 “F”사가 이에 불만을 품고 발주업체인 Transener사를 대상으로 동 입찰건의 유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효성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입수한 후,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KOTRA와 협조하여 효성 담당자의 현지 출장 지원 및 주아르헨티나대사의 아르헨티나 기획부 에너지 차관 면담 등을 통해 동 입찰건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Transener사에 동 입찰 건의 정상진행을 요청하는 KOTRA 관장 명의 협조 서한 발송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아르헨티나 기획부 에너지 차관 면담을 통해 동 사안 관련 협조를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동 입찰건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국내업체가 정상적으로 낙찰받은 입찰건이 현지업체의 부당한 로비 시도에 의해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 주아르헨티나대사관과 KOTRA 및 해당업체가 협력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입찰이 정상 진행되게 한 성공 사례

## 아르헨티나

### 신용조사 정보 제공을 통한 사기 계약 방지

#### 1. 사례 개요

- 2009.10 국내업체 (주)상재가 1,650만 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 대두 수입을 위해 현지업체 “M”사를 접촉하여 계약을 추진하던 중 신중을 기하기 위해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에 신용상태를 문의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KOTRA와 협조하여 “M”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곡물 수출 인증이 없는 기업으로 판명되어 이를 국내업체에 회신, 계약추진을 중단하도록 조치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국내업체의 신용조사 요청을 받고 공관이 현지 KOTRA와 협조하여 신용 조사 시행
- 객관적인 신용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국내업체에 회신

#### 3. 공관 조치 결과

- 현지업체 “M”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M”사가 곡물수출인증기관(ONCCA)의 인증업체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미자격업체이고 재무상태도 양호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업체에 통보하여 계약추진이 취소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곡물수출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등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국내업체의 경우 중요한 수출입계약 시에 반드시 현지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나 KOTRA 등을 통해 현지업체의 신용상태와 평판, 관련 제도 등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함.

## 에콰도르

###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

#### 1. 사례 개요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에콰도르내 KOTRA 사무소 미개설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에콰도르에 수출할 수 있는 각종 지원 활동을 수행
- 주로 우리 중소기업체를 위한 에콰도르 바이어 주선, 에콰도르 제도, 상품 홍보 등을 수행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2009년 한 해 우리 중소기업체로부터 별첨 27건의 문의사항을 접수,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중소기업체의 에콰도르 진출을 지원

#### 3. 공관 조치 결과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우리 업체에게 전달함은 물론, 우리 상품의 홍보를 에콰도르 관련업체에 전달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늘어나는 경제·통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위해서는 당지에 KOTRA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우선 과도기적으로 시급히 주에콰도르대사관내 경제전문 현지인력을 1명 고용하여 우리 중소기업에게 에콰도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참고로 2008년도 우리나라의 대 에콰도르 수출은 전년도 대비 46.2% 증가한 6.26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수입은 전년도 대비 11.5% 증가한 0.25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6.01억달러의 흑자를 달성

## 영국

### 국제유류오염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지원

#### 1. 사례 개요

- 2007.12.7 발생한 Hebei Spirit 사고로 피해지역의 영세관광업(숙박업, 요식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
- 이에 피해업체들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국제기금)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요구

#### 2. 공관 조치 사항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피해보상시 구체적이고 충분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피해주민과 관련한 현안 발생시 국제기금 회원국 및 사무국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므로 주영국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
- 2009.3.24 주영국대사관 담당관은 국제기금 집행위에서 피해입증이 어려운 영세관광업(숙박업, 요식업)에 대한 소득추계(所得推計) 적용 관련 사항을 W.Oosterveen 사무국장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 2009.6.16 주영국담당관은 연소득 24백 만원 이하 관광업에 대한 소득추계 적용 제안을 주요 IMO 해무관들에게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
- 2009.9.28 주영국담당관은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금 사무국 면담을 주선하고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를 이유로 관광피해에 대해 적용하는 피해 인정액의 최대 25% 공제’ 부분을 재검토하도록 요청
- 2009.9.29 주영대사는 국제기금 집행이사국 및 주요 의견 선도국의 주영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하고 관련 인사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협조를 요청

### 3. 공판 조치 결과

- 2009.10.9 국제기금 사무국은 2008.4월 이후 발생한 관광분야 피해에 대해 적용하던 25% 공제율을 철회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
  - － 이번 결정으로 약 7천여건에 달하는 관광분야 피해에 대한 25%의 공제율이 폐지됨에 따라 최대 50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구제(보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09.10.16 국제기금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연소득 24백만 원 이하의 민박피해에 대한 소득추계 시범 적용이 승인됨에 따라 국제기금은 해당 피해에 대한 소득추계를 착수
  - － 국제기금의 원칙에 따른 경우, 보상금 수령이 어려운 1천여 영세민박 피해업자에 대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국제기금은 다수의 무자료 피해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보상원칙과 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였으므로, 소득추계 확대 적용 및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오만

### 현지 진출 기업의 공기 연장 및 추가 공사 수주 지원

#### 1. 사례 개요

- 2009.9월 오만 남부 지역의 도로 복선화 건설 공사를 진행중인 A사는 △ 공사시설의 정부 인허가 지연, △ 2007년 사이클론 고누 발생 시 오만 경찰의 전산망 가동 중단에 따른 신규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 지연, △ 도로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발주처인 오만 교통통신부로부터 약 6개월간의 공기 연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오만 대사관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아울러, A사측은 현재 진행중인 복선화 공사 지역과 연결된 급경사지개량 사업을 복선화 공사에 투입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필요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할 경우, 오만 정부가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것에 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추가공사 진행시 현재 진행중인 복선화 공사의 공기도 자연스럽게 연장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만 정부가 동 급경사지 개량 사업을 A사의 추가공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교통통신부 실무진과 수차례 접촉, 복선화 공사의 공기 연장 및 급경사지 개량 사업 문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교통통신부 실무 관계자들은 A사의 추가공사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사 소요 경비를 감안시 교통통신부 장관의 승인없이 공개 입찰 없이 A사의 추가공사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장관에게 동 사업 추진 문제를 직접 설득할 것을 제안

#### 3. 공관 조치 사항

- 2009.10.3 주오만대사는 A사 현장 소장과 함께 교통통신부 장관을 예방, 복선화 공사의 공기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급경사지 개량사업



을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A사가 복선화 공사에 투입된 시설, 장비를 활용하면 공사기간 및 비용절감이 가능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A사가 추가공사로 급경사지 개량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 4. 공관 조치 결과

- 상기 면담 시 교통통신부 장관은 A사의 급경사지 개량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교통통신부측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급경사지 개량사업관련 A사측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

####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기업이 오만 정부 고위인사를 단독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오만대사관이 개입하여, 우리 기업 관계자가 오만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사업계획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추가공사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
- 특히, 동 사례는 진행 중인 공사의 공기 연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새로운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동 연계 사업 확보를 통해 기존 공사의 공기 연장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사례로 평가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OFFTEC사의 한국 Tibet System사와의 거래 성사 주선

#### 1. 사례 개요

- 한국의 보안 감시카메라 시스템 생산업체 A사는 자사의 제품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입·판매하고자 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보안 솔루션 업체 B사와 거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음.
- 그러나 A사가 이스라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이스라엘 업체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의 일부이므로 A사가 B사와 거래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A사는 B사와의 거래 협상을 중단

#### 2. 기업의 대응조치

- B사는 이스라엘과는 엄연히 별도 경제권, 별도 시장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를 이유로 A사가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09.11.3일 주이스라엘대사관 관할 주 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를 통하여 주이스라엘대사관에 민원을 제기

#### 3. 공관 조치 사항

- 주이스라엘대사관은 A사의 해외판매 담당 매니저를 접촉,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과는 별도의 경제권 또는 시장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동 매니저의 질문에 답함.
  - (1) 팔레스타인 지역이 비록 현재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으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가 수립되어 독립국가 창설을 향하여 노력하고 있음.
  - (2) 한국은 2005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정식 국교수립 직전단계인 일반대표관계를 수립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음.
  - (3)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으로 인하여 팔레스타인 지역과 기타 이스라엘 지역 사이의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 (4) 경제와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내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 (5)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팔레스  
타인 지역과 기타 이스라엘 지역을 구별하여 별도의 현지 딜러  
또는 대리점을 두고 있음. 특히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  
르단 지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음.

#### 4. 공판 조치 결과

- 2009.11.12 주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A사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의 설명에 납득하여 B사와 거래를 개시하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자사의 이스라엘 협력업체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  
하여 B사의 요르단 법인과 거래를 하는 방식(삼성전자 방식)을 선택  
하기로 하였음.
- B사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의 노력으로 A사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  
다고 하면서 주이스라엘 대사관에 사의를 표함.

####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 점령하에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많은  
한국기업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의 일부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 관  
할권(jurisdiction)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도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 1. 사례 개요

- 인도 정부는 2008.10.1일 “근로자연금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 개정을 통해, 20인 이상 고용 작업장의 외국인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2008.11.1일부터 월 소득 24%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
  - 대부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주재원들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바, 동 근로자연금규정 개정에 따라 이중 납부의 부담에 직면
  - 근로자 연금의 상호 납부 면제를 위한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 필요성이 제기
- \* 인도 두산중공업은 2009.3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건의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및 동 기업들의 협력사 등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2009년 초부터 동 근로자연금을 소급하여 납부하기 시작
  - 인도 현지에 380여개 우리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며, 약 1,000명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대사관 조사에 따르면, 동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약 500미불 전후로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전체 연금 납부 부담액은 연간 최대 600만 달러(1,000명×500달러×12개월)로 추산됨(고용 기업-근로자 개인이 각각 12%씩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24% 전액 부담).
- 주인도대사관은 동 “근로자연금규정”의 주요 내용을 당지 우리 기업들에게 신속히 설명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인도대사관은 “근로자연금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 개정 내용을 적시에 소개함으로써 연금 납부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 및 효과를 우리 기업들에게 시의적절히 소개
  - 2008년도 4/4분기 통상투자진흥회의(2008.12.16 뉴델리 개최) 및 2009년도 1/4분기 회의(2009.3.19 첸나이 개최) 계기 ‘근로자연금 규정’ 소개, 2009년도 3/4분기 회의시(2009.9.17 뉴델리 개최)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및 양국 간 협정 체결 동향 소개
- 당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근로자 연금 납부 면제를 위해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옴.
  - 근로자연금 납부를 상호 면제할 수 있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해, 주인도 대사관은 인도 관련 부서(외교부, 노동고용부, 해외동포부) 등과 수시 협의하는 동시에, 우리측 관계부처(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근로자연금공단)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의 조기 체결 필요성을 인식시킴.

## 3. 공관 조치 결과

- 인도정부의 새로운 근로자연금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납부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던 기업들 가운데 대부분 기업들이 동 연금을 납부를 시작한 바, 우리 기업들이 인도의 새로운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결과 도출
- **2009.12월중** 뉴델리에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이 개최될 예정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회보장협정 체결 시,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최대 600만 달러 연금 납부 부담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또한, 2010.1.1일 한-인도 CEPA 발효(예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對 인도 투자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금번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은 우리 기업들의 對인도 투자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일본

### 제주도산 돼지고기 등 수출 재개

#### 1. 사례 개요

- 돼지고기는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대일 수출 품목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구제역(2000년) 및 돼지콜레라(2004년)가 발생하여 일본이 수입금지 조치 부과
- 2008.12월 우리나라는 우선 돼지콜레라가 청정화된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수출재개를 추진하고, 육지부의 돼지고기는 열처리 가공식품으로 수출재개를 모색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일본대사관은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 재개 추진
  - － 2009.1월 제주도의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통보하고 수출재개 요청
  - － 제주도지사의 일본 농림수산성 방문 지원
  - － 주일본대사관은 대일 수출을 위한 위생조건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농림수산성을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 대일 수출용 돼지고기 가공시설의 승인 추진
  - － 2009.1월 및 3월 돼지고기 가공품의 가공시설 승인 요청을 2개업체로부터 접수
  - － 주일본대사관은 농림수산성과 시설 설계 등 승인요건을 수시로 협의하여 해당업체로 하여금 요건에 맞게 개보수하게 하고, 일본 농림수산성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실시 등 승인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토록 유도

#### 3. 공관 조치 결과

-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수출재개
  - － 일본 농림수산성은 제주도 현지조사(2009.5) 및 위험평가 검토를 마치고,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위생조건 합의(2009.8)

– 2009.9.28 기타 세부 검역협의 절차를 완료(2009.9.18일)하고 제주 도산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개시

● 열처리 가공 돼지고기 가공시설의 승인

- 2009.7.9 일본 농림수산성은 설계도 등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2009.6)를 거쳐 우리의 2개업체(한일팜스, 웰섬) 가공장을 승인
- 2009년 하반기 이후 햄, 소세지 등 돼지고기 가공품의 신규 수출 개시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국산 돼지고기 및 가공품은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인 1999년에는 단일품목으로 3억 달러 이상 수출하던 중요 수출품목으로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수출로 외화획득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카메룬

### 한국기업 수출 지원

#### 1. 사례 개요

- 국내 중소수출기업인 그린전자는 카메룬 바이어에게 2,500달러 상당의 샘플용 중고컴퓨터(노트북 2대, 데스크톱 10대) 수출을 진행하려 했으나, 양측 모두 수출입 경험이 적고 소규모의 첫 거래이므로 신용장거래를 할 수 없어 더 이상의 진전이 없던 중 대사관의 적절한 중재 조치로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카메룬대사관은 카메룬 수입업체를 공관에서 면담, 상황을 설명 후 물품대금 및 운송료를 현금(약 1,200,000 세파프랑/ 2,500달러 상당)으로 대리 수령하여 한국 수출업체에 수령사실을 통보
- 한국업체는 공관의 수령 통보와 동시에 계약 물품을 항공 운송
- 카메룬 수입업체의 물품 수령 및 점검 여부를 확인 후 물품대금을 우리 기업에게 송금완료

#### 3. 공관 조치 결과

- 양측 모두 손실 없이 만족할 만한 거래를 완료하게 되어 향후 추가거래의 기반을 마련
- 현재 약 20,000여대(3백만 유로 상당)의 컴퓨터 수출입 거래가 신용장 개설 등 정상적인 무역업무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공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무역거래의 중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
- 향후 무역거래추이에 따라 인력보강을 통해 공관의 통상지원 역할 확대 필요

## 콜롬비아

### 의료시장 개척활동 지원

#### 1. 사례 개요

- 메디슨 콜롬비아 법인(Medison Econet,S,A)은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 및 디지털 이미지전송시스템(PACS)(약 1,200만 달러 규모)을 SALUD-COOP,S,A (의료종합서비스그룹)에 판매를 추진한 결과, 경쟁업체대비 인지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1차 수주(약 350만 달러)에 성공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콜롬비아대사는 2010.7.30일 Carlos Gustavo 살루콥 그룹회장 및 Alberto Castro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 의료장비 특히 디지털 의료장비 및 운영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주콜롬비아대사는 2009.9.9일 Gustavo 살루콥 그룹회장 등 주요 임원들을 관저 만찬에 초청하여, 메디슨의 판매를 측면 지원
- 주콜롬비아대사는 수출입은행이 콜롬비아은행(Bancolombia)에 예치한 5,000만 달러 전대차관을 구매대금으로 이용토록 주선하였으나, 콜롬비아은행측이 리보 플러스 높은 이자를 요구함에 따라 성사되지는 못했음. 우리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 가격대비 좋은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어 수주할 수 있었음.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10.7 1차 350만 달러 구매계약을 체결함.
  - 디지털 엑스레이기기 23대 및 디지털 이미지 전송시스템
- 2010년 상반기 2차 약 800만 달러 상당액의 추가구매가 있을 예정인바, 1차 장비 공급업체인 메디슨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콜롬비아는 디지털 엑스레이기기 이용 및 동 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 치료시스템 구축이 아직 미흡한 실정인 바, 금번 메디슨의 장비 및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효과가 입증 및 홍보되면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 의료제품의 추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쿠웨이트

### 대형 프로젝트 낙찰취소에 따른 우리건설 기업 피해 방지 지원

#### 1. 사례 개요

-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는 2007년에 제4차 정유공장 프로젝트(총 공사금액 150억 달러)을 발주하였는 바, 2008.6월에 우리 건설기업(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들이 63.7억 달러를 최저가로 낙찰받았고, 2008.9월에 발주처인 KNPC와 우리 기업 간에 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여 본격 공사를 진행하여 왔음.
- 그러나, 동 프로젝트의 입찰과정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2008.9월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동 프로젝트의 취소 또는 연기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발주처는 급기야 2009.2월에 동 프로젝트의 낙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낙찰 취소에 따른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

#### 2. 공관 조치 사항

- 주쿠웨이트대사는 동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석유부장관, 국영정유회사(KNPC)회장 등을 면담하여, 우리 기업들이 동 프로젝트 낙찰취소로 많은 손실을 입었음을 설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협조요청
- 대사관 관계자도 KNPC 담당 프로젝트 부사장 및 이사, 법률담당 이사를 면담하고, 낙찰 취소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청

#### 3. 공관 조치 결과

- 현재 동 프로젝트에 대한 Claim에 대해 국영정유회사(KNPC)와 우리 기업 간에 협의중에 있으며, Claim의 특성상 최종 해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대사를 포함한 공관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영정유회사 측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과 주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쿠웨이트는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낙찰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바, 프로젝트 낙찰사례 발생시에는 공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크로아티아

### 문화 공연장 냉방설비 발주 지원

#### 1. 사례 개요

-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시가 운영하는 최대 문화공연장 Lisinski Hall의 냉방설비 개선사업에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공연장 시설관장 및 자그레브 시청을 대상으로 현지 진출 LG전자가 생산판매중인 우수한 설비를 소개하고 LG전자의 참여를 지원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2008.11월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이 주관한 한국문화홍보행사 ‘크로아티아에서의 한국주간’ 행사 계기에 Lisinski Hall측이 냉방설비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확인
- 동 한국주간 행사기간 중 우리 진출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Lisinski Hall 내에 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냉방설비와 관련 현재 Hall측이 개선방향에 적합한 기술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LG전자에 대해서는 Hall측 관계자와 관련 소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2009년 초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Hall 측이 관장 등 운영진이 대거 교체되고 냉방시설 개선사업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시설을 하더라도 시와 연관이 많은 현지 소규모업체에 의뢰하는 등 사업 외적인 사유로 인해 LG전자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
- 주크로아티아대사는 각종 계기에 자그레브 시장에 대해 직간접인 방법으로 LG전자가 첨단기술의 냉방설비를 제공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 특히 2009.9월 Hall 기술담당국장을 면담하여 LG전자 냉방설비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회사 간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3. 공관 조치결과

- 현재 Hall측은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LG전자의 냉방설비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근간 LG전자가 동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 응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



## 크로아티아

### 외국인 투자관련법 개정 참여

#### 1. 사례 개요

- 2008.11 개정 발효한 크로아티아 외국인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을 제한하는 등 일부 조항이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2008.5월 크로아티아 주재 미상공회의소(AmCham)을 중심으로 외국계 진출기업들이 Task Force를 구성하고 크로아티아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동 법의 개정요구를 개시한 바,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은 Task Force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09.3월 동 법의 개정되는 데 기여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5월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Task Force에 참여하여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제한 규정을 지적하여 해당 규정의 완화방안을 요구
- 크로아티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업체 및 자영교민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노동사증 취득이 매우 어렵고, 취업사증 취득자가 최소 2년 이상 크로아티아에서 취업한 이후에야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사증 취득이 가능한 사실을 문제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

#### 3. 공관 조치 결과

- 크로아티아 정부와 의회는 2009.3월 대사관이 참여한 Task Force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동 법을 개정발효 하였음.
- 특히, 개정법안은 동반가족 사증부여 요건을 완화하고, 동반체류 허가기간을 종전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확대하였으며,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에 따라, 향후 우리업체의 투자와 교민들의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 크로아티아

### 통상·투자 확대 방안 포럼 개최

#### 1. 사례 개요

-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은 양국 간 통상·투자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4.24일 한-크 비즈니스 포럼(Korea-Croatia Business Forum 2009)을 개최

#### 2. 공관 조치 사항

- 대사관은 크로아티아 외교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4.24일 한-크 비즈니스 포럼을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개최
- 동 포럼에서 우리측은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허석균 KDI 연구위원, 최용석 경희대 교수 등 국내 경제통상분야 전문가를 초청하고, 현지 진출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관계자 및 자그레브 무역관이 참석하였으며, 크로아티아측은 상공회의소, 외교부 국제경제국, 투자청 관계자가 참석
- 동 포럼에서 우리측 참석자들은 국내업체의 해외 투자진출 환경을 소개하고, 기업 및 업체들이 크로아티아 투자진출시 경험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
- 아울러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양국 참석자들을 대사관저 만찬에 초대하고, 특히 인근국가를 근거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업체들의 크로아티아에 대한 판매망 확대 및 품목 다양화에 있어 애로 및 건의사항을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 등 관련 실무기관 관계자와 기탄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3. 공관 조치 결과

- 동 포럼은 크로아티아 외교부 경제부 및 상공회의소 수출투자청 등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및 업체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크로아티아측 관계자들이 긍정 평가

- 특히, 크로아티아 외교부 및 투자청은 2010년에도 이와같은 포럼을 개최해 주기를 요청한 바, 동 포럼에서는 ‘중소형 선박분야 투자확대 방안’, ‘태양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분야 투자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태국

### A사의 “Bangkok Trade Zone 프로젝트” 참여 지원

#### 1. 사례개요

- 2009.4.1 한국에 있는 A사는 태국 수와나폼 공항 근처에 추진되고 있는 “Bangkok Trade Zone 프로젝트 (1.5억 달러 규모)”에 참여할 계획으로 동 프로젝트 주관회사인 Chaiyanan Bangplee Parrland 사와 계속 접촉해왔으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자, 3.31일 본사 해외사업팀 3명이 태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이에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해 대사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4.1~2 주태국대사관 담당관은 동 프로젝트의 실체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국 투자청(BOI)을 접촉, 2008.3월 투자청에서 승인한 사업임을 확인하고, 태국관세청 국제협력과장과 정보분석과장을 접촉하여 동 프로젝트의 진행현황 등에 대해 문의

#### 3. 공관 조치 결과

- 관세청 담당과장은 동 자유무역지대에 파견되어 있는 세관사무소 직원과 통화하고 대략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동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상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알아볼 것을 안내
- A사 직원들은 2009.4.2일 오후 세관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주태국대사관에 유선상으로 사의를 표함.

## 투르크메니스탄

### 우리 기업인 아쉬하바드 국제 공항 억류 사건/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투르크메니스탄 인근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지사장이 업무차 투르크메니스탄을 8.16일 방문하였다가, 투르크메니스탄 입국비자 초청장이 없다는 이유로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동인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허가 하지 않아 동인이 2009.8.16~19일 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 국제공항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
  - 동 지사장은 2009.8.16일 저녁에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서 기다리면 2009.8.17일 오전 중에는 반드시 투르크메니스탄 입국비자 초청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관리의 구두 약속을 믿고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비자 초청장 없이 입국했다가 동 정부관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상기와 같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임.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직원이 2009.8.17~19일 아쉬하바드 국제공항 및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여 동 지사장에게 입국비자를 발급해 줄 것과 입국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은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 아울러, 서한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및 이민국에 동인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
- 아울러,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직원이 매일 직접 공항에 방문하여 동 지사장에게 생수, 담요, 음식 등을 제공

### 3. 공관 조치 결과

-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의 노력으로 동 지사장은 8.19일 오후에 투르크메니스탄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였으며 예정대로 투르크메니스탄 고위 정부 인사들을 면담하고 2009.8.21 투르크메니스탄을 출국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적인 관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입국비자 초청장이 없는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공항에서 입국 비자를 발급 해주지 않으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입국비자 초청장을 발급 받아야 함.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관리들은 자신의 약속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바, 구두 약속만 믿고 중요하거나 위험이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음.

## 페루

### 두산중공업 담수화 프로젝트 지원 및 입찰정보 제공 등

#### 1. 사례 개요

- 2009.2월 <두산중공업 방문단 일행의 페루 담수화 프로젝트>주페루 대사관은 사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정보 제공 및 페루 재정경제부 및 주택건설부와의 면담 주선 등 지원

####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09.2.23 주페루대사관은 페루 수자원공사 사장 면담 2009.2.24일 대사관은 두산 중공업과 투자진흥청, 주택건설부 및 재정경제부간 면담 주선 및 참석
- 페루 담수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Alan Garcia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서 국정목표로서 추진되고 있는 과제임을 감안, 주페루 대사관은 페루 재정경제부 측을 수차례 접촉하면서, 우리 EDCF 차관 도입을 통한 동 사업 추진을 페루 측에 적극 권유

#### 3. 공관 조치 결과

- 주페루대사관은 EDCF를 통한 담수화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페루 재정경제부 및 주택건설부 등과 긴밀히 접촉 중에 있으며 우리 두산중공업측과도 협력체제 유지
- 2009.7월 페루 투자진흥청이 주관하는 담수화 프로젝트 추진 입찰정보를 두산측에 제공하는 등 수시 동향을 두산측에 통보

## 페루

### 우리 수산업계 및 페트로텍 광구 활동 보호를 위한 명예영사 임명

#### 1. 사례 개요

- 2009.3월 당지 우리 교포 수산인 및 페트로텍사 임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우리 교민 수산업계 및 페트로텍사 유전 광구 개발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대처방안 협의
  - 동 오찬간담회에서 상기 우리 교민 및 페트로텍사가 위치한 페루 북부 Piura 지역에서의 우리 명예영사관 개설 필요성 논의 및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2009.7월 동 명예영사관 개설 등 성과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3월 주페루대사관은 우리 수산업체들의 수산공장 운영 등 교민의 경제권익 보호 차원 및 2009.2월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한 페트로텍사 해상광구 생산 및 탐사활동 지원 등 자원외교 확보차원에서 외교통상부 본부에 우리 명예영사 임명 건의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7.14 Alejandro Balarezo 신임 Piura 명예영사 임명 및 동 명예영사관 개설 현판식 개최
  - 우리 수산업계 교민 및 페트로텍사 임직원 등 참석



## 페루

### SK에너지의 수출용 가스관련 부정적 여론에 대한 공동대응

#### 1. 사례 개요

- 2010년 사업운전을 앞둔 페루 LNG공급 가스에 대해, 부족한 국내 공급량을 이유로 일부 정부 및 여론의 가스 공급 및 가격에 대한 부정적 시각 존재
- 최근 페루 국회에서 까미세아 천연가스 수출관련 소위원회에서는 까미세아 광구(88광구)의 국내공급 전용 및 페루 LNG공급가격 상향변경을 추천

#### 2. 공관 조치 사항

- 근본적으로 페루 국가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SK에너지는 파트너들사 간 공조체제를 통한 민간 차원의 신중한 대응조치 예정
- 주페루대사관은 향후 필요시 SK에너지와 협조하여 우리 국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예정

#### 3. 공관 조치 결과

- 주페루대사관은 페루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SK에너지는 동 문제에 공동대응 예정

## 페루

### SK에너지의 에탄올 석유화학공장 건설사업 참여 지원

#### 1. 사례 개요

- 향후 페루에서 국제입찰 예정인 「에탄올 석유화학 공장건설 프로젝트」 관련, 우리 SK에너지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 2010년 중 입찰 예정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11월 APEC 정상회담 계기, 한-페 양국 정상회담에서 SK에너지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참여 지원 등 페루측에 협조 요청
- 2009.3월 지식경제부 차관 페루 방문시 총리회담, 에너지광업부차관 회담시 동 사항을 페루정부에 협조 요청
- 2009.8월 대통령 특사 방문시, Alan Garcia 대통령, 국회의장 및 에너지광업부장관 면담 시에도 동 프로젝트 지원 협조 요청
- 2009.11월 페루 Alan Garcia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 등에 서도 동 프로젝트 지원관련 페루측에 협조 요청, 긍정적 입장을 표명 받는 성과

#### 3. 공관 조치 결과

- 2010년 예정된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SK에너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관 차원에서 전력 지원 예정

## 프랑크푸르트

### 삼성물산/현대로템의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 확장공사 입찰 참가 지원

#### 1. 사례 개요

-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주식회사((주)Fraport)는 공항 신규터미널(제3 터미널) 및 활주로(제4활주로) 신축과 기존 공항시설 현대화를 위한 총 40억 유로 규모의 공공입찰 프로젝트를 추진중(2009~2015년 공사계획)
  - (주)Fraport는 헤센주정부(36.6%), 프랑크푸르트시청(27.4%), 루프트한자(14%), 소액주주(22%)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성격의 주식회사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주)Fraport 및 헤센 주정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삼성물산/현대로템의 구매입찰 참여를 주도하여 우선 공항탑승교(PBB) 납품입찰을 수주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
  -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구매입찰프로젝트 참가성사를 통하여 독일 및 유럽지역 공공입찰시장 본격 참가를 위한 교두보 마련 전략으로 추진

#### 2. 공관 조치 사항

- 2008.2.12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는 프랑크푸르트공항 확장공사계획 정보를 사전에 적시 입수, (주)Fraport의 W. Bender 사장을 면담, 우리 기업의 확장공사 참여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
- 2008.6.4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는 (주)Fraport의 S. Schulte 부사장을 면담, 공사프로젝트 세부사항 파악 및 우리 기업 참여방안에 대해 협의
  - 이후, 삼성물산 등 우리 기업 및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단체에 전달
- 2008.10.14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삼성물산과 (주)Fraport 간 실무협의 주선, 긍정적 결과 도출

- 이후, 양측은 4차에 걸친 실무협의 개최 및 (주)Fraport 실사팀의 2009.6.14~18일간 방한

- 2009.5.11~12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는 (주)Fraport의 W. Bender 사장과 S. Schulte 부사장을 각각 면담, 우리 기업의 입찰 참여추진 관련 의의 및 현황을 설명하고 최대한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 양인은 긍정적인 반응 표명 및 구체사항에 대해 조언
- 2009.5.20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는 삼성물산측 관계자와 함께 우리 기업의 입찰 참가 성사를 위한 구체 추진계획 협의
- 2009.7.23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는 삼성물산측의 긴급 지원요청에 따라 (주)Fraport T. Steckel 구매·건설담당 부사장을 면담, 삼성물산/현대로템의 기자재 납품방안에 대해 우호적으로 협의
- 2009.9.24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는 (주)Fraport T. Steckel 구매·건설담당 부사장과 삼성물산 독일법인장 간 회합 주선

### 3. 공관 조치 결과

- 탑승교(PBB) 구매입찰 참여
  - 교체설치용 일반탑승교 1대 계약 수주(28만 유로)
  - 에어버스A380용 신형탑승교 입찰 참가 추진(11월 중)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상기 구매입찰 참여건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 제3터미널 건설공사 본격참여 추진을 위한 예비심사 통과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재

- 유럽지역 관문공항인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 구매입찰 참가 성사를 통하여, 독일내 우리 위상과 입지 강화는 물론, 향후 우리 기업의 독일 및 유럽지역 공공조달 프로젝트 진출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우리 기업의 공항공사 참여를 위하여 (주) Fraport 및 헤센 주정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하면서, 삼성물산/현대로템의 입찰 참여를 적극 주도하고 효과적인 측면 지원으로 성사

## 그린피스의 공해상 조업방해 관련 진실규명

### 1. 사례 개요

- 피지 유력일간지 「Fiji Times」는 2009.9.17일자에 그린피스 발표만을 인용하여 “2009.9.14일 그린피스 소속 선박이 공해상에서 무단 조업 중이던 한국어선 「오룡 717」호를 추적, 조업 허가 구역인 키리바시 해역으로 강제 호송”했다고 보도
- 동 일간지는 또한 그린피스 언론기고문의 주장안을 일방적으로 인용, 왜곡 보도함은 물론 그린피스 대원들이 무단으로 우리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고 관련 어구들을 압수하는 불법적인 행동도 정당화하는 등 피지에 한국 원양어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

### 2. 공관 조치 사항

- 2009.9.17 주피지대사관은 상기 언론사, 그린피스 지부, 피지 한국인 선장협회 등과 접촉 동 보도내용 사실 확인에 들어갔으며 동 선박이 우리나라 사조산업 소속의 원양어선임을 밝혀내었고 상기 사건이 발생한 수역이 피지 인근 공해가 아닌 솔로몬, 나우루, 키리바시, 투발루 수역이 접경하고 있는 공해로 파악되었음.
- 2009.9.18 주피지대사관은 사조산업 본사와 접촉,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함과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엔 공해 어족보존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에 의거 남태평양 해당지역기구인 WCPFC(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에 가입된 회원국이며, 동 기구에서 결정하는 보존관리를 준수하며 상기 사조산업 원양어선도 합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
- 이에 따라 주피지대사관은 2009.9.21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Fiji Times」에 대사관 조사내용 및 입장을 반영한 주피지대사 명의의 서한을 발송, 즉각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

- 국제법적으로 공해상에서의 어업은 자유주의 원칙과 기국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므로 상기 수역에서 라이선스없이 조업을 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름
- 특히, 동 공해상의 수역은 WCPFC 주관, 2009.12월 한국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2010.1.1부터 선망선(Purse senior)에 대해 조업금지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이 경우에도 「오롱 717」호와 같은 연승(Longline) 선박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국제적으로 자유로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장임.
- 2009.9.14 상기 공해수역에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조업하고 있던 사조산업 소속 「오롱 717」호에 그린피스 선박이 무단, 접근하여 참치자원보존이라는 명분으로 공해조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아무런 절차없이 사유재산인 어구를 강탈하고, 조업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규 위반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9.23 「Fiji Times」는 주피지대사의 코멘트를 인용, 아래와 같이 그린피스 관련 반박 기사를 게재하여 애초의 왜곡된 기사를 정정
  - 그린피스 소속 선박이 한국어선을 나포, 키리바시 해역으로 호송한 수역은 남태평양의 공해 수역인 바, 공해상에서는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어업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그 어선이 속한 국가만이 단속권을 가지고 어선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임.
  - 한국은 남태평양 어족 보존 지역기구인 WCPFC에 가입된 정식 회원국이며 동 기구에서 결정하는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상기 한국 원양어선인 오롱 717호도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음.
  - 따라서 그린피스가 상기 한국선박 「오롱 717」호를 무단으로 키리바시 해역으로 강제 호송한 행위는 국제적인 어업규범을 위반한 것임.

- 2009.10.28 「오룡 717」호 소속사인 사조산업측은 공관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시 주피지대사관의 신속한 조치에 사의를 표하고 2009.10.1~6일 마이크로네시아에서 개최된 WCPFC 기술이행위원회 회의에서 상기 사건 관련, 회의록에 채택하였으며 이후 상기 공해상에서 그린피스의 방해없이 한국 어선들이 원활하게 조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한국어선의 조업활동에 대한 그린피스의 불법적인 행동을 피지 유력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말미암아 우리 수산업 관련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었음은 물론, 피지내에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주피지대사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언론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사례를 남김.



## 후쿠오카

###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1. 사례 개요

- 경제규모는 일본 전체의 8.6%에 불과하지만 한국과의 지근거리에 위치한 특성상 한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는 한일 간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활발한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진출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음.(공공기관으로는 총영사관을 비롯한 7개 기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진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KOTRA, 관광공사를 제외하고는 진출기관의 규모가 작아 독립적으로 정보수집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인커뮤니티 주간정보지(퀴클리, Qeekly)를 발간, 관내 한인기업 및 동포단체와 국내 유관기관(지자체, 기업)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있음. 나아가 관내 공공기관, 지자체 및 주요 기업의 참여하에 연 2회 교류회를 개최, 퀴클리 발간을 통해 구축된 사이버상의 네트워크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있음.

※ 퀴클리(Qeekly)는 큐슈를 의미하는 Q와 주간지(weekly)의 합성어임.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KOTRA, 관광공사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바탕으로 2008.9.5일 한인 커뮤니티 주간 정보지 퀴클리(Qeekly)를 창간, 09.11월 현재 총 60호를 발간하여 관내 한인기업 및 동포단체와 국내 유관기관(지자체, 기업) 관계자 330여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있음. 그동안 게재된 정보 건수는 총 505건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경제통상 235건, 관광 63건, 정부 및 지자체 교류 62건 등이었음.
- 나아가 퀴클리를 통해 구축된 사이버상의 네트워크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 2회 교류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바, 상

반기(2009.4.10) 공공기관 및 지자체 교류회에는 총 12개 기관 20명 참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업들도 참가를 희망해 옴에 따라 관내 주요기업도 참여한 상태에서 교류회(2009.11.13)가 개최되었음(총 24개 기관(기업) 30명 참석).

### 3. 공관 조치 결과

- 한인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정보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나아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사업성과의 제고와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의 발굴도 기대되고 있음.
- 특히, 쿼클리 발간 및 교류회를 통한 성공사례나 아이디어의 제공은 소규모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의 자제와 사업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추후 개최되는 교류회에는 참여기관(지자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홍보자료 또는 계획을 제출, 공유토록 하여 업무협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후쿠오카

### 구미-후쿠오카 산업교류전 개최 지원

#### 1. 사례 개요

- 구미시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제4공단에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09.7월초 후쿠오카를 방문 2회에 걸쳐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의 후속사업으로 2009.10.14~16일 구미시에서 후쿠오카중소기업경영자협회(중경협)과 공동으로 “구미-후쿠오카 산업교류전” 개최 계획을 추진함. 후쿠오카에서는 중경협을 중심으로 100여개 기업(단체)이 동 행사에 참여하게 됨.
- 상기 과정에서, 구미시와 중경협은 총영사관이 행사에 참여하면 성과가 진작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총영사의 행사 참여를 적극 요청해 옴.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후쿠오카총영사는 본부의 승인하에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참여기업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행사 인사말 등을 통해 양 지역 간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역설
- 아울러, 구미와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경협 관계자를 관저로 초청 만찬간담회를 개최, 구미공단예의 투자 및 한 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 개진

#### 3. 공관 조치 결과

- “구미-후쿠오카 산업교류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또한, 공관에서 국내경제 및 기업현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현지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라고 할지라도 주재지와 관련된 경제통상 행사에는 현지 공관을 참여시켜, 공관으로 하여금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케 하여 성과를 진작토록 할 필요가 있음.

## 후쿠오카

### 인삼 홍보 페스티벌을 겸한 국경일 리셉션 개최

#### 1. 사례 개요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한일 우호친선교류의 증진 및 동포사회 활성화 위해 국경일 리셉션 개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에 리셉션을 개최하였으나, 2009년은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감축 등으로 리셉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그런 상황에서, 청주 MBC측이 충북(증평군)의 인삼페스티벌 개최 계획을 이야기한 바,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국경일 리셉션을 인삼홍보 페스티벌을 겸하여 실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행사를 추진하게 됨.
- 또한, 행사의 기획역을 맡은 청주 MBC측과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리셉션에 한일 양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함으로써 리셉션을 문화행사로 발전시켜보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청주 MBC의 기획 하에 ‘한국의 춤과 일본의 북이 잘 어우러진 한마당’이 추진됨.

#### 2. 공관 조치 사항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2009.9.29일 일본 정·기업·학계·언론계 주요 인사 및 동포단체 대표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오쿠라호텔에서 “증평 인삼페스티벌을 겸한 국경일 리셉션”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는 바, 동아일보 등 국내 매스컴과 서일본신문 등 주재지 매스컴에 행사내용이 보도됨.
- 증평군과 충북인삼조합은 리셉션장 입구에 인삼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홍보 및 상담회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리셉션 음식으로 전문요리사(5명)가 만든 인삼요리와 인삼주를 제공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음. 또한, 리셉션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된 인삼선물세트(홍보용)도 반응이 아주 좋았음.

- 아울러, 청주 MBC측이 기획하여 선보인 정명자 선생(한국 전통무용가)과 오오쿠라 쇼노스케 선생(일본 전통북연주자)의 협연 ‘한국의 춤과 일본의 북이 잘 어우러진 한마당’도 참가자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음.

### 3. 공관 조치 결과

- 증평군 및 충북인삼조합은 큐슈지역 유력인사 400여명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증평인삼을 적극 홍보할 수 있었으며,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했던 리셉션 행사를 지자체의 예산지원 하에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크게(약 230만엔) 절약할 수 있었음.
- 나아가 자칫 의례적 행사로 흐를 수 있는 리셉션을 한국의 전통문화(춤)와 음식(인삼음식)을 소개하는 자리로 활용함으로써, 큐슈지역에서 한류와 한식 붐을 진작시키고 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재외공관이 민간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협된 ‘외교’나 ‘영사’ 개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문화, 비즈니스 등과 유연하게 접목할 수 있는 공공비즈니스(public business)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 발효

### 1. 사례 개요

- 벨기에에 파견되는 우리 주재원들도 벨기에 사회보장법에 따라 고율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2009.7.1일부로 한-벨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동 부담이 경감

### 2. 공관 조치 사항

- 2005.7.5 한-벨기에 사회보장 협정 서명
- 2005.12.12 우리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6.12 벨기에측 비준 절차 진행 현황 및 소요 기간 파악
- 2006.8.24 벨기에측 비준 현황 파악 및 조속한 비준 촉구
- 2009.3월 벨기에측에 동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 2009.3.10 벨기에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9.6.18 2009년도 2/4분기 통상투자진흥지원반 회의시 동 협정 발효 시기 및 이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계산, 보험료 적용 면제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
- 2009.7.1 한-벨 사회보장협정 발효

### 3. 공관 조치 결과

- 2009.7.1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주재원에 대한 사회보장세 이중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향유

####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유럽의 경우 고율의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반면, 동 수급조건은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의 사회보장세 이중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동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필요





#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